국토최남단 마라도 방생법회
제주불교성지순례 ..... (주)다도투어
www.dadoTour.co.kr
TEL (064)724-1185

현대불교

천년고찰 파주 보광사 납골당 영각전
부처님 품안에서 왕생극락하소서
031)948-4440 한글도메인 · 납골당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4월 2일 수요일(주간) 제415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풍경소리 담긴 급여명세

북적이는 출 · 퇴근 도심 지하철. 잠시나마 발길을 묶어놓던 '풍경소리'의 글들이 이제는 육군 간부들과도 만나게 된다.

육군경리단은 오는 6월부터 육군 부사관급 이상 간부와 군무원 등 10만여 명의 급여명세표에 (사)풍경소리의 지하철 게시판 글들을 싣기로 했다고 3월 27일 밝혔다. 게재는 A4 용지의 급여명세표 뒷면이 활용되며,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각 그림 · 연꽃 문양 등의 디자인까지 곁들어진다.

이 같은 육군경리단의 결정은 간단하다. 일반인은 물론 군인들에게도 풍경소리의 글들이 종교와 상관없이 보편적인 아름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추진 경위도 자발적이었다. 육군경리단 급여담당 실무자가 23일 풍경소리를 찾아와 지원여부를 문의했던 것이다. 또 일일이 글들을 읽고, 얼마만큼의 글을 지원할 수 있는지 상세히 묻고 갔다.

풍경소리는 육군경리단의 문구사용 요청을 받고, 곧바로 수필 · 시 · 법구 등 총 100여 꼭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엽서와 포스터도 보내주기로 약속했다. 단 내건 지원 조건은 하나. 글의 출처를 밝혀 달라는 것뿐이었다. 그간 전국의 지하철과 철도 역사, 교도소 · 군부대 · 학교 등 다양한 생활현장에서 실천해온 풍경소리의 짧지만 아름답고 여운 긴 '글 포교'가 또 다른 곳에서도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 풍경소리는 지난 2000년 창립한 불교계 비영리 포교 · 문화단체로, 특히 지하철 포교 게시판을 운영해 일반 시민들에게 '소리 없는 법음'을 전해주고 있다.

기대도 대단하다. 육군경리단 최두호 중위(퇴직보험과)는 "처음에는 명세표 공간 활용차원에서 추진됐지만, 시안이 나오자 주위 반응이 좋았다"며 "봉급명세표를 받아들고 빙그레 웃을 동료들을 생각하면, 실무자로서 설레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매달 받아보는 급여명세표. 늘 부족해 보이는 숫자들로 한숨 내쉬기 십상이지만, 아름다운 글들이 실린 명세표를 받아보는 이들의 느낌은 어떨까?

김철우(취재1부 기자)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051)632-0064
대구: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충북: (043)258-3282 강릉: (033)643-5599 동해 삼척: (033)521-6293 영주: (054)634-3429
경남 동부: (055)353-1196

반전 · 상생서원 전국에 메아리

조계종 전국 소속 사찰서 평화캠페인 펼치기로



◇조계종 31대 총무원장 법장스님(사진 가운데) 취임식이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24일 조계사에서 열렸다. 사진= 박재완 기자



◇3월 22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틱낫한 스님과 불자들, 각 종교단체들이 '평화염원 걷기명상-STOP WAR' 행사를 가졌다. 사진= 고영배 기자

파병반대, 평화의 등 · 현수막 달기운동
'반전평화불대위' 종전 때까지 걷기 시위

지구촌의 반전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평화를 염원하는 불자들의 목소리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같은 염원은 불교계 일부 단체와 불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돼 온 반전 및 평화 촉구 시위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전국 단위 사찰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조계종은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전쟁반대 호소문을 발표하고 중앙종회의원들이 파병 반대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종단차원의 평화캠페인도 전개한다.

조계종은 미국-이라크 전쟁의 조속한 중단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평화 캠페인-평화와 상생을 위한 불자들의 서원'을 벌이기로 하고 3월 28일 전국 본말사에 이같은 방침을 시달했다.

평화 캠페인은 초하루법회, 보름법회 등에서 법회 시작 전 평화를 위한 타종을 한 다음 평화발원문 봉독, 평화법문 등 평화기원법회를 봉행하고, 각 사찰마다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의 등'을 다는 것과 함께 평화를 염원하는 현수막을 사찰 입구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전개된다. 총무원은 사찰에서 법회시 봉독할 평화 기원 발원문을 이날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계사, 수원포교당, 남원 실상사, 파주 보광사 등 전국 대부분의 사찰들은 2일 초하루법회부터 본격적인 평화 캠페인에 들어간다.

또 사찰에서 발행하는 사보와 경내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도 3월20일 총무원에서 발표한 '평화 호소문'과 중앙종회에서 결의한 '평화성명서'를 올리기로 하는 한편, 부처님 오신날 시청 앞 탑등의 이름도 '평화의 탑등'으로 결정해 지속적인 평화기원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인권위원회 등 13개 불교단체로 구성된 반전평화 불교대책위는 지난 3월 27일부터 조계사 일대에서 '이라크 전쟁 중단과 파병반대를 위한 걷기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시위는 전쟁이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된다.

정토회는 전쟁으로 인한 분노와 아픔을 나누기 위해 3월22일부터 4월11일까지를 반전평화기간으로 선포했다.

방한중인 틱낫한 스님과 불자들, 각 종교단체와 시민들도 3월22일 시청앞 광장에서 '평화염원 걷기명상-STOP WAR' 행사를 갖고 평화를 염원했다.

한명우 · 남동우 기자

한국불교 '변화와 도약' 지향

법장 스님, 조계종 31대 총무원장 취임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법장스님 취임식이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24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렸다.

대구 지하철과 이라크 전쟁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된 이날 취임식은 종정스님의 법어와 법장스님의 취임사,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종산스님의 격려사, 중앙종회의장 지하스님과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법장스님은 취임사에서 "전 불자들과 국민들의 참여와 변화를 통해 기쁨과 희망을 제시하는 한국불교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5대 종단 청사진을 통해 한국불교는 이제 변화와 도약이라는 미래지향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장스님이 제시한 5대 종단 청사진은 △종지종통 수호와 종풍진작을 통해 수행과 전법 중심의 종단 확립 △모든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원융종단 만들기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 △한국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목표로 한 미래지향적 종단운영기조 실행 △대중적인 신도활동 활성화 등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이 대독한 축하메시지에서 "면면히 내려온 호국과 화합의 불교정신이 국민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천성 · 북한산문제' 총리실서 주관

조계종 중앙종회, 백지화 촉구 결의문 발표

북한산 관통도로와 천성산 고속철 문제가 국무총리 주관 하에 총리실에서 다뤄지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문제를 관계부처와 의논해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불교계는 그동안 노선 백지화와 함께 이 문제를 총리실 주관으로 다뤄줄 것을 요청해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가 이뤄지게 돼 문제 해결의 폭이 더 넓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계종 공대위 김용구 간사는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 들인다"면서도 "기존 노선 백지화 언급이 없다는 것은 아쉬우며, 특히 북한산의 경우 5,6공구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28일 '지율스님과 조계사의 릴레이 단식을 적극 지지하며, 총무원 집행부는 대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즉각 문제해결에 나서라'는 내용의 북한산, 금정산 관통로 노선 백지화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한명우 기자

봉축일 등나누기 캠페인
선물용 팔모등 개발 보급

봉축위원회는 올해 부처님 오신날의 뜻을 모두 함께 나눈자는 취지에서 '등 나누기 캠페인'을 벌인다. 관련기사 2면

봉축위는 3월 27일 조립식으로 된 선물용 팔모등(사진)을 개발해 출시하고, 불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에 들어갔다.

선물용 팔모등은 우리나라 고유의 등인 팔모등을 10분 정도면 조립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으로, 서원지를 달아 자신의 소원과 바람을 적을 수 있도록 했으며, TV 위나 공부방, 침실 등에 놓고 오랫동안 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가격은 3천원.

한명우 기자



함께 일할 참신한 일꾼 찾습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세상을 보는 窓, 부처님과 중생을 이어주는 믿음의 가교 구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대불교가 내일을 이끌 인재를 찾습니다.

■모집부분
수습기자 약간명

■응시자격
① 불교신자
②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남자는 1975년 1월 1일이후, 병역면제 남자 또는 여자는 1979년 1월 1일이후 출생자

대졸 불자 대상…13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

■원서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03년 4월 13일(일)
2. 접수방법
본사 인터넷신문인 붓다뉴스(http://www.buddhanews.com) 또는 본사가 운영하는 불교정보센터인 부다피아(http://www.buddhapia.com)에 접속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양식을 다운받으신 후 E-mail(cgseo@buddhapia.com)로 보내시면 됩니다.
3. 제출서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시험당일에 제출하십시오. (최종합격자가 아닌 경우 제출서류는 돌려드립니다)
4. 1차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인터넷 공고 (문의전화 02-737-8881)

현대불교신문사

天馬行地 塵沙開
천마가 힘차게 나아가니
길이 훤히 열리도다
世界的 禪筆 天馬圖 구도적 예술세계



봉 불기 2547년 부처님오신날 축
나라번영 민족화합 세계평화 불교중흥기원
제 8 회 불교문화대제전
玉龍子 大吉祥圖 作品展



修行과 포교에 전념하여온 玉龍子 석지형 스님이 불국정토 성취의 원력으로 20여년간 吉祥圖를 연구하고 정진하여 1996년 5월 7일 제1회 작품전을 거행한 이후 끊임없는 연마를 계속하여 제8회 대길상도 작품전을 마련합니다. 그동안 대길상도는 각급기관 美國대사관등 국내외 여러인연처와 각급단체 언론사등에 작품이 전수되어 소중하게 소장되어 있습니다. 玉龍子스님 대길상도는 세계적 특허인증기관인 미국 연방정부 특허청(UNITED STATES OF AMERICA PATENT AND TRADEMARK OFFICE)과 日本정부 특허청의 의장특허를 획득한 독창성과 예술성 높은품격 국제적보편성을 인증받은 세계적 작품입니다.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 나투심을 봉축하는 대길상도전을 봉행함에 있어 무려 10여m에 이르는 天馬圖대작등 정성다하여 밤새워 조성한 작품들을 모아 장엄하고 환희 충만한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기념대법회 : 2003년 4월 10일(목)오전 11시
❀ 장소 : 잠실 롯데호텔 3층 특설대법회장, 전시관
❀ 작품전 : 2003년 4월 10일~4월 14일(5일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 기념불교문화대제전 : 작품전 기간 중 불교전통문화행사
❀ 기념불교문화대강좌 : 작품전 기간 중 매일 오전 11시 ~ 오후 1시까지 불교계 권위의 큰스님과 법사님의 특별대강좌 마련
❀ 불자연예인 공연 : 불자연예인단의 특별공연 ※ 동참 불자님께 호신불 목걸이 경전 등 기념품 증정



玉龍子대길상도의장 미국연방정부 특허청(UNITED STATES OF AMERICA PATENT AND TRADEMARK OFFICE) 日本정부 특허청 특허획득은 국제적인 인증을 받은 명나는 일입니다
玉龍子스님 대길상도는 전세계에 널리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서울 소림정사 불교아카데미 총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2
TEL:511-6210~5, 3443-9871~7, 3446-2158,2185 FAX:511-6216

사 설

전쟁은 만생명의 적

불교역사에 전쟁은 없다. 불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전쟁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전쟁의 이면에는 특정세력의 이해관계가 있기 마련이며,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제왕권시대에도 부처님은 전쟁을 좋아하는 군주들을 공공연하게 비판하고 있다. 자신의 정복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백성을 도구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였다.

생명에 대한 보편적 사랑은 불교의 기본 가르침이다. 따라서 출가자가 국왕을 부추겨 전쟁을 일으켜서도 안되며, 출정군을 보아서도, 군대의 정열, 배치, 열병 등에 참석해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무기장사, 독약판매, 사냥 등은 불교도들이 택해서는 안되는 직업이다.

불교도가 지켜야 하는 제일의 계율은 불살생이다. 내가 조금 불편하고 괴롭더라도 다른 생명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아힘사정신,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남을 죽일 수 없다는 극단적인 무저항 비폭력 사상이 여기서 출발한다.

미국과 영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국 세력이 이라크를 침공하자 전 세계적으로 반전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불교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조계종 총무원장과 중앙종회 등에서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고 전쟁반대와 평화수호를 다지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재가 연대를 비롯한 불교단체들도 마찬가지다.

반전, 비폭력, 평화수호는 불교도의 기본적인 책무다. 그렇기에 불교계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다만 당연한 일이 비상하게 보이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조계종 발전의 '코드'는

조계종은 3월 24일 제31대 총무원장 법장스님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어느 때보다 조용한 가운데 진행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 꼭 한 달 만이었다. 지난 한 달은 제31대 집행부 구성과 종단지표 설정, 각 분야별 장단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간이었다. 부서별 업무보고를 꼼꼼히 받고 교계 각 단체들을 방문하며 일일이 고충과 비전을 청취하는 법장 스님의 모습은 조계종의 '변화기류'를 실감케 했다.

취임법회에서 법장스님이 강조한 종단 운영의 기본 틀은 '원융'이란 두 글자로 집결되고 있다. 그리고 그 힘을 통해 변화와 도약의 새로운 틀의 불교를 일구어 내겠다는 다짐을 겹겹이 했다. 당연한 논리고 지당한 다짐이다. 이제 달라야 한다. 혀끝에서 떨어지는 말은 한 인간도 성불시키지 못하거늘 중생제도인들 가당하겠는가? 오직 실천이 필요하다. 행동하지 않는 개혁은 있을 수 없다. 오랜 수행과 다양한 행정 경력을 지닌 법장스님은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법장 스님은 취임법회에서 종지종통 수호와 종풍 진작, 사부대중 참여의 원융종단 만들기, 사회적 역할 확대, 한국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에 대한 의지를 특별히 밝힌 것이다. 법장 스님의 이 같은 서원은 총무원장이라는 자리와 총무원이라는 기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종도의 합심된 코드에 의해 창조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종정 법전스님도 고구 정녕한 법어로 종단의 원융과 화합을 당부한 것 아니겠는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조계종 '종헌·종법개정특위' 구성

제157회 임시종회, 총무원장선거법 등 개정 위해

고산·밀운 스님 원로위원 추천

호법부장 종열스님 만장일치 동의

조계종 종헌·종법 개정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또 종열스님(전 화엄사 주지)의 조계종 호법부장 임명동의안도 통과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25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제157회 임시종회에서 총무원장 선거법, 교구종회법,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을 위해 '종헌·종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중원, 정휴, 법등, 영담, 영배, 종광, 학담, 현응, 정념, 본각, 법안, 장적, 효림 스님 등 13명이며, 위원장은 중원스님이 맡았다. 종헌·종법 개정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지난 총무원장 및 종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일정과 선거인단 자격 및 선출 문제, 직능대표 종회의원 선출 방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종회는 28일 속개된 회의에서 종열스님에 대한 호법부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호법부장 종열스님 임명동의안이 상정된 것은 25일 현진스님 동의안이 부결돼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다시 추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고산스님(전 총무원장)과 밀운스님(봉선사)이 만장일치로 원로의원에 추천됐으며, 임기가 만료된 6석의 법규위원에는 지현, 현각, 철안, 법선, 성일, 성찬 스님이 선출됐다. 재심호계위원에는 법광스님이 재선출됐으며, 기초선원 운영위원에는 지성, 무여, 인각, 원융, 정찬, 현묵, 영인 스님 등 7명이 위촉됐다.

현재 조사특위가 구성돼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봉은사 문제에 대해서는 4월1일부터 6개월간 정밀 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선학원과의 관계 정상화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총무원법도 개정됐다. 종회는 '재단법인 선학원의 인사권, 재산권, 운영·관리권 등 고유권한을 일체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선학원 권리보장' 조항을 총무원법에 신설키로 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종열스님은



호법부장에 임명된 종열스님은 1953년 생으로 도광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5년 통도사에서 월하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고, 한산사와 화엄사 주지, 화엄사 승가대학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불교교육단체 연합회 새 포교사 142명 품수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공동대표 활안·이하 연합회)는 3월 22, 23일 청원 월대수련원에서 포교사 연수 및 품수식을 열었다.

한국불교통신대학장 활안스님, 해동범음대학장 대은스님, 강건기 전북불교대학장, 김재일 동산불교대학장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142명 신규 포교사들은 연합회 포교사단을 구성, 본격적인 포교활동에 들어갔다.

연합회 포교사단 초대 총단장에는 동산불교대 출신 이진호 포교사가 선출됐고, 전금규, 박근출, 김연옥 씨 등이 각 대학 대표 포교사에 임명됐다.

이에 따라 연합회 포교사들은 앞으로 조계종 포교사단과 별도로 인터넷 포교, 성지순례 포교, 다도 포교, 군법회 지원, 장의봉사, 섬마을 포교, 사회복지 포교 등 15개 분야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펼치게 된다.

강유신 기자

서울시청앞 봉축탑 22일 점등

봉축위, 등 나누기 등 일정 확정

올해 봉축행사 일정이 확정됐다.

봉축위원회는 등전시회, 연등놀이, 불교문화마당 및 '등 나누기 캠페인' 등 봉축행사 일정 및 사업을 3월27일 발표했다.

4월22일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점등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르는 올해 봉축행사는 등전시회(5월2일~8일, 봉은사), 연등놀이(5월3일 오후 7시~9시, 조계사-인사동-탑골공원-우정국로), 불교문화마당(5월4일 낮12시~오후8시, 우정국로), 어울림마당(5월4일 오후 4시30분~ 6시30분, 동대문운동장), 제등행진(5월4일 오후 7시~9시30분, 동대문→조계사), 대동한마당(5월4일 오후9시30분~10시30분, 우정국로) 등으로 진행된다. 또 5월8일 오전 10시에는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찰에서 법요식을 갖는다.

이와 함께 봉축위는 올해 부처님 오신날 표어인 '가족을 부처님처럼'이라는 내용에 알맞게 가족이 팔모등을 들고 활짝 웃는 모습의 포스터를 제작, 배포에 들어갔다.

한명우 기자

◆봉축행사 일정

행 사	일 시	장 소	내 용
시청앞 점등식	4. 22 19:00	서울시청앞 광장	봉축탑 점등
등 전시회	5. 2~5. 8	삼성동 봉은사	전통등 출품작 전시
연등놀이 (전야제)	5. 3 19:00~21:00	조계사, 인사동, 탑골, 우정국로	장엄등 점등, 연희단 공연
불교문화마당	5. 4 12:00~20:00	우정국로	연등만들기, 서각, 탁본, 선무도, 민속놀이, 범패, 사찰음식 시음 등
어울림 마당	5. 4 16:30~18:30	동대문 운동장	연희단 공연, 연등법회
제등행진	5. 4 19:00~21:30	종로 (동대문→조계사)	장엄등 행진
대동한마당	5. 4 21:30~22:30	우정국로	연희단 공연
법요식	5. 8 10:00	조계사 등 전국 사찰	법요식, 관등놀이(18:00)

총본산성역화불사추진위 집행위원장에 법등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3월28일 한국불교총본산성역화 불사 추진위원위 집행위원장에 법등스님을 위촉했다.

또 집행위원에는 성관(총무부장), 현고(기획실장), 태연(재무부장), 탁연(문화부장) 스님 등 총무원 집행부와 지홍(조계사 주지), 원행(종회의원), 종삼(종회의원) 계성(전등사 주지) 스님을 위촉했다.

한명우 기자

법공·정암·조연 스님 불교TV 새 이사 선임

불교텔레비전(사장 이수덕, 이하 btn) 제9기 정기주주총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성우스님과 신허 스님, 이수덕 사장 등의 이사들과 200여 명의 주주들이 참석한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감사보고에 이어 2002년 결산안 승인과 임기가 만료된 임원에 대한 선임 등에 관한 안건이 논의됐다.

btn은 이날 법공 스님(종지종 13대 통리원장)과 정암 스님(해동 용궁사 주지, btn 부산지사장), 조연 스님(경주 법연원 회주)을 새 이사로 선임했다. 또 성우 스님과 신허 스님, 김광삼 현대불교신문사 사장을 재선임했다.

여수령 기자

이라크 어린이에 의약품 보내자

종단협, 다른 종교단체들과 캠페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등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이라크 어린이들을 돕는 운동이 전개된다.

종단협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천주교주교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과 이라크 어린이들에게 의약품을 지원한다고 3월 28일 밝혔다.

'이라크 어린이에게, 폭탄 대신 의약품을'이란 주제로 전개되는 이 캠페인은 각종 성금 모금, 반전평화 콘서트·마라톤 개최, 반전평화걷기대회 등으로 진행된다.

성금 모금을 통해 구입한 의약품은 이라크 현지 의료기관과 어린이 난민캠프에 전달될 예정이다.

종단협 김석오 총무과장은 "이라크는 91년 이후 60만명의 어린이가 사망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며 "반전평화운동의 확산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현 대' 만 평

김 영 민



물고기 No, 나무방생 Yes

봉 태아 〈낙태, 유산〉 영가 49일 천도재 및 태아 동자상 조성불사 행

증명 법사 : 봉선사 조실 월운 큰스님

저희 **구담사**에서는 **매년 유산된 태아 영가의 천도재** 를 올리고 있습니다.
생명은, 무상속에서 생사를 되풀이 하는 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생의 업력을 받아 삼계 윤회 하는 도중 출생처인 모태에 들어가 인연을 맺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명 인지 알지 못한채 무명속에서 잃어버린 태아의 영혼을 위해 참회 하는 마음에서 **태아 동자상 조성 불사**를 하오니 동참 하시어 항상 이 도량에서 참회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 특히 **대학 수험생은 기도 동참** 하시길 바랍니다.
※ 정성 스럽게 **태아 영가**를 위해 기도 하는 도량은 **구담사** 가 **최초의 성지** 입니다.

♣ **위패를 쓰는 관계로 미리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 **입 재 일 :** 양력 4월 6일(음력 3월 5일)
◉ **회 향 일 :** 양력 5월 25일(음력 4월 25일)
◉ **태아 영가 제사 :** 입재일 (양 력 4월 6일) 3 재 (양 력 4월 27일)
5 재 (양 력 5월 11일) 7 재 (양 력 5월 25일)
◉ **버스 운행 :** 입재, 3재, 5재, 7재만 운행
· 장소 : 강변역 테크노마트 주차장 (오전 8시)
◉ **기 도 동 참 비 :** 49재 기도 동참금 (10만원)
◉ **위 패 비 :** 1위당 5천원 **옷 :** 천 원
◉ **태아영가 동자상 동참금 :** 30만원
(동자상 동참하신분은 49재 7회동안 기도비 없고 위패비만 추가됩니다.)
◉ **준 비 물:** 분유, 사탕, 과자, 쵸코렛 등

입금 계좌 : 국민은행 (217-01-0339-914)
농 협 (2250-56-03370)
예 금 주 : 구 담 사

대한불교 조계종 **구 담 사**

◆ 주소 :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 4리 595번지 전화 : 031-533-2855 팩스 031-532-2441

부처님오신날 사면 멸빈자 포함 시사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 기자들과 간담

사면에 대한 종정 교시 및 원로회의 유시로 시행 여부 및 범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멸빈자의 사면 대상 포함 가능성을 시사했다. 3월27일 교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다. 25일 157회 임시종회 종정연설에서 부처님 오신날 사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서 한 발짝 더 나간 것이다.

법장스님은 27일 교계 기자간담회에서 "멸빈자는 현재 활동중인 사면검토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만약에 멸빈자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징계 이후 수행생활을 잘 한 사람들에 한해 선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말은 멸빈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면 의지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현 집행부가 멸빈자 사면범위 및 방침에 대해 방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법장스님은 3월25일 열린 종회에서 종무정책을 밝히는 종정연설을 통해 "종정스님과 원로회의 유시를 받드는 사면복권 동의안을 시일이 촉박해 (이번 종회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종무회의 결의로 집행부와 식견있는 종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면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고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사면동의안이 마련되는 대로 종회에 상정해 오는 부처님 오신날 좋은 결과가 발표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함축돼 있다. 우선 멸빈자를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흔적이 배어있다. 사면검토위원회는 종정연설 이틀 전인 23일 이미 구성됐다. 이는 멸빈자 문제 처리를 위한 법률적 검토 및 의견수렴을 위한 것이다. 이번 종회에 사면복권 동의안을 상정하지 못하고 늦어지게 된 것도 바로 여러 가지 절차와 의견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징계이후 수행생활 좋은 스님들에 한정

종헌개정·반대 정서 '넘어야 할 산'

그러나 넘어야 할 가장 높은 산은 종헌개정이다. 종헌개정없이는 멸빈자 구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멸빈자들의 사면복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해소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종정교시와 원로회의 유시가 있었지만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멸빈자 8명에 대한 '징계확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나오면서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98,99년 징계자 가운데 멸빈자는 8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정우, 원학, 성문, 현근, 현소 스님 등 5명은 초심과 재심에서 멸빈 징계를 받은 뒤 다시 재심사을 청구, 당시 종회는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몇 차례 논의를 거쳤다. 그러나 99년 당시 총무원장이던 고산스님이 '총무원장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패함에 따라 특별심사위원회는 유야무야됐고, 재심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총무원이 '아직도 특별심사위원회는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일각에서는 "재심사만으로 멸빈징계가 철회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총무원과 호계원은 이같은 견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이미 징계는 확정된 상태고, 다만 재심사에서 구제방법을 찾겠다는 취지에서 특별심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재심사는 징계철회 또는 경감에 대한 결정권이 없고, 현 상태에서 이들을 구제할 방법은 오직 종헌개정 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사면은 법장스님 말대로 부처님 오신날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멸빈자 포함은 어떤 상황에서든 종헌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두 단체 양보와 종단 의지가 관건

조계종 중앙·전국신도회 통합 원칙적 합의

조계종의 양대 신도단체인 중앙신도회와 전국신도회가 하나의 신도회로 통합하기로 3월 20일 합의했다.

그동안 통합의 대전제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통합절차 등에서 이견을 보여 통합을 이끌어 내지 못한 수차의 전례에도 불구하고, 선진규 전국신도회장과 백창기 중앙신도회장은 '하나의 신도회' 원칙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배석한 자리에서 합의서에 서명했다.

종법 개정·통합 절차 등 후속조치 남아

두 단체 대승적 양보·총무원 협조 필요

이번 합의조항에는 명칭을 조계종 전국신도회로 하고 사단법인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과 사무국 통합, 이사 인원을 5:5로 한다는 등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통합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특히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의 강한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법장스님은 취임을 앞두고 두 단체의 통합의 당위성을 알렸고, 3월 20일 신도단체를 순방하는 자리에서 통합 서명을 끌어냈다. 3월 25일 열린 취임법회에서는 "양 조직을 통합해 대중적인 신도활동을 활성화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중앙신도회와 전국신도회는 통합을 위한 내부 의견조율에 들어간다. 중앙신도회는 회장단과 상설위원장, 부서장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1일 개최해 향후 신도회 방향과 통합 절차 등을 논의하는 한편, 이날 대의원총회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전국신도회도 10일 김해 봉화산 정토수련원에서 대의원총회를 열어 통합을 추인 받을 예정이다.

양 단체의 합의 추인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양 단체가 통합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감하고 있는데다가 내부에서도 통합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양 단체는 올해 부처님 오신날 이전에 통합을 마무리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신도법상 규정되어 있는 중앙신도회 명칭 변경, 전국신도회의 법인을 유지할 경우 법률상 문제, 사무국 통합 문제 등 통합을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구체적인 통합절차 논의를 위해 필요한 통합추진위 구성도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두 단체의 대승적인 양보와 조계종 총무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7년 중앙신도회가 창립돼 양분을 맞은 이후 통합을 시도했던 수차례의 전례를 교훈삼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48년의 전통을 이어온 전국신도회의 정통성과 전국 본·말사 신도회 조직을 갖춘 중앙신도회의 조직력을 통합한 조계종의 대표 신도단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머리만 있고 몸과 발이 없는 신도회'라는 오명을 벗고, 서로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살려 대승적인 화합의 정신으로 새로운 재가운동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새롭고 정갈한 음식점
삼청동 고조선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한식 일품요리로 건강을 지킵시다
사전 전화예약 : 02)732-7355
삼청동 우리은행 뒤편(우리은행 주차장 이용)

종책자문위 구성 종단 대계 수립

법장 총무원장 한달…일문일답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총무원장에 당선된 지 꼭 1달 만에 교계 출입기자들과 만나 그동안의 소감과 사면 문제 등 종단 현안 및 향후 종단 운영방침을 밝혔다.

▲당선 후 한 달간의 소감은?

—총무원장의 사회적 지위와 위상에 대한 새로운 느낌도 많았다. 그런 만큼 책임이 더 무거움을 느낀다.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종단 현안은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일이다. 또한 종단의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그래서 종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종단의 백년대계를 설계할 계획이다. 대정부특별위원회도 구성할 것이다.

비구니부 신설 인적 자원 활용 확대

대정부 특별위 구성 불교계 입장 관철

▲비구니부 신설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 비구니가 승단의 절반이다. 종단 인적 자원의 반을 차지하지만 역할을 주어져 있지 않다.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확대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종회 종정연설에서 사면검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대상자에 멸빈자는 포함되는가?

—사면 시기는 초파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멸빈자 포함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멸빈자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징계 이후의 수행생활과 징계과정 등을 종합해 선별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98,99년 멸빈 징계자에 대한 징계확정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현재 검토중인 사안이라서 말하기는 곤란하다. 확정됐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말할 사안이 아니다. 다만 종정 교시와 원로회의 유시가 있었기 때문에 새 집행부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총무원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다.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개선해야 할 점은 많다. 과거보다 규모도 커지고 시대적 역할도 크게 늘었다. 문제는 종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는가 하는 것이다. 94년 개혁종단 이후 올해로 10년째를 맞는다. 조직을 재검토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종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다면 바꿀 것이다. 제도개혁을 단순히 시스템 변화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승려노후복지 문제만 해도 종헌종법에는 제도적으로 복지시설을 두도록 돼 있지만 실체는 없다. 사찰 기채승인이 남발되는 것도 막을 것이다. 기채승인이 남발되면 종단이 빚더미에 앉게 된다.

▲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생각인가?

—선거 당시 공약했던 대로 대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정부 창구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현안이 되고 있는 문화재위원회에 불교계 전문가가 포함되는 문제 등을 비롯해 불교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5일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총리 주관 하에 북한산, 천성산 문제를 챙기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노선검토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종단 차원에서 참여할 의향이 있나?

—아직 정부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 다만 노대통령이 선거 당시 공약했고, 또 당선 후에도 백지화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그렇게 되리라 믿는다. 검토위가 사심없이 일을 처리하겠다면 참여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전여론이 높다. 이에 대한 입장과 정부의 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불교의 제일 계율은 불살생이다. 어떤 명분으로도 전쟁은 합리화될 수 없다. 정부는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진정한 한미관계는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한명우 기자

국태민안 군민화합
단종 추모 영산대재
장 소 : 보덕사 극락보전앞
일 시 : 2003년 4월 6일 오후 1시~4시
문 의 : 033)374-3169
※영산대재 당일 오시는 분들께 보덕사에서는 점심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보덕사에서 단종 추모 영산대재를 봉행하며 불자여러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영산대재는 돌아가신 무주 고혼들의 넋을 위로하며 극락왕생 하길 기원하는 불교재공으로 의식입니다. 이번 단종제를 맞이하여 그간 끊어졌던 영산대재를 발굴 복원하여 보덕사가 장릉의 수호사찰로서 의무를 다함과 아울러 돌아가신 단종의 넋을 위로하며 충신들의 뜻을 오래도록 빛내고 오늘날 국민 화합과 발전, 국운 융성하길 기원하는 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장엄한 영산대재를 봉행하는 것으로도 다큐멘터의 희열을 맛고 무형문화재를 맞을 수 있는 친근인연을 지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번 보덕사에 복원된 단종추모 영산대재에 다시한번 국민 여러분들을 정중히 모시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앙원합니다.
부부 동참하시여 선연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불기 2547년 3월 일
보덕사

제 1부 13:00~14:00 장소 : 장릉 내 단종제각 앞
시련 - 제불보살님과 단종 영혼을 모심
- 단종 영혼을 장릉 제각에서 보덕사 경내로 이운
- 분향 : 시련의식 중 각 단체별, 개인등 분향
- 이운 : 시련행렬순서대로 장릉에서 보덕사로 이동
제 2부 14:00~15:00 장소 : 보덕사 경내
헌공 - 제불보살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
- 천수경(다같이)
- 의식 : 바라춤, 나비춤, 화청(영가축원)
- 육법공양 : 부처님께 여섯가지 공양물을 올리는 의식(지역, 단체, 개인등)
- 축원 : 연합회 회장 스님
제 3부 15:00~16:00 장소 : 보덕사 경내
시식 - 거불
청혼
헌작 : 연합회 스님 및 단체장 등 순서별
추도문 낭독 - 군수님
제 37회 단종 문화제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12리 1110번지
대한불교조계종 태백산 보 덕 사

일주문



정각원 개강법회서 법문

현성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는 3월 24일 동국대학교 정각원 2003년 개강법회에서 법문을 했다.



'소쩍새마을' 창간 기념식

종범 승가원 이사장은 '소쩍새마을' 창간 10주년을 맞아 3일 오후 5시 서울 성북구 안암동 승가원 강당에서 기념식을 갖는다.



해동사 부설유치원 낙성식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은 18일 오전 11시 경북 안동 해동사 부설 유치원 낙성식에 참석, 법문을 한다.



명예대승정 추대

자우 서울 금강사 주지는 3월 25일 몽고 불교종단 함보라마 담마자브 총무원장으로부터 명예대승정에 추대됐다.



식목일기념 나무심기

성운 서울 은평노인복지관장은 5일 오전 10시 30분 복지관 야외 행사장에서 제58회 식목일을 기념, 식목행사를 연다.



진신사리 친견법회 봉행

종후 북한산 노적사 주지는 2일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을 초청, 부처님 진신사리 및 장엄 친견법회를 봉행한다.(03)353-5016



日 학생참여 평화교류캠프

원행 나눔의집 원장은 3월 22, 23일 일본 오사카 마즈바라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평화교류캠프를 개최했다.



3개월간 불교경전 강의

수진 부산 해인정사 주지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3개월간 진행되는 불교경전 강의를 실시한다.(051)291-1176



과천복지관 5주년 기념식

대원 과천복지관장은 3월 26일 복지관 개관 5주년을 맞아 국회의원 안상수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진묵대사 성모 다례제 봉행

종우 김제 성모암 주지는 9일 오전 11시 조선 중기 고승인 진묵대사 성모님 다례제를 봉행한다.(063)542-6991



17차 학술발표회 개최

해주 불교학연구회장은 12일 서울불교대학원대학에서 제17차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덕진, 임승택 발표 예정. (02)2260-3128



학생 · 교직원 · 주민 건강진단

손제석 위덕대학교 총장은 건강복지센터를 개장, 3월 24일부터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주제 강연

박완일 전 조계종 전국신도회장은 20일 익산 원광대에서 행정대학원생 100명을 대상으로 '모든 것은 변한다' 주제로 강연했다.



법인화 기금모금 음악회

이근후 불교상담개발원장은 3일 저녁 7시 성균관대 새천년홀에서 불교상담개발원 법인화 기금 모금을 위한 '마음산책 음악회'를 연다.



'건봉사 사적' 출판 기념식

김재일 전국염불만일회장은 3월 31일 광화문 하이마트 뷔페에서 <건봉사 사적> 출판 기념식을 열었다.



'부시는 전쟁중' 번역 출간

김창영 참여불교재가연대 국제협력위원장은 3월 1일 밥 우드워드의 <부시는 전쟁중(Bush at war)>를 번역, 출간했다.



제2회 절하기 대회 개최

정우식 조계사청년회장은 8일 저녁 7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2회 절하기 대회를 개최한다.(02)735-3724

"한국불교 국제화에 보탬됐으면 …"

영·일어 불교용어사전 펴낸 이태길 국제포교사



"외국인을 상대로 불교와 사찰을 설명하는 현장에서 불교용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고민했던 적이 많습니다. 불교용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를 느낀 거지요."

최근 불교용어를 영어와 일본어로 정리한 불교 미니 사전(사진 · 아래)을 펴낸 이태길(사진 · 위) 조계종 국제포교사. 그는 2000년부터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외국인 사찰안내 통역봉사를 하면서 대웅전, 범종, 삼법인 등 불교용어를 외국어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다.



다국적기업에서 30여년간 종사해 온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제작된 불교 미니사전은 이같은 고민을 거뜬히 해결해 준다. 사용자들이 편의를 위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작게 제작한데다가 1,200여 단어를 영어와 일본어로 정리해 웬만한 내용은 모두 담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에게 한국의 불교와 문화를 좀 더 정확하고 쉽게 알리고자 하는 이들과 한국불교를 국제화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이태길 국제포교사는 불교 미니사전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을 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 한국본구 운영비로 기탁할 예정이다.

이태길 국제포교사는 레이티온 인터내셔널 코리아 영업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세계불교청년우의회 국제교류연구소장, 봉은사 외국인 통역봉사 모임인 문사수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부인과 큰딸, 작은딸이 모두 조계종 국제포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모든 것 나를 위해 한 것 뿐인데"

교보환경문화상 수상 도법 스님



"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야릇했습니다. 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사람들이 손뼉칠만한 일을 했을 때 주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각 분야에서 시민환경의식 고취와 환경친화적 사회실현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교보환경문화상 대상을 수상한 도법 스님(남원 실상사 주지 · 사진). 스님은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당신의 인생을 온통 자신을 위해 살아왔을 뿐인데도, 더구나 출가수행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자기 삶을 살아왔을 뿐인데도 상을 받게 돼, 기쁘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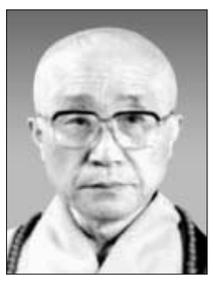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실상사사부대중공동체, 한생명, 작은학교, 지리산생명연대 식구들에게 이 상을 돌립니다. 사실 이 상이 주어져야 한다면 이 도반들의 몫이며 제가 대신 받았을 뿐입니다."

시상식은 4월 22일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주민들 내집처럼 편히 이용하길"

수유복지관 개관한 수혜 스님



"수유복지관의 주인은 강북구 모든 주민들입니다. 내 집처럼 편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8년 만에 서울 수유복지관 공사를 끝내고 23일 준공식을 개최한 수혜 스님(운가자비원 대표 · 사진)의 인사말이다. 96년 복지관 건설 공사의 첫 삽을 뜬 스님은 탁발로만 28억원을 모아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수유복지관을 완성했다. "국가로부터의 일체 지원을 받지 않고 이런 불사를 완성하게 된 것은 부처님의 가피 같습니다"는 스님은 "자비는 구호만 외치면 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할 때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수유복지관을 건설한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은 96년부터 서울에 수유2동 어린이집, 수유 4동 어린이집, 은평구 어린이집, 원효료 새싹어린이집, 성수1가 진터마루 어린이집 등과 강원도에 인제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고침 본지 414호 인물동정 중 원정 쌍계사 주지 스님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대구 불교회관 개관식

대구 사원주지연합회(회장 원명스님)는 3월 25일 대구 불교회관 1층에서 개관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 불교방송 운영위원장 법타 스님, 재가 신도 5백여 명이 참석했다.



파라미타 대표학생협 결성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대구지부장 지성스님(동화사 주지)은 3월 22일 대구불교대학에서 '대표학생 협의회 결성식 및 지도교사 간담회'를 갖고, 2003년 중점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자연보호실천위원회 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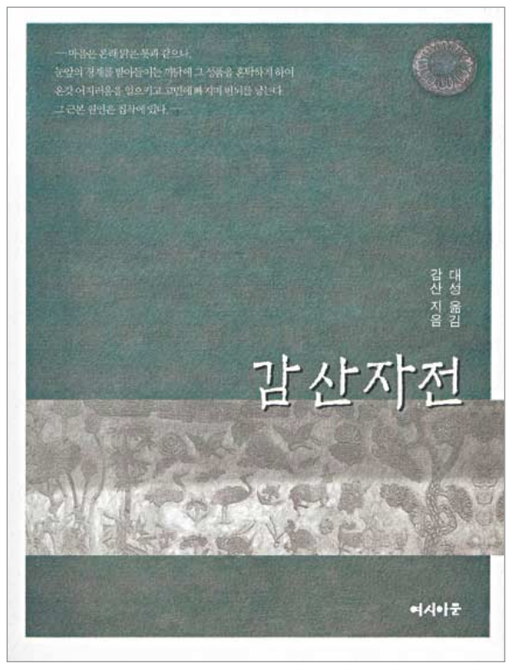
부산 · 경남 포교사단은 3월 23일 통도사에서 자연보호실천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 · 경남 포교사단 포교사 400여 명과 통도사 총무국장 산옹 스님 등이 참석했다.



구미불교대 입학 · 졸업식

구미불교대학(학장 묘운)은 3월 14일 법당에서 불교대학 입학식과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기본과정 6기 133명과 전문과정 3기 51명이 구미불교대학에 입학했다.

감산대사 수행일대기 한국 초역



신국판 변형 248쪽 값 8,000원

사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도(道)를 말할 수 없다. 대저 만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소유하지 않으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사물을 소유하는 자는 반드시 사물을 추구한다. 사물을 추구하는 자는 사람을 잊기 쉽다. 사람이 없는데 누구와 더불어 도를 말하겠는가? 사물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마땅히 가야 할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옛어른의 공부 길...

하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 이자전自傳의 원제는 『감산노인자서연보실록憨山老人自序年譜實錄』으로, 감산스님이 자신의 평생사平生事를 기술한 일종의 자서전이지만, 문학적 전기傳記라기보다는 년年 단위로 주요사건을 기록한 개인적인 행적의 기록에 가깝다.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 주로 저자 자신의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는 대목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시기의 이야기들은 주변 인물들과의 구체적인 대화나 사건 전개를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당시의 정황을 생동감 있게 전해 주고 있다.
특히 젊은 시절 깨달음을 열어 가는 이야기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

지은이 감산 (憨山, 1546~1623)스님은 운서 주굉, 자백 진가, 우익 지욱과 더불어 명대의 4대 고승으로 일컬어진다. 12세에 출가하여 19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1581년에 오대산에서 무차회 無遮會를 열어 법을 설하자 5백여 명의 대중이 모였다. 1597년에는 조계曹溪에 머물면서 선禪을 부흥시켰다. 1616년에는 여산廬山 오유봉에 법운선사法雲禪寺를 건립했고, 1622년에 조계로 돌아와 다음 해에 입적했다.

옮긴이 대성 (大晟)스님은 1989년 순천 송광사로 출가했다.
『참선요지』와『방편개시』(여시아문)를 우리말로 옮겼으며 최근에는 라마나 마하르쉬관련서적들을 '아루나찰라 총서'(탐구사)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02-732-1521 / Fax 02-737-0696



◇제주 법화사는 3월25일 경내 구품연지 부근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전국토를 맑고 푸르게"

연꽃·나무심기 새 방생문화 정착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서울 조계사 관문사, 순천 송광사등 전국사찰과 불교환경연대와 같은 단체들에서 나무와 연꽃심기행사를 다채롭게 연다. 특히 이번 식목행사는 날로 문제가 되는 물고기방생을 대체하는 생명살리기 행사의 의미가 있어 관심을 끈다.

조계사(주지 지홍)와 불교환경연대(공동대표 수경)는 5일(토) 오전 10시 배화여자대학 뒷산에서 2547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종로구민과 함께하는 푸른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한다.

'위대한 환경사상가였던 부처님처럼 온 세상의 생명체를 위해 맑고 푸른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열리는 푸른나무 심기행사에서는 불교를 상징하는 나무인 보리수와 잣나무 400그루가 식수될 예정이다.

순천 송광사(주지 현봉)도 5일(토) 오전 10시~6일(일) 사찰입구 신평교 부근 1400평에 홍련, 백련을 심는다.

연꽃이 물위에 떠있는 연화부수(蓮花浮水)의 형국인 송광사는 연꽃단지를 조성하여, 여름부터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경치와 향기를 공양한다는 계획이다.

또 천태종 관문사도 5일 주지 춘광스님을 비롯 사중스님들과 종무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경내에 나무심기 행사를 갖는다.

조계사·불교환경연대, 보리수·잣나무 식수

송광사, 홍·백련 심어 풍경·향기 공양

이에 앞서 제주 법화사(주지 시몽)는 3월 25일 2001년 복원한 구품연지를 중심으로 전통양식의 사찰정원을 조경키로 하고, '제주 제1의 성지 법화사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3월 30일 경기 양주 호국 비룡사에서 제 12차 은행나무심기행사를 개최했다. 불자연은 '남북통일'을 염원하며 1천 그루의 묘목을 식재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생명 지키려 절 비우고 나왔죠"

81세 노구 불구 환경보호 단식기도 혜주스님

"자연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즉 자연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절도 비워놓고 이렇게 나왔지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의 취임식이 있던 3월 24일, 조계사 앞 천막농성장에는 81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한 비구니 스님이 있었다. 의정부 회룡사 회주 혜주(慧珠)스님(사진)이었다. 조계사 앞마당에는 취임식 준비로 분주했지만 천막농성장에는 선방의 특유의 서릿발날 같은 기운이 감돌았다.

"북한산이 뚫리지 않게,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할 수 있게, 총무원에서 열심히 노력해주길 바랄 따름이에요."

스님은 "새만금은 수경스님이, 천성산과 북한산은 비구니 지율스님과 법현스님이 애쓰고 있다"며 "자연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것에는 비구니 비구니니 또 승가니 재가니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온 불자 온 국민이 합심해서 노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혜주스님은 59년 의정부서 도준스님을 만나 출가했다.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온 엘리트였지만 삶과 죽음, 인연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 불법에 귀의했다.

스님은 40년간 미군 폭격으로 전소된 회룡사를 복원했고, 79년 불교종립학교인 광동여고가 재정난에 빠졌을 때 다리품을 팔아 되살렸다. 또 자비회를 설립해 83년 지상 4층 규모의 자비유치원을 개원하기도 했다.

남동우기자

들숨 날숨 쉬며 "동포여 통일이여"

틱낫한 스님 전국돌며 특강·기도

방한 7일째인 틱낫한 스님은 3월 22일 서울시청 앞 평화염원 걷기명상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장성 광주 순천 부산 대구를 방문했다.

스님은 22일 서울시청 앞 '틱낫한 스님 방한기념 평화염원' 대회, 23일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서옹스님 예방, 순천 송광사 보성스님과 다담 및 대중특강, 24일 범어사 행자교육원 특강, 부산 관음사 방문, 25일 KBS홀 부산강연, 26일 대구 동화사 방문,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천도를 위한 걷기 명상 대법회, 경북대 대구강연을 가졌다.

스님은 "숨을 들이쉬고 두 걸음 내딛으며 '동포들이여, 동포들이여'라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또 숨을 내쉬고 두 걸음 내딛으며 '평화, 평화'를. 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두 걸음 내딛으며 '통일, 통일'이라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법문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했다.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틱낫한 스님 방한기념 평화염원' 대회에서 스님은 베트남 전쟁의 고통을 떠올리며 150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평화염원 대회는 전쟁희생자를 위한 묵념, 2003, 서울 평화선언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서옹스님과 틱낫한 스님은 3월 23일 장성 백양사에서 '참사람' 정신과 '평화정신'은 같다는 데 합의하고, 고통받는 중생구제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3월 23일 승보종찰 송광사에서 방장 보성스님과 틱낫한 스님이 덕담을 나눴다. 이어 틱낫한 스님은 대웅전에서 열린 특강에서 300여 사부대중에게 지금 현재 온전히 깨어있고, 그 상태에서 모든 현상을 깊은 지혜로 깨닫기 때문에 정토와 선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25일 KBS홀에서 부산강연에 나선 틱낫한 스님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섭수했던 관음보살의 자비를 배워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분노, 고뇌, 번민 등의 고통은 말끔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틱낫한 스님은 26일 오후 5시 대구지하철 참사현장인 중앙로역사 1층을 방문해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하고,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대구시민회관까지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천도를 위한 걷기 명상'의 시간을 가지며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이어 대구 동화사를 참배하고, 경북대로 이동해 대강당에서 3000여명의 시민들에게 강연했다.

◯…틱낫한 스님은 3월 31일 10시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열리는 강연회에서 '바라제목차(계율의 항목)'에 대한 개정본을 배포할 계획이다.

천미희·남동우·박원구기자



◇틱낫한 스님이 3월 23일 백양사를 방문, 서옹스님에게 3배의 예를 올리고 있다.

"평화·생명의 메시지 전세계 번질 것"

"천성산 환경영향 재평가 어렵다"

한 환경장관 고속철 현장 무제치늪 방문

경부고속철 천성산 관통으로 심각한 훼손에 직면한 늪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한명숙 환경부 장관이 3월 26일 무제치늪을 방문했다.

무제치늪을 방문한 한명숙 장관은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는 어렵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지율스님은 "고속철 노선이 지하 20m깊이로 계곡 4곳을 관통하는 곳도 있어 공사가 강행될 경우 천성산은 죽은 산이 되고 만다"고 훼손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한편 38일간의 단식을 회향한 지율스님은 4월 6일 천성산에서 '지율스님과 함께하는 얼레지 꽃길 지나 암자 만나기' 행사를 개최한다. 참가신청은 천성산 홈페이지(cheonsung.com)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천미희기자



◇지율스님이 3월26일 무제치늪을 방문한 한명숙 환경부장관과 만나 고속철 공사로 인한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달라이라마 11월 일본방문 예정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11월 일본은 방문한다.

일본 초당파 국회의원 모임 '티베트문제를 생각하는 의원모임'의 초청으로 방일하는 달라이라마는 정관계 및 종교계 대표 면담과 강연을 할 계획이다.

달라이라마는 지금까지 10차례 일본을 방문했다.

김원우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 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 택시
1588-5532

생(生) 지장도량 '심원사 지장전 중개축 불사' 모연문

한국의 대표적인 지장기도 도량 보개산 심원사가 지장전 중창불사를 대대적으로 봉행합니다.

널리 알려진 바대로 심원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생(生) 지장보살을 모신 지장신앙의 근본도량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그렇게도 친견하기를 소망하는 지장보살님이 살아계신 절이라는 환희심에 심원사에는 경향각지의 불자들이 모여 지극정성으로 지장기도 용맹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원사 사기>에 역사적인 사실로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심원사 지장보살님은 90cm크기의 아담한 석불로, 순박한 얼굴에 자비한 미소가 매우 다정하게 느껴지는 보살님이십니다.

이 생(生)지장보살님은 지금까지 10여평 남짓한 지장전에 봉안해 오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속에 건물이 쇄락해져 더 이상 모시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간도 협소해 기도하고자 찾아오는 불자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에 심원사 대중들과 신도회는 경향각지 불자 대중의 간절한 발원을 모아 '지장전 증개축 불사'를 대대적으로 봉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원사가 명실상부한 지장도량의 면모를 갖추도록 지금 규모의 두배가 넘는 30평 크기로 불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원사의 중요한 불전이자 한국불교 지장신앙의 상징이 될 이번 불사에 전국의 선남선녀들의 정성과 기도가 모아져 지장보살님의 위신력과 자비광명이 법계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지장경을 꼭 읽고 기도하셔야 할 분 ※

◇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분
◇ 원인모를 병에 시달리며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분
◇ 하는 일의 결과가 자신이 노력을 들인 것보다 항상 적게 나타난다고 생각되는 분
◇ 유난히 모든일에 장애가 많은 분
◇ 항상 깊은 잠을 못자며 이상한 꿈에 시달리는 분
◇ 유산 및 낙태를 한 후 건강이 좋지 않은 분
◇ 집안이 화목하지 못한 분

♠ 동참방법
◇ 대들보 ◇ 기 등 ◇ 주춧돌 ◇ 기와 ◇ 서까래 ◇ 도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종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접수
종무소 전화 (033)455-3468

♠ 심원사 찾아가는길
서울 상봉시외버스터미널이나 지하철 4호선 수유리 역앞에서 동송행 버스를타고 '관인'에서 하차. 버스는 15분 간격으로 있고,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

대한불교조계종 심 원 사 주지 도 후

심원사 영험 實話

"생불 지장보살"

심원사 지장보살님께서 살아계시는 생불임은 <심원사 사기>가 역사적 사실로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83년 전인 720년 어느날, 이순석 이순애 형제 사냥꾼은 지금의 심원사가 위치한 보개산에서 사냥을 하다가 멧돼지를 발견하고 화살로 쏘아 맞췄습니다. 멧돼지는 죽지 않고 피를 흘리며 달아나다가 환희봉 아래에서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핏자국을 따라 멧돼지를 추적하던 형제는 멧돼지는 없고 대신 우물 속에서 자신들이 쏜 화살이 팔에 꽂힌 석상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형제는 석상에서 화살을 뽑으려 애를 썼으나 화살은 뽑히지 않았고 석상은 계속 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형제는 크게 깨닫고 "대성이시여 저희 잘못을 깨우치러 몸소 나투신 것을 몰랐습니다. 다시는 살생을 아니하겠습니다."하고 그즉시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습니다.



국내 유일한 생(生)불이신 심원사 지장보살님

이처럼 멧돼지로 화현하셨던 그 우물속의 석불이 바로 현재 심원사에 봉안되어 계신 생(生) 지장보살<사진>이십니다.

태고종

'열린종단' 위한 개혁 착수

19개 시도교구, 종책기획실 신설

연령대별 위원 선정 · 지역의견 수렴

제도 · 법규 정비, 중장기 계획 수립

태고종이 열린종단을 지향하며 종단 발전을 이끌 기구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개혁에 착수한다.

태고종 총무원은 19개 시 · 도교구마다 30대, 40대, 50대 등 연령대별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될 종책기획실을 신설,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시 · 도교구에 종책기획위원을 선정해 총무원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현재 12개 교구 36명의 기획위원이 접수된 상태다. 나머지 7개 교구도 이달 초까지 선발을 완료, 이달 중 첫 모임을 열어 임원 선출을 비롯해 조직 구성을 완료하는 한편, 운영내규 등을 정할 계획이다.

종책기획실의 위상과 업무는 종도들의 종단 불사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종단의 주요 종책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종책기획실은 △중 · 장기 종단 발전계획 수립 △제도 개혁 및 법규 정비 방안 연구 △종무행정 전반에 관한 연구 · 기획 △종단사업 및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종단의 전반적인 점검과 과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특히 종도들의 종단 참여와 의견을 수렴한다는 본래 기획 취지를 살리면서, 주요 종책 입안과 연구과제 설정,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업무 추진과정에서 자칫 총무원내 집행기구인 기획감사실과 업무가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만큼 종책기획실의 총무원장 직속으로 운영, 기획감사실과 업무를 명확히 구분 짓기로 했다.

이러한 판단은 최근 겪고 있는 운영난과 종단의 결집력 부족 현상이 종단의 방향 · 목표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종책기획실 운영을 통해 현 종단상황을 극복하고 종단 발전을 위해 필요한 종책과 중점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단내에서는 종책기획실 운영이 구색 갖추기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기획위원들이 얼마나 자주 모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태고종은 기획위원 가운데 상임위원을 임명하거나 사무국을 두고 상시적인 업무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은 "종책기획실 설치는 정체성을 고민해야 하는 종단 현실을 극복하고 '열린종단' '참여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라며 "종도들의 여론을 정확히 수렴하고 종도들의 종단 참여를 이끌어내는 기구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천태종 사회복지재단은 3월19~21일 서울 관문사에서 제1회 불교호스피스 자원봉사 심화교육을 실시, 36명의 봉사자를 배출했다.

호스피스봉사 심화교육

천태종, 36명 배출

지난해 호스피스 기본교육을 실시해 374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천태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운덕)은 3월 19~21일 서울 관문사에서 제1회 불교호스피스 자원봉사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배출된 호스피스 봉사자 36명은 앞으로 임종을 앞두고 병원에서 퇴원한 환우와 장기 투병자를 돌보는 봉사활동, 환자 가족의 정서 안정을 위한 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이를 위해 천태종 사회복지재단은 종단에 관계없이 임종을 앞둔 환자들의 접수를 받아 가정으로 호스피스 봉사자를 파견하는 한편, 호스피스 기본 · 심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호스피스 봉사자를 배출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각 병원에 호스피스 봉사자를 파견해 현장실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자 접수 (02)575-3467

박봉영 기자

도제양성 · 교육체계 확립 논의

진각종 도제양성연구위 첫 회의

도제양성과 교화 활성화 등에 관한 방향 정립 및 방법 연구 등을 위해 지난해 9월 구성된 진각종 도제양성연구위원회(위원장 혜정)가 3월20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도제양성연구위는 앞으로 각 연구위원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개진과 수렴을 위해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중요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도 최대한 토론을 통해 결과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또 진각종 교육체계 확립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안을 연구대상으로 정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고, 이를 위해 진각종 교육백서 발간을 비롯해 도제양성 및 수행교육 관련법규 검토, 도제양성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통해 연구활동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혜정 도제양성연구위원장은 "도제양성에 관한 연구는 종단의 교육체계를 확립시키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는 자세로 연구위원회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격 · 오지 군부대 법회활동 지원

진각종, 호국백성사 · 백골호국사 등 16곳

진각종은 군 포교활성화를 위해 격 · 오지 부대 16곳을 선정 법회활동 지원에 적극 나선다.

진각종 포교부는 3월 24일 "군 법사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군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군 포교활성화를 위해 군법사가 파견활동을 펴고 있는 격 · 오지부대 군법당 16곳을 선정해 매월 법회활동비를 이달부터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군 포교환경이 열악한 연대급 부대로, 파주 호국백성사를 비롯해 철원 백골호국사, 연천 정수포교당, 철원 호국보은사 등 16곳이다. 이로써 진각종이 군 포교활성화를 위해 법회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 부대는 기존의 육군 비룡부대와 논산 입소대대, 해병교육단, 해병 1사단 등 4곳을 포함해 총 20곳으로 늘어났다.

진각종 포교부장 무외정사는 "격 · 오지부대 군법당 지원은 불자장병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군포교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불사"라며 "장교 양성부대와 부사관학교의 군법당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종단소식

태고종

대구 · 경북교구 합동건당

태고종 대구 · 경북교구는 5월 21일 교구 소속 승려의 합동건당식을 봉행한다. 또 불교의식교육도 3월 24일부터 3개월간 교구종무원 설법전에서 기초반과 고급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기초반은 3월 24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고급반은 3월 28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천태종

삼광사 영위탑 기공식

부산 삼광사(주지 도원)는 10일 오전 11시 영가 위패를 안치할 영위탑 기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공식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운덕스님 등 종단 중진스님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안동 해동사(주지 월장)는 18일 오전 11시 유치원 낙성식을 봉행한다.

진각종

진기 57년 춘기 스승강공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16~17일 서울 월곡동 총인원에서 종조 회당대종사의 창종정신을 기리고 스승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진기 57년 춘기 스승강공을 실시한다. '스승으로서의 위의와 덕성을 함양하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공에는 종단 산하 모든 스승과 종립학교 정교가 참가한다. 이어 궐석중인 종의회 의원 선출을 위한 스승총회와 제334회 정기종의회가 열린다.

총지종

종조전 불사 18일부터

총지종(통리원장 법공)은 종조 탄신 97주년을 맞아 서울 총지사 2층에 조성하기로 한 종조전의 불사를 18일부터 시작한다. 3월 27~28일 통리원에서 불사법요위원회를 개최한 총지종은 전국 소속 사원에서 종조전 불사를 원만히 이룰 수 있도록 불공을 올리기로 결의했다. 종조전 불사는 2개월간 진행되며, 오는 6월 완공된다.

대승종

구족계 수계산림 11일

대한불교대승종(총무원장 일오)은 11일 안양 총무원 만장사에서 구족계 수계산림을 실시한다.

종정 도암스님의 증명으로 열리는 이번 수계산림은 원로원장 서봉스님을 교수사로, 총무원장 일오스님을 전계사로, 종회의장 만춘스님을 갈마사로 실시된다. 수계대상은 대승종에서 사미(니)계를 수지하고 2년이 경과한 승려와 타종단에서 전적한지 2년 미만인 승려이다.

원융종

창종 23주년 기념법회



대한불교원융종(총무원장 법륜)은 창종 23주년을 맞아 3월 26일 서울 구로동 총무원에서 세계평화 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일공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법륜스님, 원로원장 송산스님 등 2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종정 일공스님은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원융사상으로 대립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대화를 통한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법문했다.

해동종

창종 5주년 기념법회



한국불교해동종(총무원장 혜우)은 3월 26일 충주 이화예식장에서 창종 5주년 기념법회를 열었다. 종정 경우스님, 총무원장 혜우스님, 중앙종회의장 대법스님 등 종단 간부 및 중진스님 등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종정 경우스님은 "불교와 종단 발전을 위해 꾸준히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게시판

구인

▲서울 능인복지관은 10일까지 계약직 가정방문간호사 1명을 구한다. 자격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02)571-2988

▲부산 몰운대복지관은 16일까지 사회복지사 1명을 구한다. 27세 미만 4년제 사회복지학과 출신자, 운전면허 1종 소지자. (051)264-9033

▲서울 궁동복지관은 3일까지 재가복지사업을 담당할 사회복지사 1명을 구한다. (02)2613-9367

▲영농그룹홈 불광원에서는 정신지체 장애자들을 돌볼 그룹홈 선생님을 구한다. 모집인원은 1명. 불자 우대. (051)247-4085

▲원주 소쩍새마을은 생활재활교사를 구한다. 마감은 충원시까지. (033)762-9870

모집

▲성남 한솔복지관은 노인대학에서 영어를 지도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31)716-4215

▲부산 몰운대복지관은 9일 개강하는 한식조리사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업일시는 매주 수, 목, 금 오전 10시와 오후 2시. (051)264-9033

▲연꽃마을에서는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활동시간은 월~금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02)365-3677

▲터사랑에서는 5, 6일 경주 남산 등지로 떠나는 답사여행 참석자를 모집한다. 출발은 오전 7시 30분 서울 안국역. (02)725-1284

▲서울 금천복지관은 무의탁 노인을 위한 이동 목욕사업을 보조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804-4058

▲대한불교 소년소녀합창단 · 무용단은 19일까지 초 · 중 · 고교생을 대상으로 제11기 정기단원을 모집한다. (02)725-7527

알림

▲대한불교 진흥원은 2일 오후 2시 불교방송 법당에서 김말환 국방부 군종실장을 초청, 다보법회를 연다. (02)703-0108

▲조계종 국청회에서는 4월 4일~6월 27일 3개월 과정으로 진행하는 불교교리 강좌를 연다. 강의 시간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상임법사는 운파법사. (02)730-1249

▲불교인성개발연구원은 2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서울 안암동 개운사에서 '자아찾기 특별강좌'를 실시한다. 오후반 1시30분, 저녁반 7시30분. (02)922-3026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지 구 촌 의 살 아 있 는 선 지 식 22인 을 찾 아 서





불법의 큰길을 찾고 깨달음의 열매를 얻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이 등대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김재경 지음 | 신국판 | 288쪽 | 10,000원

❁ 살아 있는 남 · 북방 불교의 고승을 최초로 한자리에 모셨으며,
❁ 세계 4대 생불인 달라이 라마, 숭산, 틱낫한, 마하 고사난다 스님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 남 · 북방 불교의 다양한 수행법을 소개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발전을 기대하며,
❁ 한국과 대만의 비구니 고승 2인을 세계의 비구 고승들과 나란히 처음으로 소개하였습니다.

틱낫한 스님 3월에, 고사난다 스님 7월에 방한!!

마당넓은집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21-44 인의빌딩 205호 / Tel : 02-833-6903, 6922 / Fax : 02-833-6925 / E-mail : madang999@hanmail.net

인도돕기
부처님나라에 다시 불교가 싹트고 있습니다.
인도불교돕기추진위원회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예금주 : 인도돕기)

불교계에 일간이 없다고?
buddhanews.com을 클릭하세요.

“죽어가는 새만금 갯벌보며 부처님도 예수님도 울고 있다”

갯벌 살리기 3보1배 현장

수경 스님·문규현 신부·이희운 목사·김경일 교무

해창갯벌~광화문까지 300km 두달동안 3보1배

수녀들 고행길 종교인들에게 노래로 기운 돋워

틱낫한 스님 일행도 장승 주변에서 걸기명상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를 선두로 새만금 갯벌과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한 2개월 여정의 삼보일배가 시작됐다.


◇원택스님(오른쪽 두번째)등 4개 종교인들은 간척사업을 중단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위해 제가 먼저 목숨을 바칠 각오로 삼보일배(三步一拜) 참회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한 걸음 내디디며 전생 현생 제가 지은 죄를 고해하고, 한 걸음 내디디며 치열하지 못한 수행의 자세를 가다듬고, 한 걸음 내디디며 두 손 모아 발로참회의 절을 올리겠습니다. 한 마음이 청정하면 일체 중생의 마음이 청정하고, 하나의 몸이 청정하면 모든 중생의 몸이 청정하고, 하나의 국토가 청정하면 일체 국토가 청정하다고 했으니, 제가 먼저 청정해질 때까지 동체대비의 길을 가고 또 가겠습니다. 탈진해 쓰러지는 저의 몸속에 마침내 환하게 꽃피는 봄날이 멀지 않았습니다.”(수경스님의 ‘삼보일배 발로참회를 시작하면’ 서 중)

28일 부안 해창갯벌. 새만금 갯벌의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삼보일배가 시작됐다. 수경스님(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과 문규현 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를 비롯, 이희운 목사(기독생명연대 사무처장), 김경일 교무(원불교 문화교당 주임교무) 등은 아스팔트 바닥에서 세 걸음을 걷고 한 번 절을 하기 시작했다.

전북 부안 해창갯벌에서 김제 죽산, 군산, 서천, 웅천, 보령, 홍성, 예산, 아산, 천안, 평택, 수원, 안양, 서울 구로, 영등포, 여의도, 광화문까지. 두 달 동안 약 300km. 삼보일배로 참회의 길을 걷는 스님과 신부, 목사 뒤로는 전국 각지에서 온 300여명의 참가자들이 조용히 따랐다.

입재식은 오영숙 수녀(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의 사회로 이선종 교무(원불교 천지보은회 상임대표)가 새만금 간척사업 12년째를 상징하는 12번의 경종 소리로 시작됐다. 최열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여는 말과 전북도립국악원 배승현 씨의 살풀이 춤이 이어졌다.

박경조 신부(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회장)는 지지발언을 통해 “새만금 갯벌이 죽어가고 있어 하느님도 부처님도 울고 있다”며 “3분 동안 마음 깊은 곳에서 뭇 생명들이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보자”며 종교인들에게 제안했다.

지역어민 염정우(41, 남)씨도 “어제 만났던 마을 사람에게서 이제 떠나야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지역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님 등이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삼보일배 정진에 들어가 지역 주민으로서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며 울먹였다.

이시재 교수(새만금 생명학회 부회장) 또한 “새만금 문제는 올해 방조제 공사가 끝날 예정이어서 금년이 고비”라며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님은 자연생태에 가해지는 전쟁을 비폭력으로 막기 위해 삼보일배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원택스님(녹색연합 공동대표)을 비롯한 4개 종교인들은 출발 선언문을 통해 “새만금 갯벌은 인간의 그릇된 허상과 탐욕이 빚고 있는 거대한 전쟁터”라고 지적하고 “농지조성 목적을 상실한 만큼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식량안보와 우량농지 확보를 위해 새만금 간척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던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가 한 순간에 자기 말을 뒤엎었다”며 “명분과 논리, 도덕성을 상실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즉각 새만금 간척사업에서 깨끗이 물러설 것”을 주장했다.

사랑의 실천 수녀회 소속 수녀들은 2달간의 고행을 떠나는 종교인들에게 ‘사랑으로’ 등의 노래로 기운을 북돋웠다. 또 4개 종교인들은 각자의 성소에서 종교별 기도회를 가졌다. 기도회의 분위기는 결연했다. 새만금 갯벌이 죽어가는 자리에 선 책임감 때문이었다. 그들은 마음으로 울고 있었다.

현봉스님(순천 송광사 주지), 세영스님(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정견스님(조계종 사회



◇한국을 방문중인 틱낫한 스님과 20여 수행자들도 삼보일배 현장을 찾아 걷기명상을 했다.

국장) 등은 새만금 해창사(주지 수경)에서 “시방세계 모든 중생들을 공경하는 것이 부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며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고 조화와 상생의 사회를 만드는 데 불제자들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틱낫한 스님도 20여 수행자들과 함께 새만금 장승 주변에서 걷기명상을 한 뒤 자리를 떠났다.

2001년 명동성당에서 정부종합청사까지, 2002년에는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2003년은 부안 새만금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이들의 삼보일배는 단순히 새만금 간척 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시위’가 아니다. 그것은 ‘너는 나의 뿌리며, 나 또한 너의 뿌리’라는 화엄경의 연기론을 몸으로 실천하는 처절한 몸짓이다.

글=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는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법칙을알아야세상의시대변화를알겠으니…
오랜세월산사에서토굴을짓고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약초만 연구하여온삼정스님 시대가변하면 병도변하고그시대에따라먹는음식도약도변해야된다고한다.현대의병은그 원인이 어디에서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살아가고있으며 온일류가자연의법칙을 거역한 죄로에전에없던 각가지 중병을앓으며 죽어가고있다.이 가공할 죽음의질병들앞에 우리인간은완전 무력하다.옛날 의서에도 세상이변하는데로약을 쓰라고 했다.지금은 화(火)의 기운이성한시기다.〈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불세상이다.신경성 질환,당뇨,혈압,암등각종장기의 염증등전체가 화에서일어난병이니 불을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부어불을끄는이치와 같으니 오염의독을해독하고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증강시켜스스로병을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왼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붙여 각가지병들로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산 속에서 자생하는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법제과정을 거친 그결실을 불자님께드리게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복지 프로그램 아직은 걸음마 수준

불교 실버시설 어디까지 왔나

2002년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대략 377만여 명, 전체 인구(4천7백만명)의 7.9%에 달한다. 어느새 한국사회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것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노년층을 상대로 '실버'란 이름을 단 산업들이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선거공약으로 승가노인복지원 건립 계획을 제시하는 등 승려 노후복지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재가 노인복지 문제 해결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양로시설 등 불교 실버시설 운영 현황과 그 사회적 역할, 전망 등을 짚어본다.

◆◆ 불교계 양로시설 ◆◆		
실버타운	보문사 안양원	041-545-6531
	해인사실버타운	055-934-0250
	성라원	031-585-3323
유료시설	보살선원	055-352-3999
	충효의집	031-241-9949
	금강수도원	054-373-1961
	불로원	054-453-7424
	금강원	041-853-1068
	천불사녹야원	055-383-9212
무료시설	거북마을	031-952-4801
	대원양로원	055-536-2116
	여래원	051-337-9998
	소향원	061-373-6404
	연꽃마을양로원	031-337-3677
	울산양로원	052-297-1930
	자제정사	031-356-9030
	장수양로원	063-334-2792
	정화양로원	051-332-3996
	천우자애원	054-745-4900
	통도사자비원	055-382-3999
	혜명양로원	02-802-6765

현 황

현재 불교사회복지정보지원센터가 조사한 불교 노인복지시설은 총 92곳. 복지관, 노인병원 등 낮 시간 동안 운영하는 '이용시설' 37곳을 제외하면, 나머지 55곳은 양로원 · 요양원 등 노인들이 거주하는 '생활시설'이다.

이중 생활시설은 크게 요양원(34곳)과 양로원(21곳)으로 나누어지며, 양로원은 유료 · 무료시설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실버타운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해인사실버타운, 성라원, 보문사 안양원 등 3곳, 유료시설은 보살선원, 충효의집, 금강수도원, 불로원 등 6곳, 무료시설은 거북마을, 여래원, 연꽃마을양로원, 울산양로원 등 모두 12곳이다.

운영실태

양로시설의 운영 방식은 각양각색이다. 수억원의 입주금을 받는 실버타운, 일정한 보증금과 생활비를 받는 유료시설, 무의탁 노인을 위한 무료시설까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우선 이용자가 운영비를 전담하는 실버타운인 성라원의 경우, 9평형 입주금은 5천만원선이며 월 생활비 50만원을 따로 받는다. 해인사실버타운(7천~1억5천만원), 보문사 안양원(5천만원) 등도 비슷한 수준이다.

유료시설 중에는 평생 보증금으로 4천만원을 받는 곳(보살선원)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보다 적은 이용료를 받거나 무료시설을 겸하고 있다. 무료시설의 경우에는 국가 지원(노인 1인당 약 8만원)을 받거나 완전히 사찰 지원금이나 후원금만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화성 자제정사에서 불자들이 발맛사지 자원봉사를 하는 모습.

무료시설 무의탁노인 생계보장 수준

유료 · 실버타운도 의료 · 체력단련 정도

이들 시설들이 운영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아직은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무료시설들은 무의탁 노인들의 기초 생계를 보장하는 것에 운영 초점을 맞추다 보니 별다른 프로그램을 갖춘 곳이 드물다. 뿐만 아니라 유료시설, 실버타운 역시 간단한 의료서비스, 체력 단련 외의 문화생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많지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교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울산양로원의 경우, 독경 · 명상 · 유적답사 등의 불교적 프로그램은 물론 공작, 한글교실 등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불교계가 자연스럽게 노인복지의 서비스 질 향상에도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시설 운영난… 사찰 도움 받아

"종단차원 복지 마스터플랜 수립 절실"

사회적 역할

전체 노인복지시설 중 불교계 운영 시설은 19%에 불과해, 아직은 개신교, 가톨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불교 실버시설의 사회적 역할 역시 두드러진 편이 아니다. 더군다나 수익사업으로 운영되는 실버타운은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면서 몇 년 째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리 없이 자비행을 실천하는 실버시설도 상당수 있다. 부산 여래원은 매달 운영비 6백만원을 사찰 지원금으로 해결한다. 33명의 노인을 보호하는 울산양로원의 운영에도 원각선원의 지원과 불자들의 자원봉사 및 후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거북마을, 소향원의 경우, 사찰과 불자들이 무의탁 노인을 돌보고 있으며, 특히 자제정사는 묘희 스님이 14년째 70여명의 무의탁 노인을 돌보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또 보살선원과 금강수도원 등은 불자들이 수행생활을 하며 여생을 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바람직한 불교 실버시설의 모델로 꼽히고 있다.

전 망

정부의 노인 복지정책이 변하고 있다. 2003년 노인복지 예산이 38% 이상 증가했고 올해 안으로 18개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이 건설된다. 또 2007년부터는 '노인공적요양제도'가 실시된다. 이런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불교 실버시설은 몇 가지 방향으로 변신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인 복지 수혜 대상 확대 ▲유료 프로그램 및 시설 확충 ▲전문 요양시설 증가를 불교 실버시설의 나아갈 길로 꼽았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호걸 총무부장은 "지금 30 · 40대가 노인층에 편입되는 2020년 이후에는 저출산 등으로 노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최하층을 포함해 모든 계층의 노인들이 문화, 종교생활 등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종단 차원의 불교 복지 마스터플랜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이경재
교사 대표

실상사 작은학교 이야기

생명 · 자연 · 자립 배우는 교육현장

불교계 인재불사 끊임없길 서원

지난 3월 1일 실상사 작은학교 3기 입학식을 하였습니다. 11명의 아이들이 선배들의 뒤를 이어 이곳 지리산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이제 실상사 작은학교는 37명의 학생과 10명의 교사가 함께하는, 어느새 작지 않은 학교가 되었습니다.

실상사 작은학교는 지난 2001년 3월, 15명의 학생과 8명의 교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불교계 최초의 대안학교로서 중학과정의 3년제 비인가 학교입니다.

어느새 '대안'이라는 말은 우리사회에서 낯설지 않은 접두어가 되었습니다. 대안사회, 대안문화, 대안적 삶, 대안교육 등입니다. 그런데 실상을 짚어보면 대안이라는 이름을 달고 주장하는 가치와 실천들이 우리의 근본 삶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학교위기, 교실붕괴라는 말이 만연해진 작금의 교육현실에서 대안학교는 되살려 내야할 우리의 참교육 모색의 현장으로 설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확대되었지만, 초등대안학교 10여개, 중학교 과정의 대안학교 10여개가 넘을 정도로 이제 이 땅의 학부모들은 현재의 획일적,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그 지향하는 가치의 올바른 이해보다는 아직도 기존 주류적 시각에서 파생된 왜곡된 시각에 크게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대안학교라고 하면 학교부적응 학생이 다니거나 경제적, 혹은 가정적으로 문제있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틈만 나면 이야기 합니다. 대안학교는 다양한 교육철학과 교육방법론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접근해야지, 그 대상, 즉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느냐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실상사 작은학교는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자각하고 자연친화적 · 자립적 정신을 배우는 생명살림,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창의력을 존중합니다. 성숙한 인격갖춤의 터전이 될 수 있는 상생체, 지리산과 지역민의 삶속에서 배우는 지역공동체 학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실상사작은학교의 지난 2년은(지금도 진행형이지만) 그야말로 다사다난 했습니다. 그 방향성은 뚜렷하면서도 잘해야 한다는 생각과 열정(?)이 앞서고, 서로간의 기대가 커서 이 모두를 풀어내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나무처럼 자라난다'는 학교교육의 방향성에 따라 작은학교 어른들인 학부모와 교사들의 삶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는 작은학교가 자기 삶의 소중한 현장임을 자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훨씬 더 교사의 근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내 아이와 같이 작은학교에 입학했다고 말할 정도로 작은학교와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성찰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학부모가 변하고 교사가 진정으로 학교의 교육철학에 체화돼 가면서 아이들의 의식도 눈에 띠게 성숙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상사 작은학교는 뜻있는 분들의 여망을 담아 불교계 처음으로 교육과 삶을 하나로 바로 세우는 참교육의 실현의 장입니다. 실상사 작은학교의 경험들은 불교계 대안교육 운동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많은 눈 밝은 이들의 크신 원력과 동참으로 우리 불교계의 참교육 인재불사가 간단없이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육임래정비법혁신판 「수정보완본」 완간 출시

드디어 「수정보완본」 전12권이 완간되었습니다. 본서(本書)를 애호하시고 선입금하신후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어른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 포교원을 여십니까?
■ 독살림을 계획하십니까?
■ 절 살림이 여의치 않습니까?
■ 오행을 미처 못해 어려움을 겪습니까?

※ 출생 연월일시를 물을 필요가 없고 만세력도 볼 필요가 없으며 그날 그시간만 보면 됩니다

여기, 쉽고 빠르고 간단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서(奇書)가 있습니다

- 이 책에서 밝혀진 귀신(작사鬼와 병鬼)과 산소탈과 빌미부정은 정확하기로 검증되어 있습니다
- 이책에서 적시해 놓은 귀신해소법은 영험하기로 유명합니다.
- 매일 하루치를 꺼내보고 넣고하므로 세세영영 간편히 보게되어 있습니다.
- 이 책은 살림을 넉넉하게 해주는 보서입니다.
- 현재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말씀입니다.
- 감히 말하건대 이책 이상의 편리하고 정확한 활인천역서는 없을 것입니다.
- 이 책은 귀하를 편안하게, 넉넉하게, 명성있게 해 줄것이 틀림없습니다.

■ 책값이 비싸지만 비싼만큼 더 큰 효과가 있게 된다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효사육임강의록」을 증보합니다. 전에 구입하신 분은 교환 신청하십시오. 무료 교환해 드립니다. – 효 사 –

주문 전화 (02)993-8680 / 부산 지사 (051)851-2349 / 입금 계좌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신용카드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卜問

‘서울불교’ 가꾸기 우리에게 맡기세요

서울특별시의회 불자의원회 활동 시작



◇서울특별시의회 불자의원회가 지난 3월 25일 서울 조계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서울시민의 행복과 안위를 위한 발원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매월 정기법회 등 신행기반 조성
‘연등축제’ 서울문화유산 정착 노력
산하문화재단 · 불자 국악인 등 지원

시의회 불자의원회가 처음으로 창립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불자의원회는 3월 2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불자회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출범된 서울시의회 불자의원회는 지역 의회에서 최초로 결성된 불자의원 모임으로, 앞으로 타 지역 자치단체 의회 불자회 창립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불자의원회는 지난해 10월 ‘불교의 생활화’ · ‘헌신하는 불자의원상 정립’을 위해 창립 발기인 모임을 가졌으며, 초대 회장에 신영선 의원, 총무에 부두완 의원을 선출했다. 불자의원회는 이후 5개월 간 회원 모집에 들어가, 현재 23명의 회원이 활동 중에 있으며, 초대 지도법사에 경기 남양주 봉선사 주지 일면 스님을 위촉했다.

이날 출범한 불자의원회는 우선 정기적인 신행활동 기반 조성부터 마련할 계획이다. 매달 1회 정기법회 봉행을 물론, 서울시청 불심회와의 합동법회도 추진한다. 또 불자의원 소속 구의 전통사찰을 순회하는 순례법회를 열어, 지역 사회와의 교류활성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특히 불자의원회는 불교 관련 의정활동을 강화한다. 현재 시의회 산하 문화교육상임위원회에 활동 중인 불자의원 5명을 중심으로, 1백여 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 관리를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인다. 또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를 서울문화유산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도 펼친다. 이를 위해 현행 1억 6천만 원인 연등축제 시 지원예산을 25% 증액, 2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불자의원회는 이와 함께 불교문화 발전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올 상반기에 예정된 서울시 산하 문화재단의 확대 · 개편에 발맞춰, 불자 국악인 · 인간문화재 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불자의원회 신영선 회장은 “서울시 불자의원으로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불자들은 물론, 서울시민들에게 널리 비출 수 있는 불자의원이 되겠다”며 “앞으로 전통사찰 보존에 힘쓰고 불교계 뜻을 담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립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법어를 통해 “첫 발을 잘 디디면 등불이 되고, 잘 못 디디면 어둠이 된다”며 “초발심이 중요한 만큼 불자 의원의 첫 발걸음이 모든 이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법문 했다.

이날 창립법회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해 불자의원회 지도법사 일면 스님, 서울시의회 이성구 의장, 서울시 정두언 정무부시장 등 사부대중 1백여 명이 동참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언론사 불자련 첫 합동수계법회

언론사불자연합회(회장 김진평, KBS 불교연구회 회장)는 지난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수원 용주사에서 첫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에서 연합회 회원 30여 명은 용주사 주지 정락 스님을 계사로 계첩을 받았다. 김철우 기자

인천국제공항불자련 창립

법무부 · 문화재청 · 국가정보원 등도 추진

인천국제공항청사에 불자연합회가 창립된다.

인천국제공항청사 경찰대 불자회 전인배 회장은 공항에 입주한 15개 정부기관을 비롯한 국내외 민간 항공사, 용역 회사 등으로 구성된 공항불자연합회가 빠르면 이 달 말경에 결성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불자회 창립이 구체화되는 곳은 인천공항공사, 법무부, 문화재청 등 3개 정부기관이며, 국가정보원, 국방부, 정부합동청사, 서울지방항공청, 세관 등의 정부기관도 불자회 창립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1일 공항 내 교통 센터 내에서 봉행한 경승실 개원법회가 공항 내 개별 기관불자회 창립 움직임에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불자회 창립준비모임은 이달 말까지 ‘(가칭)인천공항 불자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별 기관불자회 창립 실무를 맡고 있는 인천공항공사 박용재(전산실) 과장, 공항 파견 법무부 변종욱 반장(출국3과), 문화재청 김형우 문화재감정위원 등은 이달 중순경에 만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김철우 기자

우리 모임에선

병원불자련, 의료봉사 · 연합수련회

병원불자연합회(회장 이주효)는 12~13일 이틀간 경북 구미 영명사로 제6차 의료봉사를 떠난다. 내과 · 안과 · 물리치료과 · 한방과 등 5과 80여 명의 의료진이 참가한다. 문의는 의료봉사단 양동선(국립서울병원 치과장). (02)2204-0110

철불협, 무사고기원 · 천도법회

철도청 불교단체협의회(의장 이용일)는 무사고기원 철도불자 연합법회 및 천도법회를 19일 경북 구미시 도리사에서 봉행한다. 이번 천도법회에서는 본청 불자회 등 20개 단체 400여명이 참가한다.

단체장



대구지하철참사 추모법회

강재형 대구광역시청 유마회장은 3월 22일 대구 동화사에서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달마관심론’ 교리강좌

윤주화 한국은행 불자회장은 3월 28일 본관 시청각실에서 강화도 삼장포교원 정우 스님에게 <달마관심론> 강의를 들었다.



백운사서 부부동반 법회

조남희 충북 옥천경찰서 불교회장은 3월 29일 옥천 백운사에서 부부동반 법회를 열고, 백운사 주지 법명 스님에게 법문을 들었다.



천수경 독경법회 봉행

이영숙 한국전력 한일병원 반야회장은 17일 병원 강당에서 회원 3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천수경> 독경법회를 봉행한다.

우리불자회는요

법륜불자교수회

산하에 2개 전문위원회 … 불교발전 노력
학술 · 토론회 등 개최, 젊은 불자양성 모색

법륜불자교수회는 대구 · 경북 지역에서 재직하고 있는 불자교수들을 회원으로 1988년 10월에 창립됐습니다. 청도 운문사에서 발원하고, 대구 서봉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 지 15년이 흘러 현재 250여명의 불자교수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지요. 이러한 불자교수회의 발전 뒤에는 직지사 조실 관응 큰스님, 운문사 명성 학장스님, 일진스님 그리고 지금의 8대 집행부에 이르기까지 활동하신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불자회 집행부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그리고 2개의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통상적인 조직과 다르게 불교문제위원회와 불교문화재위원회를 두어 불자교수 회원의 전공을 접목하여 불교발전에 기여하려 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법륜불자교수회는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불교 신행활동을 통한 보살도의 실천’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법륜불자교수회는 정기적 행사인 매년 4차례의 성지순례법회와 2회의 수련회를 통하여 큰스님들의 법문, 참선 그리고 기도로 깨달음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또 년 2회 회보를 정기적으로 간행하여 현재 21호까지 발행했습니다. 회보에는 주로 큰스님법문, 회원들의 전공학문과 불교를 접목한 글 그리고 각종행사의 사진을 실었기 때문에 회보는 법륜불자교수회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록이기도 하지요. 우리 불자회는 올해 지금까지 발간된 회보 중 1호에서 20호까지의 합본집 출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정기적인 활동 외에 2권의 단행본 <세간과 출세간의 만남>과 <불교와 학문의 만남>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동화사에서 ‘대구불교발전을 위한 동화사의 활용방안’이란 주제로 불교토론회를 개최했으며, 2001년에는 동화사 개산을 기념하여 ‘팔공산 동화사의 역사와 사상’이라는 주제로 불교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회는 이와 같은 정기적 및 비정기적 행사를 통하여 안으로는 자신을 찾고 밖으로는 불교전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 법륜불자교수회도 다른 불교 신행단체와 같이 젊은 회원이 거의 없고, 장년층의 회원 교수님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불자회가 진행하는 각종행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연령의 회원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80년대에 대학마다 왕성한 활동을 하던 불교청년회와 대불련의 활성화가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 회는 보살의 대원력인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모토로 안으로는 깨달음의 지혜를 구하고, 밖으로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개척할 새로운 젊은 불자양성에 앞으로의 활동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정희 총무이사



◇지난해 1월 속리산 법주사에서 열린 동계 산사체험에서 법륜불자교수회 회원들이 법주사 율주 스님과 법담을 나누고 있다.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휠라멘트가 6배(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佛 佛
DWS 2000 칼라용 • DWS 1000 LED용
꺼지지않는 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구입문의 (02)2266-2634 ·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011)630-7092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389-43

우리 가족은 특별하다!!

가족을 사랑하는 특별한 방법! 지금 전화주세요!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氏

“수신토종오가피 수신천사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직접 재배한 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국내최대오가피농장에서 생산합니다.
- 바로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천사같이 소중한 우리 어린이를 위한 선물!
옛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오가피를 먹었습니다.
손주를 위한 할아버지의 고집으로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춰 만든 -
수신천사 토종오가피.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 아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수신토종오가피를 준비해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02) 447-0047

불교를 하나의 건축물에 비유했을 때, 무아(無我)와 윤회는 빠질 수 없는 두 기둥이다. 붓다는 윤회를 인정하면서도 무아를 가르친 셈이다. 그러나 고정불변의 '나'가 없다면 누가 윤회하고, 누가 업을 짓고 받는다는 말인가?

초기불교 당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무아-윤회' 문제가 최근 다시금 불붙고 있다.

다시 고개 든 '무아-윤회' 논쟁

김진 교수 "두 사상 사이 모순 양립 불가능"

조성택 교수 "무아설은 수행의 관점서 이해해야"

지난 2월 제7차 선우논강에서 각묵 스님이 "한국 불교는 진아(眞我)니 불성이니 여래장 따위의 신비주의적 개념에 집착하면서 '연기'와 '무아'로 요약되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해 불교 내부에서 '진아' 논쟁<본지 412, 413호 참조>을 일으킨 데 이어 최근 발간된 <오늘의 동양사상>(예문동양사상연구원, 반년간) 봄·여름호는 '윤회의 주체' 문제를 특집(무아-윤회)으로 다뤘다.

앞서 각묵 스님에 의해 촉발된 논쟁과 달리 이번 논쟁은 '김진'(울산대 철학과 교수)이라는 서양철학(칸트) 전공자가 <칸트와 불교>라는 책을 통해 "'무아'와 '윤회'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을 안고 있으며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칸트의 '요청적 사유방법론'을 끌어들어야 한다"고 포문을 연 데서 비롯됐다. 이에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철학과)는 "자기 동일적 실체가 있어야만 하나의 자아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고, 김진 교수는 다시 "연기적 인과설을 통해 실천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윤회적 자아 주체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무아설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재반박했었다.

이번 호에서 김-한 교수의 대리전을 펼친 조성택 교수(고려대 철학과), 김종욱 박사(동국대 강사), 최인숙 교수(동국대 철학과 교수)는 불교학과 서양철학을 두루 꿰고 있는 학자들. 이들은 서양철학의 '공격'에 대해, 그 구체적 접근 방법은 다르면서도 "무아와 윤회를 대립적으로 설정하는 김진 교수의 불교 이해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는 의견 통일을 이뤘다.

조성택 교수는 먼저 "김진 교수가 무아와 윤회가 모순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아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 잘못된 이해의 근저에는 불교 수행과의 관계를 도외시한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나'가 관념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깨달음의 경험'을 통해서일 뿐"이라며 "'깨달음의 경험'으로서만 궁극적으로 논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을 두고 철학적으로 모순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는 무아와 윤회의 관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종욱 박사는 "칸트처럼 이원성에 토대를 둔 서양철학에서는 현상적 자아의 배후에 참된 자아를 상정하고 거기에 자기 동일성적 주체성을 부여하지만 이런 방법과 내용은 비이원성을 골간으로 하는 불교의 중도적 무아설이나 무아윤회론에는 제대로 들어맞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예문동양사상연구원 인도·불교철학 연구실장 이덕진 교수(창원전문대)는 "김진 교수의 견해는 불교 역사의 굵은 한 줄기, 즉 불교를 타력종교화, 브라마니즘화하려는 의도를 끊임없이 내비치는 사람들의 주장을 역설적으로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며 "'동·서양철학의 대화와 소통'이라는 점 외에 불교 내부적으로도 현재 모습에 대한 자성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원강 반가사유상은 수행자상"

고혜련 박사, 미술사학회 발표회서 주장



◇금동미륵보살반가상..

반가사유상(半跏思惟像)은 '수행자상(像)'이라는 주장이 한 소장학자에 의해 제기됐다.

최근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학위(중국미술사)를 받고 귀국한 고혜련 박사는 3월 22일 열린 한국미술사학회 제133회 월례연구발표회에서 "중국 윈강(雲崗)석굴(5세기 후반)의 미륵교각(交脚, 다리를 교차시킨 자세)상은 <미륵상생경>에 의해 조성됐으며, 주불인 미륵교각불 양옆에 서 있는 반가사유상은 수행자상이다"고 주장했다.

반가사유상은 부처님의 태자시절 상이거나 미륵보살상이라는 게 학계의 통설. 그러나 고 박사는 <미륵상생경>의 '만일 비구나 일체대중 가운데 미륵의 제자가 되려 하는 이는 도솔천의 즐거움을 생각(思惟)하라'는 구절과 부처님께서 우팔리에게 '필경 한명의 천인(天人)이나 한 송이 연꽃이라도 보게 될 것이다'고 설한 부분을 바탕으로 통설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명대 교수 "재가자가 협시된다는 것 상식 밖"

이어진 토론에서는 반론이 거셌다. 문명대 교수(동국대 미술학과)는 "미륵교각불 옆의 반가사유상은 같은 미륵불이거나 미륵의 협시보살이라는 게 학계의 통설"이라며 "보살이 아닌 재가 수행자가 협시가 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외국의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는 불교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법혜 스님(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과 해운 스님(중앙승가대 강사)이 일본 다이쇼(大正)대학에서 나란히 박사학위를 받았다. 다이쇼대학은 도쿄(東京)대, 고마자와(駒澤)대학 등과 더불어 일본에서 불교학 연구가 가장 활발한 대학 가운데 하나로 <망월불교대사전>이란 명저를 남긴 모치츠키 신교(望月信亨)가 있던 곳이다.

법혜 스님



'돈황본 <능엄경>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법혜 스님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에 산질(散帙)로만 전하는 돈황본 <능엄경>(전10권)을 처음으로 완본의 형태로 복원해 냈다. 이를 통해 인도찬술설과 중국찬술설이 대립하고 있는 <능엄경>이 중국에서 찬술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혜 스님은 "현존하는 <대정신수대장경>과 고려본, 송·원·명본과는 달리 가장 오래된 돈황본 <능엄경>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번역했다는 '역자(譯者)'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며 "역자가 없다는 사실은 종래의 주석가들은 물론 중국찬술설을 주장한 최근의 학자들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해운 스님



해운 스님은 중국 선종의 오가칠종(五家七宗) 가운데 법안종의 3조인 '영명연수(永明延壽)의 선사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수 스님의 대표적 저술인 <종경록(宗鏡錄)>(전100권)의 분석을 통해 보리달마, 승찬, 마조 등 역대 조사들의 사상을 재조명한 게 흥미롭다. 해운 스님은 "일종의 백과사전격인 <종경록>에는 현재 전하지 않는 문헌이나 문구 등의 인용이 많아 새로운 사실 규명에 중요한 자료"라며 "<종경록> 분석을 통해 맞다, 아니다를 두고 말이 많았던 <신심명(信心銘)>이 중국 선종의 3조인 승찬의 저술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혜·해운 스님 日서 박사학위

돈황본능엄경 10권 완본형태 복원
종경록 분석 역대조사사상 재조명



절(3)

백제의 웅혼한 기상

백제 미술하면 우아함을 떠올린다. 백제의 기와나 불상에서 그러한 특징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아함에는 아담하고 온화한 이미지가 깔려 있다. 그런데 최근에 발굴이 끝난 미륵사지와 몇 년 전에 발견된 백제금동향로를 보면 우아함만으로 백제 미술 전체를 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미륵사지에서 보이는 웅대함과 금동향로에서 보이는 섬세함은 백제미술의 스케일과 디테일에 대하여 다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미륵사는 삼국의 사찰을 통틀어 가장 규모가 큰 사찰이다. 신라 황룡사의 2배에 가까운 면적이고, 정릉사도 전체면적은 미륵사보다 넓지만 고구려 때의 사역은 그보다 작다. 평야지대인 익산에서, 우뚝 솟은 약 430m의 용화산을 배경으로 하기에 더욱 그 위용이 웅장하게 느껴진다. 산에 의지하여 넓은 전망을 갖도록 하는 사찰의 배치는 우리 나라 사찰에서 가장 널리 애용되는 방식이다. 과연 이렇게 거대한 사찰을 당시 수도인 부여가 아니고 익산에 세운 까닭은 무엇인가? 수도를 부여에서 익산으로 옮기기 위한 조처라는 천도설이 가장 유력하다. 이밖에 신라를 대응하기 위해 건립했다는 주장과 전라남도 지역민을 통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웠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 대규모의 프로젝트는 의외로 백제의 마동과 신라의 선화공주 사이의 국경을 넘는 사랑에서 비롯된다. 마를 캐어 파는 마동은 신라의 선화공주와 혼인하기 위해 신라에 가서 서동요를 퍼트려 선화공주를 백제로 쫓겨나게 한다. 마동은 선화공주가 가져온 금을 보고는 자신이 마를 캔 곳에 쌓아둔 돌이 귀중한 황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마동은 마침내 임금에 오르게 되니 그가 바로 백제의 30대 임금인 무왕인 것이다. 무왕은 부인이 된 선화공주와 함께 사자사(獅子寺에) 가는 도중 용화산 밑의 큰 못에서 미륵삼존(彌勒三尊)이 나타난 것을 보고 이곳에 큰 절을 세우기로 하였다. 이 절은 미륵삼회(彌勒三會)를 모방하여 전과 탑과 회랑을 각각 세 곳에 세웠고 절 이름을 미륵사라 했다. 이상이 미륵사 창건에 대한 <삼국유사>의 내용이다.

설화에 나타나듯이 이 사찰은 무엇보다도 미륵삼회[龍華三會]라는 불교신앙을 건축으로 체계화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발굴 결과 미륵사는 금당과 탑과 회랑을 한 세트로 3개를 배치한, 3원(院)식 배치임이 밝혀져 <삼국유사>의 기록을 그대로 입증했다. 가운데 중원은 좌우의 서원과 동원과 크기와 재료로써 구분하였다. 즉 중원의 금당은 2층, 서원과 동원의 금당은 1층 건물이며, 중원의 탑은 목탑, 서원과 동원은 석탑을 세웠다. 이러한 위계적인 구분 속에서 중원은 회랑으로 둘러싸고 동원과 서원은 뒤에 위치한 강당의 공간과 연결시킴으로써 위계적 구분과 더불어 연결의 조화를 꾀하였다. 3원의 짜임새는 1원 안에 1탑 3금당을 세운 고구려나 신라의 배치와는 다른, 백제만의 독특한 공간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륵사 모형. 미륵삼회를 본 딴 삼원식 배치로 불교사상을 건축적으로 구현했다.

미륵사 금당·탑·회랑 3원식 가람 배치
고구려·신라와 다른 백제만의 공간 구성

■경주대 문화재학부



불교문화상품의 대표주자 마하몰

절에서나 집에서나 인터넷과 전화로 봉축용품 준비하세요! 주문전화 02)732-1520

국민은행 023537-04-000359 · 농 협 053-01-254668 예금주 : (주)지도리

● 지면에 광고된 상품과 더 많은 상품을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불교문화상품 문의 전화 : 02)732-1520



봉축 현수막 : 90cm×7m(45,000원),8m(50,000원), 10m(60,000원),12m(70,000원) ※ 주문시 사찰명 기재 요망

세로 현수막



장엄 번(만장기)90cm×210cm 장당 40,000원



보온·보냉 머그컵 보온 : 시간 / 보냉 : 6시간 8,000원 13,000원



연꽃타올 4,000원 100장 이상 주문시 사찰명 넣어드립니다.



20cm×30cm 4,000원



아동용 썬캡 3,000원 / 성인용 썬캡 3,000원



지하철현수막(1안) 40,000원



캐릭터 앞치마 A형:4,500원 /B형:4,000원 300장 이상 주문시 사찰명 넣어드립니다.



봉축 타이슬링 5,600원 8개 1set 지름 : 5,5cm



연꽃 차걸이 세트 7,000원





불교기, 법륜기 12,000원

봉축 버튼 3,200원



(1) 공단등 (대, 중, 소) 大 7,000 中 4,000원 小 3,000원 (지름 : 15cm, 18cm, 23cm) 색상 : 노랑, 연두, 분홍, 빨강, 오랜지, 흰색(영가)

(2) 만월등 1,500원 (사이즈 : 32cm × 32cm) 1Box : 100개 색상 : 노랑, 연두, 분홍, 빨강, 오랜지, 흰색(영가)

(1) 종 등 1,800원 (사이즈 : 40cm × 27cm) 색상 : 노랑, 연두, 분홍, 빨강, 오랜지



캐릭터 비닐 만월등 2,000원 1Box : 200개 색상 : 분홍, 파랑, 빨강, 노랑, 초록







가정용 향로 32,000원 가정용 촛대 30,000원(모델명 : 6015) 가정용 촛대 30,000원(모델명 : 6039)



어깨띠 : 2,500원 100매 이상 제작시 사찰명 넣어드립니다.



봉축 차량 스티커 300원



방생 타이슬링 2,000원 2개 1set 지름 : 7,5cm



캐릭터 풍선 세트 30,000원 100개 1set(대롱포함)



캐릭터 부채 세트 7,000원 10개 1set ※ 50개 이상 주문시 사찰명 인쇄 가능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계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곶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지장사 안내
영험이 대단하여 속 성취 됩니다.
전반적인 **인생상담, 운세, 운명, 천도재** 받습니다.
잘 사십시요.
02)981-8418
02)907-1643
011-9686-3676

대한불교조계종
구 담 사
조상 태아 영가 · 천도지장도량
● 수시접수 中
● 태아영가 동자상 조성불사 中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 595
031)533-2855

초 심 선 원 기 원 법 회
활안 대선사 사자후 설법 합동 천도재
◆ 일 시 : 불기 2547년 3월 30일(일)10시 30분
◆ 장 소 : 인천 부평구 부개1동 259-16
◆ 문 의 : 032) 517-3001
☞ 오시는길 : 부개역 하차 부개1동사무소방향 5분거리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용암사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산 51번지
02)387-3216
011-9782-3216

심야전기 온돌
▸전기온돌은 우리전통의 온돌방식을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현대화한 바닥 난방방식으로 따끈하게 데운 방바닥의 열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난방비는 기름값의 30%
● 축열식 전기 온수기
● 축열식 전기 보일러
● 축열식 전기 온풍기
● 원적외선 전기 온풍기
● 온수식 온돌 판넬
한전승인업체 설계시공 A/S 상담
남강기전 02) 338-0400

공양주 보살님 구 함
▷서울 서대문구
(월 80만원, 60세미만)
02)394-9018
017-236-876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남 밀양 여여정사
(50세 전후)
055)355-9290~1

부전스님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조계종 사찰 · 김포위치
011-9710-0237

팔공산 금강(선원)사
일반 보살님이나 노보살님, 기도하실 분 모십니다
▷소원 성취 기도
▷ 정법 기도 도량
053)983-3020

공양주 보살님 구 함
▷ 경기 평택
031)683-5820

산사나 포교원에서 기도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061)772-4109.5401
011-9302-1618

산에서 천일 기도 하실 스님 모십니다
011)696-8500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육효, 대정작괘법 관상, 풍수지리
■ 기간 : 수시모집
■ 강사 : 30년간 청운역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청운 엄운문선생이 직접 강의합니다.
※ 교재는 이석영선생저서 사주첩경으로 강의합니다.
저 서 명학비해격국용신론을 위시로 30여권을 저술 하였음
안국동한국일보옆 청운역학원 02)723-7449/011)9638-8229

비구니 수행스님 구합니다
016-201-7452

사찰에서 장애아동과 함께 생활하실 신심있는 불자님을 모십니다
▷ 학력, 연령 제한없슴 (보시는 있슴)
대한불교조계종 보림사
053)751-4674

공양주 보살님 (급) 구합니다
(처사님도 구함)
▷ 50세 이상
011-483-5639

공양주 구함
가족과 함께 절에서 살면서 공양주 보실분을 찾습니다
※별도의 공양주 채가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
02)914-4200

조용한 산속에서 기도하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60세 이상
054)552-8544

안정된 생활의 불심있고 자비로운 배우자(男)를 찾습니다
▷ 나이는55세~63세
011-748-3367

조용한 산사에서 기도하실 공양주 구함
▷강원도 강릉
033)661-5878

易 수강생 모집
무료공개강좌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듣기만 해도 암기 됨, 감명비법공개
◆ 주야, 주말반 : 초보에서 전문까지
◆ 특강반 (법당 · 포교원운영 · 스님 · 법사)
◆ 사주로 영가찾는 법 등
◆ 개운법, 영가 · 조상천도 상담환영
☎ 02)2236-2284(2,6호선 신당역)

운세 30초내 잘 맞추면 입금
서울은행 24304-3396114 김진동
02-826-5067
• 명리학 연구 15년, 전화상담 경력 6년째 바로 실력테스트해보세요.
• 상담실습생 약간 모집 - 교재(사주첩경 이석영 저)
• http://www.speedunse.com 에서 핸드폰 / 신용카드결제 가능합니다.

복지 불사에 뜻이있는 불자님이나 인연있는 보살님 모십니다.
제주도에 경관 수려한 800평 터 있음
수련원 실버요양원
방생기도 도량 법회 최적.
건축허가 유, 즉시 건축 가능함
017-692-0956

공양주 겸 사무원(女) 모집합니다
▷40~50세 (경기 고양시)
019-211-8533

무쏘,갤로퍼,코란도,레토나 등 4륜중고승용차 보시할분찾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학서암
061)553-3953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55세 이상
064)746-0567

50代초반 비구입니다
⊙ 천도재,구병 시식
⊙ 역학 능통
⊙ 컴퓨터 사용
– 부전도 가능 –
016-780-9417

천도재등 재의식 법문이 필요한 사찰 연락주십시오
형편따라 봉사하겠습니다
자성 합장
011-9866-0904
02)909-0904
e-mail : dhchong@naver.com

스님과 함께하는 동양사상
● 주역을 통한 한방 역학 및 사주 명리학 특강
사주학 대비 사상체질, 오행침법, 식이요법
(뜸, 부항, 침술, 민의학 강의)

"길 없는 길의 비밀"
선지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던 스님께서 중생의 고통을 직시 분별의 장애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길을 직관에 의한 깨달음의 상승법을 통해 열어 드립니다.

031)256-5605, 016)433-5605

생 활 불 자 정 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팔공산 약사정사
신비한 맥반석 약수
당뇨, 변비, 술병, 중풍
삼칠일 기도 성취 도량
종무소 사무장, 평생함께 살아갈 독거노인(60~70세사이, 부부도 환영) 장수마을
053)985-6630
011-9554-6900



상황버섯
캄보디아산 자연산
1kg 200,000원
055)381-1143
011-882-1149

천도재 구병시식 수자령 영가천도
● 수시 접수 中
● 수자령 영가천도재는 9月예정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Hanmaum
압구정동
한마음공인중개사
문의 (02)542-0660
(016)791-6506
대 표 나 정 수
한성대 부동산학 석사
♣압구정현대, 한양아파트 전문

어머니 청국장 발효기(효소)
발명특허원 15826호
가. 제품의 특성
⊙ 생으로 먹을때는 낫도, 찌개를 먹을때는 청국장으로 만들수 있다.
⊙ 요구르트는 너무나 잘된다.
나. 청국장의 효능
⊙ 정장 작용 - 변비 해소
⊙ 항암 효과 ⊙노화 방지 효과
다. 가격 : 77,000원 (낫도씨, 볏짚, 불약콩 500mg 포함)
라. 앙구서리태(속청) 할인판매 : 12,000원/1kg, 8,000원/1kg
※신청: 우리콩 운동본부 033)481-4894, 온라인 (농협) 123-17-000466 정락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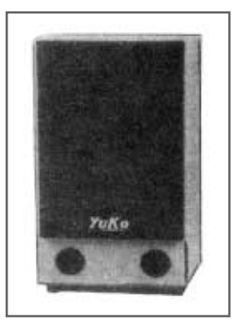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FM 89.9MHz
www.bbsradio.co.kr FM 89.9 MHz
BBS 부산불교방송
부산불교방송은 21세기 불교문화 진흥을 선도할 대망의 새 사옥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자여러분의 정성어린 지원을 기대합니다.
우체국 : 601237-01-001062 국민은행 : 129-01-0011-308 예금주 : (재)부산불교방송
대표전화 : 051)644-5114

2002년도 『현대불교 합본집』 발간!
02)737-0090,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2002년 이전 합본집은 50,000원(발송비무료) 한정 특가 판매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시설 설치.
1500여 사찰에 무선 마이크 및 각종 마이크 공급.



엄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3시간만에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 영가(조상신)을 천도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중엄신을 제도할수 있습니다.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예 : 물 또는 나무뿌리가 침범했는지 여부)
◆ 가위눌림이나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모든 빙의령)
◆ 영가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가를 제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3년후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입는 모습
◆ 노잣돈을 챙기는 모습
◆ 지옥의 문이 열리고 영가가 떠나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 고통받는분 특별 상담
무병 · 신병으로 고생하는분
마귀에 눌리고 환청으로 잠 못이루는 분,
밤마다 가위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분
지상의 그 어떤 악령도 즉시 단 한번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대 상 : 스님, 법사, 철학인, 무속인, 기공사, 의사, 사업가, 일반인
■ 일 시 : 인원 수시 접수
문의처 02)556-5590,5542

살아있어서 생식입니다
건강되찾기 10년



추천서
10여년을 생식만 연구해 왔습니다. 몸을 생각하는 100% 자연식입니다. 고을빛 생식은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계약 재배한 깨끗한 재료를 이용해 고을빛, 생식만의 노하우로 배합해서 생산합니다. 제대로된 생식을 원하신다면 이제 고을빛 생식을 찾으십시오. 분당 차한방병원 등에 환자식으로 공급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생식을 원하신다면 이제 전문업체인 '고을빛 생식'을 이용하십시오.
1998년 11월 4일
임준규 한의학 박사
· 분당 차병원 한방병원 원장 역임
· 남원 호성 한방종합병원 원장 역임

생식의 1석 6조
1.체질개선 2.건강증진 3.피로회복 (생식요법) 4.완전한 다이어트 5.완전식사 6.식습관 개선

이런분들에게 필요합니다
◆ 고통 없이 체중조절을 하실 분께
저칼로리 영양식으로 굶어야 하는 고통없이 체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아침식사(생식)는 활력의 원천
간편하게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의 식사대용으로 최적입니다.
◆ 배변이 원활하지 못해 더부룩한 분들께
치커리 식이섬유 보강. 쾌변을 도와줍니다.
◆ 신선한 야채섬유가 부족한 분들에게
생식의 풍부한 효소와 배아, 엽록소를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각종 성인병으로 식이 요법을 원하시는 분들께
생식의 고효율 에너지는 병환중이거나 회복중인 환자식으로로 좋습니다.
"(주)고을빛 생식마을"은 태어난지 10년된 정통 전문 생식업체입니다.

※ 4개월분 구입시 25% 할인해 드립니다. *1개월분(40g × 60포)*
고을빛 생식은 단식하시는 분들께 효과적 입니다.

생식 완료 현미, 메주콩, 적두, 약콩, 서리태, 율무, 보리, 차조, 수수, 옥수수, 메밀, 밀, 당근, 우엉, 신선초, 케일, 컴프리, 감잎, 뽕잎, 감, 호박, 솔잎, 다시마, 김, 구기자, 연근, 표고버섯, 인진쑥, 결명자, 결정과당, 호박엑기스 등 32종

◆ 연락처 : 02)458-0836, 017)236-0836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순천
- 법 당 : 20평
- 요 사 : 45평
- 부 지 : 1000평
- 가 액 : 3억

- 위치 : 전남
- 법 당 : 30평
- 요 사 : 40평
- 부 지 : 1600평
- 가 액 : 3억 5천

- 포교당 -
- 위 치 : 인천
- 법 당 및 요사 : 60평
- 가 액 : 3000/100
- 시설비 : 4000 (특급)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011)713-5634

현판 주련 서각 화각

天心書刻
一雲 金昶煥

전통서각 수공예 제작
TEL 031 · 633 · 1011
FAX 031 · 634 · 7275
H·P 011 · 269 · 2353

사찰 안내

- 서울 67평
- 보증금 : 9천만원
- 시설비 약간(절충)
- 시장, 교통 요충지

- 일산 75평
- 보증금 : 1500만원
- 월 세 : 60만원
- 시설비 약간 (절충)

◈ 납골당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大육임 수강생 모집

오행운명가(五行運命家)활인역자(活仁役者)로서 참 진인(眞人)이 되기 위한 필수학. 인사만단의 오천년(五阡年) 비전 육임학

참고교재 六六六六六六六 壬壬壬壬壬壬壬 大探類秘精神 全原聚爻解課

본 학회는 정통 육임학 이수자에 대한 수강인 선별을 통한 강의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정통이론과 실제임상의 완벽한 조화를 통한 실사구시의 강의. 초급반, 지도자반을 별도 구성하여 강의 합니다.

문의처 : 02)393-2471 난강학회(欄江學會) 登明 서 정길(徐 正吉)
강의처 : 지하철 2호선 이화여대역 3번 출구앞. 난강학회
www.nankang.co.kr

천년고찰 사적지 터

- 위치 : 전남 광주 근교
- 부지 : 약 900평
- 한옥 1동
- 천년 역사의 삼청석탑이 있으며 문화재 복구비 지원 가능함
- 양도가 : 5억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대지 : 80평
- 법당 : 40평, 요사 : 80평
- 양도가 : 6억 5천만원
- 역사 깊은 도심 포교 사찰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08-5037/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천도재, 불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특수 수강생 모집

과 목	강의시간	소요시간
발관리 경락 맛사지	금 15시, 19시	2시간
뱃살제거 경락 맛사지	월 15시	2시간
금강 사주 철학	목 15시, 19시	2시간
체질기공, 특이공	월,화, 수 19시	4시간
불교의식(목탁,염불 등)	화 19시	2시간

문의전화 02)462-9413
본 사단법인은 훌륭한 교수님을 모시고 3월 31일부터 강의를 시작합니다.
수료후 수료증, 자격증 수여합니다.
사단법인 금강선문 부설 금강대학 사회교육부

토굴터 시공 및 토굴터 안내

토굴전문 시공자
김 종 배
011)9474-7945
055)882-7945

사정상(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남의 요지
- 평수 : 3층 약 80평
- 규모 : 법당 약 16평 방 5개, 욕실 2개
- 특혜 : 넓은 주차장, 즉시 법회 가능
- 보시로 급매. 전월세 가능

0502)777-5959

민속불교백화점 (체인점도 모집합니다)

금불상, 목불상, 옥불상, 금탱화, 서적
승복, 신복, 유기, 도자기, 농악복일절
북, 장구, 재징, 매구, 민속국악기일절

전국 어디든 체인점 개설을 지원합니다.
노후 생활에 최고의 사업을 원하십니까.
년 1조원시장에 달하는 불교 / 무속용품 체인점
사업본부에 문의바랍니다.
전 화 : 031)480-4848, 031)417-4848
팩 스 : 031)480-8549

사찰 안내

- 위 치 : 양산
- 대 지 : 520평
- 법 당 : 25평
- 요사채 : 70평
- 가 액 : 5억

※ 면소재지 인근
※ 산과 계곡을 접함

- 위 치 : 부산
- 대 지 : 65평
- 법 당 : 20평(2층)
- 요사채 : 35평
- 가 액 : 2억 5천만원

※ 고급 주택진 인법당
※ 지하철역세권에 위치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노원구 수락산 부근 전철역에서 3분거리
- 부지 : 약 320평
-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주차 10대
- 가액 : 2억 5천만원

011)9024-4843
02)3391-4845

포교당 안내

- 위치 : 청주시내 대로변 옆 주차장 완비, 4층 건물중 2층
- 평수 : 50평(실평수 47평)
- 보증금 : 2천만원(절충가능), 월 50만원
- 방3개, 주방, 세면장, 거실 큼
- 시설비 : 1천 5백만원

043)272-0147

포교원(급)안내

- 위치: 광명시전철7호선광명역 앞 (4층 건물중 3층)
- 법당 : 50평
- 삼존불, 지장보살 3자, 각단 탱화 등
- 보증금 :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일체 2천만원

02)2618-0908
011)9717-9002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근교
- 평수 : 850평
- 법당 1채, 요사채 2채, 산신각 1채
- 가액 : 4억 5천만원

011)9527-3461

스님 · 불자님 고민 삼환이 해결해 드립니다

임법당, 요사채, 신축 및 보수, 조립식 부속건물 신축, 동기와, 토기와, 비세고, 허물어진 토굴, 칼라성형강판으로 교체, 70년 보장. A/S 확실
전국 어느 곳이나 무료견적 시공 상담.

삼환 주택 개량 공사
경북 사무소 : 054-292-7613
울산 사무소 : 052-262-0601
휴 대 폰 : 011-9307-0609

사찰 (토 굴) 안 내

- 위 치 : 경북 고령
- 부 지 : 400평
- 법 당 : 25평
- 요 사 : 35평
- 가 액 : 2억2천만원

- 위 치 : 서울
- 부 지 : 1800평
- 법 당 : 25평
- 요 사 : 60평
- 가 액 : 6억5천만원

※사찰(토굴)양도 · 양수 상담 환영

서방불사 011)9851-5952

사찰 안내

- 위 치 : 경북 영천
- 산 2,000평
- 건물 : 법당 14평 산신,용왕각이 각각 2평, 요사채 30평, 창고 13평
- 종교시설부지가 350평임
- 가액 : 1억 3천 5백만원

011)811-5466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내중심(수성구)
- 평수 : 30평
- 시설 : 방, 공양실, 사무실(3개) 옥상(방1) 사용가능
- 포교당 운영하실 분, 일반사무실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500만원, 절충가능)

053)767-8866
011)518-2739

포교당 안내

- 위치 : 성남시 중원구 금강2동 4639번지 정각사 포교원
- 시설비 : 1천 500만원
- 가액 : 500만원, 월 50만원

031)732-0471
016)557-0471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용동면
- 대지 : 150평
- 법당 : 20평, 요사채 30평
- 특징 : 현대식 건물로써 논산 20분거리 (비구니스님 거처지로 용이함)
- 가액 : 1억 2천만원

011)811-5466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
- 조용히 공부하실 스님이나 일반인에게 적합
- 가액 : 2천 1백만원

055)356-8056

사찰 안내

- 위치: 경북 포항, 칠포해수욕장과 월포해수욕장 중간지점
- 대지 : 60평
- 임법당, 바닷가 별장
- 심야전기 조립식 15평
- 주차 무한대 가능
- 가액 : 2억원

011)9372-5977

사찰(급)안내

- 사찰, 요양원, 연수원 적합부지
- 곤지암 큰산아래 1,300평 주택 1동(건 50평) 허가필(땅 일부공사)
- 급매 4억 3천 (시세이하)

※ 좋은사찰 6억5천 온양 1500평

016)362-2828

사찰 안내

- 위치 : 노원구 수락산 상계동 당고개 전철역에서 500m
- 부지 : 300평
- 법당 30 평, 요사 20 평, 나한전(노천)30 평, 약수 2개
- 주차장 완비(10대정도 가능)
- 6월 불하예정
- 가액 : 3억 5천만원(가액 절충)

02)952-7220
011)9997-9932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동두천시 동안기차역까지 7분거리
- 부지 : 305평 법당16평, 요사채 27평

※ 동두천 시내이면서 푸른숲속

- 절까지 포장도로길, 주차시설 완비
- 2006년 전철개통 예정
- 가액 : 8천만원

017)346-5444

포교당 안내

- 위치 : 도봉구 방학동 대로변 코너 4층 건물중 3층
- 건물 35평, 삼존불, 특 A급 시설
- 가액 : 보증금 1 천만원 월세 80 만원 시설비 2 천만원

02)973-5492
011)9764-4494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 성안동 신도시주택가
- 대지 144평, 건평 150평 전망 최고좋음
- 1층 점포 2합 30평, 2층 요사채 80평, 3층 법당 40평
- 가액 : 4억 5천만원 (절충가능, 전세가능) 주변시세 평당 200만원
- 용도변경, 타용도(가든) 가능

019)574-9460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온천장 (금강 식물원 밑) 주차시설 완벽
- 법당 : 2층 47평 (종무소, 주지실, 화장실)
- 호불 500불, 연등1000개, 인등단, 영가단, 최고급 닷집(단청필)
- 공양간 : 1층 25평(화장실, 방1) ● 입주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 100 만원 ●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6)444-5758

사찰 안내

- 경북 문경시
- 법당 : 25평
- 요사채 : 30평
- 부지 : 130평
- 가액 : 1억 6천만원

011)506-6733

사찰(터)안내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입석리 (주) 진토농장
- 특징 : 진주에서 30분거리
- 지리산 자락의 석대산을 병풍처럼 두른 정남향의 부지
- 농지전용부담금 1/10. ● 토목공사완료
- 부지 : 3천 7백평 (준농림지) 매 평당 5만원

011)9307-8318
055)755-7172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 중구 학산동 대로변
- 평수 : 2층 독채 실내평수 20평, 그외 마당
- 가액 : 전세 1천만원, 월 28만원
- 시설비 : 1천만원

052)296-3536
011)591-1545

포교당 안내

- 위치 : 강북구 수유동 큰대로변 4층 건물중 3층
- 평수 : 37평
- 시설 : 법당,산신각, 방, 주방,창고
- 보증금 1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016)288-5896
02)995-5896

사찰 안내

- 위치 : 대전역에서 걸어서 10분거리
- 건물 : 40평 단독주택
- 보증금 5백만원, 월 16만원
- 시설비 : 답사후 결정

011)428-2806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 일산신도시 중심가 (주엽전철역 200m)
- 건물 : 3층 건물중 3층(25평)
- 앞뒤로 아파트단지로 포교원이나 철학관으로 적합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답사후 가격절충

031)919-0306
011)9701-0603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주택 아파트 중심지역
- 법당 : 2층 약 50평(방2개, 주방, 세면실, 화장실)
- 삼존불, 개금불상, 후불, 신중, 산신, 인등, 인등단, 영가단 모셔져 있슴
- 현재 법회중 (부처님 전당 최고 수준)
- 특혜 : 시설비약간만 받음(⅓) 답사후 결정
- 보증금 : 1천만원, 월 45만원
- 주지스님 공찰때문에 '급' 해결

011)9343-0780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
- 대지 : 88평
- 법당 : 10평
- 요사 : 20평
- 특징 : 마을뒤에 위치한 도량. 포교당으로 적합 교통, 주차편리
- 가액 : 1억

011)879-4791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구산역에서 3분거리 도로변. 4층건물중 3층
- 총 37평, 법당 25평
- 청동삼존불, 주방, 욕실, 방2개
- 가액 :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4천 5백만원

011)9763-2160

토굴 안내

- 위치 : 남원시 근교
- 부지 500평, 건물1동
- 가액 : 2천 5백만원

016)441-0097
063)625-5559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 현동 태백산 자락
- 대지 밭 4,000평
- 황토 블록토 가옥 2동
- 700고지. 계곡물이 많이 흐름
- 자동차 진입가능.
- 전기 有. 핸드폰 가능
- 가액 : 5천만원

011)9528-184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에서 통영간 중간지점
- 부지 : 500평, 법당 : 20평
- 시설 : 삼포목재 단청된 30년 역사의 전통사찰양식으로 산신, 용왕각이 모셔져 있음
- 특징 : 노송이 어울려져 경관이 수려하고 시내가 인접하며, 절뒤에서보면 바다가 내려다보임.(넓은 주차 시설)
- 가액 : 1억 7천만원(답사 후 조정가능)

011)9209-7893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천시 원미구청 옆 5분거리 4층 건물 중 2층 35평
- 법당, 주방, 주지실, 상담실, 화장실별도
-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여래불, 지장보살
- 보증금 : 10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절충 가능)

032)652-9384
011)729-6011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경기 수원시 세류 2동 큰길 옆 3층
- 평수 : 40평, 방2개, 법당, 주방, 욕실, 옥상 30평 사용가능
- 시설 : 삼불, 신중, 영가단, 산신각, 에어컨 및 전자제품 완비

※ 시설에 관련된 집기 완비 (따로 시설하실 필요 없슴)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2천 5백만원

031)231-9293 / 011)9240-1384

포교당 안내

- 위치 : 봉천10동 대로변 신림역에서 3분거리
- 교통편리, 최고 위치
- 보증금 : 1천만원, 30만원
- 시설비 : 500만원 (시설 최고)

017)216-3832

사찰(급)안내

- 위치 : 임진강 앞에 보이고 자유로 앞에 있음
- 대지193평, 요사채70평, 법당 20평,방 6개,욕실 2,주방 3,거실3
- 법당단청했음
- 미륵 부처님 모셨음
- 산세수려하고 큰스님 병환으로 (급) 안내
- 가격은 답사후 결정

011)9036-790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북안
- 평수 : 164평, 田 256평
- 건물 : 20평
- 슬라브 요사채(방3개, 거실, 욕실)
- 법당 : 조립식 10평, 화장실: 실내외 각각 1개

※ 스님이 급한 불사로 저가로 양도코저 함

- 가액 : 4천 5백만원

011)486-1275

사찰 안내

- 위치 : 동작구 상도2동 201-60호 백운사
- 대지 : 66평
- 건평 : 56평(1, 2층, 지하)
- 삼존불
- 가액 : 5억 3천(절충가능)

02)815-0302
011)722-0302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시내버스 종점
- 대지 135평. 신개발지역
- 임멉당 20평. 요사,주지실 40평
- 삼존불 봉안. 2층 대웅전 불사중
- 가액 : 1억 5천만원(융자안고)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요망

011)825-1662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만덕동 지하철역 인접하고 버스종점 옆
- 대지 : 대지 53평, 3층 건물
- 구조 : 방 3칸, 거실, 주방 大, (인법당,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A급)
- 특징 : 대단지 아파트(7600여세대)건립예정 지역으로서 포교원 최적합함.
- 가액 : 1억 3000만원(약간 절충가능)

051)331-9937
016)872-8050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경기도시흥시시화신도시 역에서 10분거리 이마트 맞은편 최고요지
- 법당 : 건평 49평(법당, 사무실, 주방, 방)
- 현재 법회중(불사관계로 양도)
- 전세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시설최고A 급) : 답사후 절충
- 대단위 아파트 및 상가밀집지역

031)499-9728/011)277-9724

포교당 안내

- 위치 : 봉천10동 대로변 신림역에서 3분거리
- 교통편리, 최고 위치
- 보증금 : 1천만원, 30만원
- 시설비 : 500만원 (시설 최고)

017)216-3832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내 중심가
- 3층 건물 2,3층 합 100평
- 큰방3개, 넓은 주방, 넓은 거실, 창고방 2개
- 법당, 목조 불상, 석가모니 삼존불(관음전)
- 전체 전세 8천만원과 보증금 5천만원, 30만원 중 택일
- 내부 시설비는 면담후 결정 살림 및 즉시 법회가능. 시설A급

011)9301-2293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걸어서 7분)
- 대지 : 200 평
- 법당 : 콘크리트 27평 1층
- 산신각 : 7평 2층(1층은 스님방)
- 요사채 : 27평
- 공양간 : 입식(현대식)

※ 주방 별도로 있슴

- 가액 : 1억 5천만원

052)294-7025
052)293-7025
019)292-7025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석적면 도개
- 대지 : 1,364평
- 건물 : 산신, 용왕각, 요사채
- 법당 : 대웅전 법당 기초 완료 (불사중)
- 특징 : 산세가 수려하고 도개 온천방향으로 교통이 편리함
- 가액 : 3억 (가액조정 가능)

011)532-8921

사찰 안내

- 위치:충북 옥천군 동이면 목사리 큰 도로변, 사찰 최고 명당
- 대지 380평, 건평 1층 80평, 2층 70평, 합 150평 법당, 요사채
- 사정상 급매. 위치, 시설 최고 시설비 일체 포함
- 가액: 6억5천만원(답사후 절충가능)

02)373-4084
011)252-0039

사찰 안내

- 위치 : 수원역 5분 거리 수원도청 입구, 대로변
- 삼존불, 후불, 신불, 지장, 산신, 칠성탱화
- 3 층 건물에 2 층 20 평
- 법당 15 평, 스님방 5평
- 주방시설 완비
- 보증금 5 백만원, 월 35 만원
- 시설비 : 1 천만원 모든 집기류 일체 제공

011)669-4221
031)257-6622

포교원(급)안내

산중사찰 낙성되어 새로운 인연 찾습니다

- 위치 : 도봉구 쌍문동 대로변 로타리. 4층건물중 2층
- 법당 약 25평(기도실, 상담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1천만원 (전기판넬위 다다미시설 등)

016)703-6648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경기도시흥시시화신도시 역에서 10분거리 이마트 맞은편 최고요지
- 법당 : 건평 49평(법당, 사무실, 주방, 방)
- 현재 법회중(불사관계로 양도)
- 전세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시설최고A 급) : 답사후 절충
- 대단위 아파트 및 상가밀집지역

031)499-9728/011)277-9724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내 중심가
- 3층 건물 2,3층 합 100평
- 큰방3개, 넓은 주방, 넓은 거실, 창고방 2개
- 법당, 목조 불상, 석가모니 삼존불(관음전)
- 전체 전세 8천만원과 보증금 5천만원, 30만원 중 택일
- 내부 시설비는 면담후 결정 살림 및 즉시 법회가능. 시설A급

011)9301-2293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걸어서 7분)
- 대지 : 200 평
- 법당 : 콘크리트 27평 1층
- 산신각 : 7평 2층(1층은 스님방)
- 요사채 : 27평
- 공양간 : 입식(현대식)

※ 주방 별도로 있슴

- 가액 : 1억 5천만원

052)294-7025
052)293-7025
019)292-7025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석적면 도개
- 대지 : 1,364평
- 건물 : 산신, 용왕각, 요사채
- 법당 : 대웅전 법당 기초 완료 (불사중)
- 특징 : 산세가 수려하고 도개 온천방향으로 교통이 편리함
- 가액 : 3억 (가액조정 가능)

011)532-8921

사찰 안내

- 위치:충북 옥천군 동이면 목사리 큰 도로변, 사찰 최고 명당
- 대지 380평, 건평 1층 80평, 2층 70평, 합 150평 법당, 요사채
- 사정상 급매. 위치, 시설 최고 시설비 일체 포함
- 가액: 6억5천만원(답사후 절충가능)

02)373-4084
011)252-0039

사찰 안내

- 위치 : 수원역 5분 거리 수원도청 입구, 대로변
- 삼존불, 후불, 신불, 지장, 산신, 칠성탱화
- 3 층 건물에 2 층 20 평
- 법당 15 평, 스님방 5평
- 주방시설 완비
- 보증금 5 백만원, 월 35 만원
- 시설비 : 1 천만원 모든 집기류 일체 제공

011)669-4221
031)257-6622

포교원(급)안내

산중사찰 낙성되어 새로운 인연 찾습니다

- 위치 : 도봉구 쌍문동 대로변 로타리. 4층건물중 2층
- 법당 약 25평(기도실, 상담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1천만원 (전기판넬위 다다미시설 등)

016)703-6648

사찰기도터(급)안내

①비마 양택혈 사신 수려한 산중 비장터
용호 용포 안에 양수 합수처
안산 방에 구곡수 조당 면전에 동강 객수 과당 기도처,
수도처 풍수적으로 최적지 명당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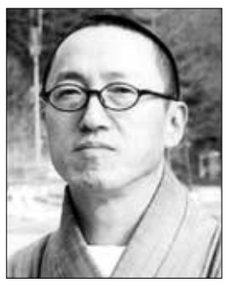
②지방도 지정 문화재 미륵마애불이 옆자리에 위치한 기도터입니다. 현재(종교부지) 건축허가 나있습니다.
소납이 사정상 두자리를 정리하려고 하오니 뜻이 있으신 분께서는 연락주시고 왕림하셔서 불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위 장소는 ① 충북 단양과 ② 괴산

011)742-5925 / 043)422-1666

목어

생존 필수품



도수
정업도량 회주

산사 생활에서도 소용되는 필수품이 적지 않다. 시내로 그것들을 사러 산을 내려가면 자동차들이 내뿜는 매연과 경적소리가 먼저 맞이한다. 경적소리는 그래도 참을 만한데 매연은 질식할 정도로 숨이 막힐 지경이다.

조석과 사시에는 법당에 올라 부처님과 만난다. 초에 불을 켜고 거기에 향끝을 살라 향로에 꽂는다. 재질이 좋지 않아서인지 매캐한 향내가 제 역할을 망각한 듯 법당안의 공기를 금새 오염시키고 만다. 향에서도 불심은 없고 상술만 타오른다.

수돗물이 음용수의 자리를 내놓은 지는 벌써 오래전 일이다. 관계 공무원들이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수돗물을 마시려 들지 않는다. 그냥 허드레 물로나 쓸 뿐이다. 그래서 산사의 이른바 약수가 인기가 높다. 그러나 산사의 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마실 수도 없다. 검사결과 오염된 약수가 적지 않다고 한다. 공기가 오염되어 있으니 당연지사다.

세상은 뒤숭숭해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있다. 따스한 햇볕이 어느새 들꽃들을 키워 놓았다. 절 뒤켠에 빈터가 있어 텃밭을 일구었다. 땅도 죽은 땅이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산사 주변의 땅은 제법 살아 있다. 우선 뭇생명들의 생존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생존 필수품만이라도 하루속히 되살려 놓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밤이면 얼마 전에 개설한 불교대학에서 강의를 한다. 우리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에 먼저 사람의 마음을 되살리면 공기와 물과 땅도 되살아 날 것 같아서다.

장군죽비

도선사 신도대기소 닭요리 사건
사찰직원 사칭 노숙자들로 밝혀져

지난달 15일밤 도선사 신도대기소에서 닭을 끓여먹은 사람들은 사찰직원을 사칭한 노숙자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도선사 박기숙 불자는 3월17일 도선사 홈페이지에 "신도대기소에서 도선사 직원이라며 닭을 끓여먹는 광경을 보았다. 바로 잡아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 같은 내용이 본지 414호 '장군죽비'에 실리면서 도선사는 자체조사를 펼친 결과 "인근의 노숙자들이 도선사 직원을 사칭하고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밝혔다.

도선사는 3월 27일 홈페이지에 답글을 올려 "보살님께서 목격하신 불미스러운 일에 도선사의 직원은 개입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도선사의 주변을 더욱 맑고 깨끗이 정리하여 기도하시는 분들께 눈살 찌뿌려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선사에서 종일 무료배식이 이뤄지면서 노숙자들이 사찰인근에 진을 치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불자 세상보기

진철
전 마곡사 주지

틱낫한 스님 통해 한국불교 읽기

농촌 어귀에 작은 집을 짓고 들어온 지 3년째다. 사람 만나는 일을 즐이고 '나'를 만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에 들어 온 토굴이다. 내 나름대로 정한 규칙에 따라 정진하고 먹고 자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싫다고 극구 사양했건만 어떤 사람이 방 문위에 '두산선실(斗山禪室)'이란 현판을 걸어 주어 꼼짝없이 내가 정한 규칙이나마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분명한 구속이다. 어느 정도의 구속도 없이 살 수는 없다. 다만 스스로 구속되는 구속이 있고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부릴 수 있는 구속이 있다.

지금 한국에 와서 '걷기명상'과 '화'를 잠재우는 강연으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틱낫한 스님은 외부로부터 혹은 내부로부터 쳐들어오는 구속을 조용히 잠재우고 스스로 평화로워지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 생명의 존엄과 인류의 평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을 펼치며 전국을 누비고 있는 그의 행보는 연일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나는 한 수행자로서 그의 행보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와 동시에 한국 땅에 사는 승려로서 느끼는 일련의 자괴감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는 수없이 많은 고승대덕들이 있고 1600년의 긴 역사를 거쳐 다져진 값진 수행전통이 있다. 그런데 환경, 전쟁, 북핵 등이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른 이 시점에서 틱낫한 스님은 이 땅에 거대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한국의 고승대덕들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큰스님들이 황금 같은 침묵으로 토해내는 '무언의 설법'을 듣지 못하는 대중의 우매함을 아쉬워해야 할까? 그렇다면 '화' 내지 않는 평화로움을 얘기하는 저 이방의 수행자에게 쏠리는 눈과 귀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땅에도 큰스님은 참으로 많이 계신다. 다만 큰 스님들의 큰 가르침을 대중 속으로 전하는 기술이 부족하다. 표현력 부족이라는 현실을 나는 틱낫한 스님을 통해 너무나 명료하게 읽었다. 그것은 우리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당면 과제이기도 하다.

한국불교가 무엇보다 먼저 극복해야 할 문제는 언어의 벽이다. 언제까지 한자의 난해함에 갇혀 있어야 하고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도외시할 것인가?

우리들의 큰스님이 전하는 훌륭한 가르침들을 쉬운 일상 언어로 풀어 세계인이 함께 읽고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마,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건 "한국 스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가르침을 배웠다"고 감동하며 한국 스님 초청하기에 바쁠 것이다. 그리고 각국 유수의 출판사들이 한국 스님들의 책을 펴내어 돈도 벌고 정신문화 고양도 하려는 기획을 할 것이다. 외국 출판사의 초청을 받은 한국 스님은 강연(한국의 스님들은 무료강연이 아니면 나설 수 없다는 보살심을 분명하게 보여 줄 것이다) 때마다 "한국불교의 전통 수행법이야말로 인류를 구하는 가장 완벽한 길"임을 역설할 것이다. 그리고 걷지 않고 조용히 앉아 화두를 참구하는 참선 수행을 가르칠 것이다.

수행공동체란 개념은 이미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고 한국불교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착실히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틱닛한 스님이 이끄는 플럼 빌리지와 우리의 승가공동체 또한 다를 것이 없다.

한국불교는 말로만 세계화를 떠들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재불사와 구체적인 전략을 통해 세계화로 향한 문을 열어야 한다. 틱낫한 스님의 방한은 국민대중에게 마음공부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고 나 같은 사람에게는 우리 종단의 지향점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였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인터넷에 들끓는 반전 여론

국회가 25일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처리를 연기한 데 이어 조계종 임시중앙종회에서도 '미국의 이라크 전쟁 중단과 우리 정부의 파병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급기야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이라크전을 '침략전쟁'으로 규정, 정부와 국회에 파병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권고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국내의 반전 물결 속에 불교계 인터넷 자유게시판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불자들의 의견 표출이 뜨겁다. 〈편집자〉

◯…결국 '기름'인 걸 뻔히 아는데, 기어이 주먹질을 하고 나섰다. 부시의 주먹질에 후세인은 결사항전을 하겠지만, 세상은 다시 전쟁이라는 역사를 쓰고 말았다. 전쟁이 터지자 미국은 물론 세계 증시가 더 할발해지는 아이러니한 현상까지 빚어지는 걸 보면,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생각한다. 누군가 말하길,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길어지면 땅의 신이 피를 부르게 된다고 했다. 인간의 평화는 오래갈 수 없는 것이, 인간 자체가 전쟁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일 것이다. 쌈꾼들은 그 욕구를 억제하는 인내력이 약할테니. 미국의 주먹질은 결국 기름이 목적이었음에도 불구, 사람의 목숨과 피를 뿌려야 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전쟁의 끝을 생각해 본다. 이기는 자도 지는 것이고, 진 자도 지는 것이기에 이긴 자의 잔치도 그리 즐거운 일은 아닐 것이다. 〈ID: 거사림〉

◯…지난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에서 발표한 이라크 파병철회촉구 성명서는 너무도 당연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부나 일반 국민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파병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스님들과 불자들은 어떠한 이유로든 전쟁을 묵인하거나 찬성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낱 미물조차도 소중히 여기는 불교에서,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는 전쟁을 어떻게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겠는가? 불교도가 가장 앞장서서, 가장 소리 높여 반전과 평화를 외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ID: 보현심〉

◯…아침 조간신문에서 처참하게 부상당한 어린 소녀를 안고 슬퍼하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연합군의 폭격으로 발목이 잘려나간 채 정신을 잃은 소녀는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실을 지구 건너편에서 단지 바라만 보고 슬퍼해야 하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모든 이의 가슴 속에 생명을 사랑하고 평화로운 마음이 깃들기를 간절히 서원해 봅니다. 〈ID: yooysk〉

◯…이라크전이 시작되고 토요일을 맞아 곳곳에서 반전시위가 있었다. 몸이 찌뿌드드하다고 집에만 있을 수 없어 나도 집회에 참석했다. 시청에서 진행된 반전 행사에는 1천여 명 정도가 모여 '반전 평화'를 외쳤다. 특히 틱낫한 스님이 오셔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 안의 평화'는 너무 작아 보였다. 광화문에 도착하니 효순이 미선이 추모행사와 반전시위에 참여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 처음엔 너무 조금 모인 것이 아닌가, 씁쓸하기도 했다. 시청 행사에서 가수 안치환 씨는 "세계는 몇 백만 명이 모여 반전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전쟁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겨우 몇 천 명이 모여서 전쟁을 막겠다고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모여야 합니다"라는 말을 했다. 전쟁을 막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가 파병하는 것만은 막고 싶다. 〈ID: 조최윤순〉

◯…부처님은 로히니강의 물을 둘러싸고 두 나라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가?"라고 외치며 전쟁을 막으셨다. 또 "도시를 포위하고 사람들을 학살하는 폭군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천한 자"라고 하시며 폭력은 폭력을 거둠으로써만 멈출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전쟁과 살생을 반대하고 자비와 평화를 가르치셨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인이라면 당연히 무고한 양민들을 살육하는 부시의 침략전쟁을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침략전쟁을 지원하고 파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ID: 이해모〉

독자투고

각묵스님 주장에 대한 반론

간화선에서 말하는 불성, 본래면목, 진여 등은 아트만적인 개념이 아니다. 니르바나의 다른 표현들일 뿐이다. 일부 사람들이 중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성을 아트만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각자의 역량에 달린 문제이지 가르침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말은 도무지 무슨 얘긴지 알 수가 없다.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열심히 정진하고 있다는 뜻인가? 열심히 정진하는데 무슨 잘못이 있는가? 열심히 정진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깨치면 다 된다는 식이라는 말은 또 무슨 얘긴가? 불교의 목표는 누가 뭐래도 깨달음에 있다. 깨달음을 목표로 정진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어처구니없는 소리가 아닌가?

불성, 진여 등은 아트만적 개념 아니다

인가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부처님은 누구에게 인가받았는가? 인가를 중요시한 것은 자칫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착각해서 수행을 중단하고 타락할 것을 우려해서다. 그것은 모든 수행이 마찬가지다.

간화선이 본인의 근기에 맞지 않으면 다른 수행법을 택하면 된다. 진지한 구도자라면 자연히 본인이 알아서 자기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아 들어가게 되어 있다.

아니면, 간화선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일까? 간화선은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각자를 배출해내며 검증받은 수행방법이다.

이처럼, 각묵 스님의 간화선에 대한 모든 비판은 문제없는 곳에서 공연히 있지도 않은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붓다뉴스(buddhanews.com)' 열린마당, ID: '햇중'

광명실상 성취기도법 을 알리며 · · ·

광명 실상 성취 기도법이란 인간은전생윤회(轉生輪廻)하면서영원히 소멸하지않는 생명이며,실상 완전 원만함을 일깨워주기위한 기도법입니다. 불자님께서 이 진리를일깨워가기만 하여도 모든 것을 불자님 스스로성취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같이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상실하면서형식적인 염불이나 독경, 기도로서인간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진리가없는 신앙생활에의한 기복 신앙과 타력 신앙으로인간을 구제할 수 없으며,행복과마음의평안을줄 수없습니다.
자신의마음을상실한 신앙은정법이라고할 수없습니다. 자신의마음은 무한한 생명과상통하고 있는 보배요 왕국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부처님의 자식,영원한 생명,실상 완전 원만한 무한생명인 것을 깨닫고,천지만물에대한 감사와보은,공양과 보시의마음을 가지고 진리의실천 생활을 하시면 마음의 문이 열리며 스스로 위대한 지혜의보고를발견할 수 있게됩니다.
이러한마음으로 **"광명 실상 성취 기도"**를성실히실행하는 불자님에게현실세계폭의온갖 미움·다툼·슬픔·재난·불행·질병 같은 것은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행복·번영·희망·건강·성공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고를 보시고 저희에게 오시거나,위 사진을오려서 **광명실상회**에 편지로보내 주시면 책을무료로법보시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광명 실상회**에서발간한 **"부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가꿉시다"**라는책을읽어보시고,새로운마음을내시어 **"광명 실상 성취 기도"**를실행하시기바랍니다.
인간은본래청정법신이므로 **"생명의 실상"**으로진리의마음을바라볼 수있다면 **행복·번영·희망·건강·성공**이자연스럽게찾아오며 죄와업과병과재난과불행은악몽에지나지않을것입니다.
불자님께서 저희 **"광명 실상회"**에서펼치고있는 **"광명 실상 성취 기도"**수행을지도받으시고,실행하시는 삶 속에서진리의광명이항상 충만하게나투는 삶을누리시기바랍니다.

광 명 실 상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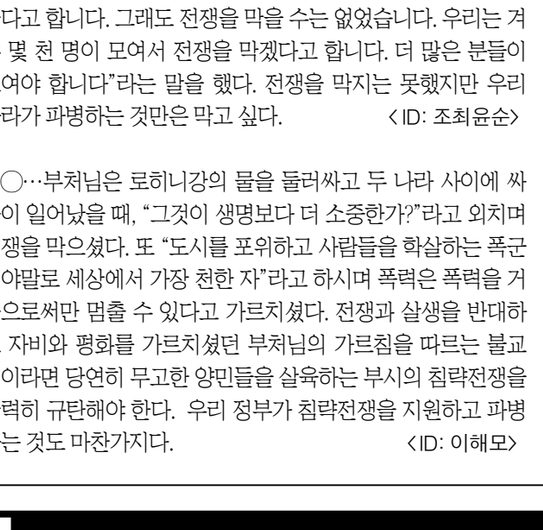
광 명 실 상 회
전화 (031) 257 - 356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486-14, 6/4
회 장 진 관 법사 합장

보 문 포 교 원
전화 (051) 864 - 3740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 (한신상가 5동 501호)
원 장 각 광 합장

봉은승복사 할인매장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30년을 한결같이 부처님께 시봉드는 마음가짐으로 종사해 온 저희 봉은승복사가 올해로 개점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개점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의 어려운 제방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전제품을 **할인(30%)**된 가격으로 모시고자 하오니 직접 내방하시어 타사의 제품과 비교해 보시고 좋은 고견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안내



가격안내

◈ 모직혼방 ※ 20만원이상 구매시 티셔츠 1장 증정함 ※

1. 두 루 막 110,000원
2. 장 삼 180,000원
3. 동방바지 140,000원
4. 적삼바지 100,000원
5. 개 량 복 [*할인금액*]
(여) 80,000원
(남) 90,000원
6. 조끼, 바지 50,000원
7. 반 가 사 50,000원
8. 대 가 사 80,000원
9. 책 가 방 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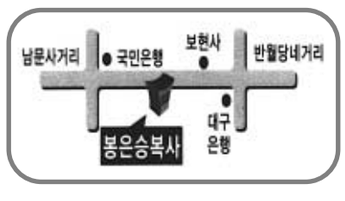
◈ 천연염색
(회색, 밤색, 흰색, 쑥색, 황토색)
1. 티셔츠 20,000원
2. 바 지 25,000원

온라인 은행구좌
● 국민은행 : 617-21-0388-842
● 우 체 국 : 701227-02-029554
● 예 금 주 : 박 철 오



봉 은 승 복 사

전 화 : 053)421-5451 / 053)424-5462
휴대폰 : 011-821-5451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72-18



일연스님 대대적 선양사업

일연학 연구원

탄신 800돌 기념

첫 운영회의 … 연구위원 6명 위촉

올해 삼국유사 정덕본 간본 영인본 간행

군위군, 인각사지 정비 · 성역화 불사 추진

삼국유사의 저자로 유명한 일연스님을 기리는 선양사업이 올해를 기점으로 대대적으로 펼쳐져 2006년 탄생 8백주기에는 열매를 맺게 될 전망이다.

일연학연구원(원장 상인)이 최근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동국대 김상현교수, 경북대 주보돈교수, 영남일보 이하석 논설위원 등 6명의 연구위원을 새로 위촉하고, 일연성사 현창 및 인각사 복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2006년 일연성사 탄생 800돌을 기념해 일연성사 비문 복원, 삼국유사 목판본 복원 불사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올해는 일연성사 추모다례일인 오는 8월 5일 조선초기 삼국유사 정덕본을 영인본으로 간행해 일연성사 영정에 봉안할 계획이다.

또 2003년 일연성사 현창사업으로 6월 28일 군위 인각사에서 일연성사 추모 전국 청소년 백일장 개최, 9월 4일 '삼국유사의 체제와 성격'을 대주제로 '민속 및 국문학 분야'에 대한 학술 심포지엄을 봉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위군에서도 인각사지 종합정비계획을 발표하는 등 일연성사 현창사업과 인각사 성역화 불사가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군위군은 지난 2월 '인각사지 종합정비계획'의 기본계획서를 마련하고 전체 발굴조사계획을 3차년도로 세분화했다. 1차년 도인 올해부터 총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그동안 조사가 미뤄져 왔던 지역들에 대한 시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 사역확인에 나선다.

또, 2차년도에는 7억 여원의 예산을 투입, 확인된 사역을 바탕으로 권역을 설정해 고려시대를 거쳐 통일신라시대까지 조사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06년 일연성사 탄생 800돌에 맞춰 인각사지 복원 종합마스터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각사 일연학연구원 원장 상인스님은 "금년은 일연성사께서 국사로 책봉되신 해와 같은 계미년이기에 더욱 뜻깊다"면서 "오는 2006년 일연성사 탄생 800돌을 맞아 일연성사의 업적이 국내외적으로 널리 선양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원효사상 현창사업추진

제향대재 · 학술대회 개최

불교의 대중화를 통해 한국 불교의 첫 새벽을 연 원효성사 현창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예정이다.

원효학연구원은 최근 경상북도로부터 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5월 원효성사 제향대재를 봉행하고, 10월에는 창작무애무, 범패공연 등 독특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원효예술제와 전국의 원효학을 연구하는 석학들이 참여하여 열띤 논쟁을 벌이는 원효학술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경남포교사단 500여 포교사들이 3월 23일 개발로 인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는 통도사 인근 초산유원지 현장에서 자연환경캠페인을 벌였다.

'성실한 환경 파수꾼' 역할 다짐

부산경남포교사단 자연보호실천위원회 발대식

부산 · 경남 포교사단(단장 최덕수)은 3월 23일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자연보호실천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자연환경 및 수행환경 수호자로 나설 것을 결의했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포교사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발대식에서는 이원겸 환경팀장이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환경문제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자연생태계 보전에 솔선수범 △환경윤리가 정착된 사회 만들고 국민의식 개혁과 계몽활동에 앞장 △환경단체들과 자연보호 위한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특히 이날 '우리의 결의'를 통해 "성실한 환경파수꾼으로서 금정산 ·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 백지화와 양산 초산유원지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요구 등 앞으로 사찰과 문화유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통도사 총무국장 산옹스님의 환경보호에 대한 법문, 포교사단 지도법사 오심스님의 축사, 발원문, 축가 등의 순서로 발대식을 끝낸후 영축산 환경위원회 투쟁위원장 오심스님과 함께 통도사 인근에서 산림을 훼손하며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는 초산유원지 현장을 답사하고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였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이라크戰 · 한국군 파병 반대"

동화사 · 영남불교대 성명서 발표

대구지역 불교계에서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반대와 파병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팔공산 동화사(주지 지성)와 영남불교대(학장 우학)는 최근 미국의 이라크 공격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침략전쟁의 즉각적인 중단 촉구와 함께 한국군의 파병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동화사는 성명서에서 "전쟁은 참회할 수 없는 악업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줄 것은 자명한 인과의 법칙"이라고 지적했다.

동화사는 또, 미국이 지금이라도 침략적 전쟁을 중단하고 우리 정부도 전쟁보다 평화의 편에 서서 의미있는 노력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영남불교대 총동문 신도회도 3월 26일 성명을 통해 이라크전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정부에서 이라크전 파병을 서두르고 있음을 개탄한다"며 "한국군의 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하지 않고 결행한다면 파병 통과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박원구 기자



◇뇌허 김동화 박사 현창비 제막식이 3월 28일 상주 남장사에서 봉행됐다.

뇌허 김동화 박사 현창비 제막

상주 남장사서, 사부대중 150명 참석

현대 한국불교학의 초석을 다진 뇌허 김동화(1902~1980)박사 현창비 제막식이 3월 28일 상주 남장사에서 15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남장사 부도전 아래 20여평의 공간에 건립된 김동화 박사의 현창비는 전국비구니회장 광우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목정배 서울불교대학원대학 총장, 일본 리쇼(立正)대학 미도모 켄요 교수 등 한국과 일본의 후학들이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조성해 건립했다.

이날 제막식에서 직지사 회주 녹원스님은 법어를 통해 "한국불교의 대중화를 선도한 김 박사의 반듯한 걸음은 후학들에게 자신의 길을 되짚어 따르라는 뜻"이라며 "이를 계기로 김 박사의 업적을 능가하는 후학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진정한 추모"라고 설했다.

가산불교문화원 원장 지관스님이 쓴 비문에는 "구한말에 출현하신 뇌허당 동화종사 국민들을 계도하니 각계명승 찾아와서 살아가는 길을 묻다"는 내용과 업적이 기록돼 있다.

박원구 기자

문화재 정비 · 보수 감독강화

경상북도, 보조금사업 관리위 구성

경상북도는 3월 19일 영주 청소년수련원에서 시군문화재 관계관 회의를 갖고 문화재 정비 및 보수사업 추진시 '보조금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공사와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정문화재의 보수와 정비사업 대부분이 사찰이 예산을 지원 받아 직접 수행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정문화재 주변환경 및 부대시설 정비는 당해 문화재에 대해서만 보수 ·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부속 건물 등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극히 제한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박원구 기자

'부산불교문화 이끌 공간'

범어사 성보박물관 개관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경선)이 3월 26일 개관법회를 갖고 성보의 보존과 불교문화를 통한 포교에 들어갔다.

범어사 주지 성오스님, 오거돈 부산시 행정부시장, 통도사 총무국장 산옹스님, 통도사박물관장 범하스님을 비롯한 3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개관법회는 식전 문화행사와 본행사, 테이트 커팅 및 관람, 식후 국악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경선스님은 경과보고를 통해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서적 및 책판류 전문 박물관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서적이 상설 전시된다"며 "제 2 박물관 건립을 서둘러 박물관 대학, 각종 문화강좌 등을 개설해 부산의 문화를 이끌어 가는 핵심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제1회 울산불교예술제

울산 불보신문(대표 오덕삼)은 4월 3일 오후 6시 KBS울산홀에서 창간 1주년기념 '제1회 울산불교예술제'를 개최한다. 울산불교예술제는 동국국악관현악단의 합주, 정율 도신 스님 찬불가, 영호스님 가야금병창, 대중가수 설운도씨 등이 출연한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선암사 장례예식장 건립 차질

부산시, 행정심판 청구 기각 결정

선암사가 부산시에 제기했던 '구청의 설계변경허가' 행정심판에서 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으로 선암사의 장례예식장 건립이 차질을 빚게 됐다.

그러나 선암사측은 이미 제기한 행정소송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장례예식장 건립을 기원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어서 주민들과의 마찰은 불가피하다.

천미희 기자

대구지하철 희생자 천도

태고종, 영산위령제 봉행

지하철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돕기 위해 태고종이 3월 28일 합동분향소가 있는 대구시민회관에서 희생자 천도 영산위령제를 봉행했다.

영산위령제는 범패 기능보유자 석봉스님을 비롯 종단의 전문 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승무, 바라춤 등을 통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자리가 됐다.

박원구 기자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 영가천도의 중요성 "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방법
⑨ 특별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팔공산 (관봉) 약사암 대웅전 건립 대작불사 안내

귀의삼보하옵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기도 영험이 널리 알려진 약사성지 팔공산(관봉) 약사암에서는 석가여래부처님을 모시는 대웅전 건립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사 원만회향을 위해 3년째 1000일 기도를 봉행하고 있는 약사암 대웅전 건립불사에 불자님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수희 동참하시어 세세생생 이어질 복덕과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대웅전 불사 동참 안내

대들보	1,000만원	기 둥	300만원	청 룡	300만원
황 룡	300만원	현 판	300만원	주 련	100만원
주춧돌	50만원	서가래	20만원	축대석	10만원
문 (앞)	200만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616-01-0600-052 주택은행 810702-01-035169
대구은행 200-08-007118-4 예금주 : 장영순

※ 시주금을 입금하신 불자님은 반드시 약사암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공산(관봉) 약사암 주지 일여 장영순 합장

☎ 053)852-0803, 851-4632 / Fax 053)852-9453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 44번지

“부대 운영에 종교차별 있을 수 없죠”

맹호부대장 법당불사… “아름다운 지휘”

종교간 형평성, 신앙 생활 활성화 위해 결심



◇육군맹호부대장 박경서 장군이 도움을 준 부산 길상암 스님들과 법당 신축 현장에서 상량식을 가졌다.

육군 맹호부대장 박경서 소장이 천주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단 법당 신축 불사를 해 화제가 되고 있다. 박 장군은 “사단장 취임 후 교회와 성당에 비해 법당이 너무 좁고 낡아서 사단법당으로서 구실을 하기엔 역부족이란 느낌이 들었다”며 불사 동기를 밝혔다. 또 “기존 법당은 어린이 법회 및 장병 명상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축법당 개원식은 초파일 경 할 계획이다.

▲어떤 동기로 법당 신축을 생각하게 됐습니까?

–2001년 11월 경 맹호부대 사단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부임 후 종교행사에 참석해 보니 교회(1994년 신축, 총 공사비 7억 5천만원)와 성당(1990년 신축, 총 공사비 1억 6천만원)에 비해 사단 법당인 호국 연호사(1977년 완공, 총 공사비 1280만원)는 너무 좁고 낡아서, 법회 참석자 과반수 이상이 법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간 형평성 확보와 이를 통한 장병의 종교 생활 활성화를 위해 법당 신축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신축을 하면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총 공사비를 약 3억 8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 조달이 원활하지 못해 아직도 미지급 공사대금이 약 1억원 가량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단 법사(범망)님은 부처님께, 저는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사실 주변에서 제가 법당을 짓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하고, 인근 지역 스님들이 감사을 뜻을 전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종교가 소중하다면 다른 종교도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군대는 눈으로 보이는 유형의 전투력도 중요하지만, 무형의 전투력도 중요합니다. 이는 곧 조국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요즈음 사병들은 예전에 비해 개인적이고 나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한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군대 내 종교 활동은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까?

–종교 행사를 통해 개인적이고 나약한 자신을 다시 점검하고 보다 이타적이고 강인한 군인으로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내 종교간 교류 및 종교 활동 활성화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군대에서 종교활동은 자기 종교의 교세확장을 위한 발판이 돼서는 안됩니다. 또 장병들이 종교 시설을 찾아 갈 수 있도록 내 · 외적 환경이 잘 갖춰져야 합니다. 즉 종교 행사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돼야 합니다. 법당 신축불사도 이런 의미에서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우리 절 우리 신도

43년 신행 노하우 “열심히…”

부산 감로사 정보명화 관음회장

18세에 시작된 불교와의 인연이 61세, 손녀를 둔 할머니가 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부산 감로사 정보명화 관음회 회장. 정회장이 접수를 받고 있는 자리 옆에는 늘 찻잔과 차를 우리는 주전자가 준비되어 있다. 차를 유독 좋아하는 정 회장이 “이렇게 좋은 차를 혼자 마시는 게 아까워서” 시작한 일이다. 바쁜 접수 틈틈이 차 한잔을 건네는 여유를 잃지 않은 정회장은 많은 신도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상담자이자 경험을 토대로 신행의

삼천배, 독경, 사경, 참선은 일상생활

어려운 형편 보면 보시행 솔선



◇부산 감로사 관음회 정보명화 회장(왼쪽 첫번째)이 기도접수를 받고 있다.

길잡이가 되어주는 소중한 도반이다.

어릴 적부터 여러 절을 다니며 불교의 진의를 알고자 했던 정회장이 감로사와 인연이 된 것은 아홉 살 아들을 교통사고로 먼저 보내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30대였다. 삼천배 참회기도 중 자운스님의 차 시중을 들면서 은근히 스님의 법문을 기대했던 정회장의 마음을 아셨을까? “네가 앉은 그 자리가 법당이고 네가 부처다”라는 자운스님의 한 말씀이 여기 저기 찾아 헤매던 마음을 접을 수 있게 했고, 더욱 신심을 내는 계기가 되었다.

“어디 가서 삼천배를 하고, 선방에 앉아 몇 년을 공부해도 바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도 짓고, 지혜도 밝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어요.”

이후 정회장의 신행은 더욱 철저해졌다. 감로사 삼천배 참회기도에 한반도 빠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독경, 사경, 참선 등은 일상이 되었다. 또한 감로사의 궂은 일은 도맡아 했고, 어려운 형편을 보면 아까운 것 없이 보시하는 실천을 보였다. 지금도 감로사 주지 혜총스님이 관장으로 있는 용호복지관에 손녀, 딸, 사위 구좌까지 개설해 후원을 할 정도다. 가족들에게 복덕을 짓는 씨앗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게 이유다. 생활과 수행을 둘로 보지 않는 정회장의 철저한 신행은 관음회 회장 7년째를 맞으며 회원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 카드를 작성하면서 혹은 대화를 나누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축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그것이 저의 남은 공부이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회향이라 믿고 있어요.”

처음엔 말을 못한다고 손사래를 치던 정회장의 도량 자랑이 끝날 줄 모른다. “지금 불사가 한창 진행중인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도량에 행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주지스님이 계시니 너무 감사하다”며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공부해서 복덕과 지혜를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뿐”이라며 기도카드로 눈길을 돌려 축원을 이어갔다.

천미희 기자



추천의 말

혜총스님 감로사 주지

상을 내지않는 빈틈없는 수행

나보다 상대를 위하는 여일한 신심으로 관음회를 이끌고 있으며 사찰의 대소사와 살림을 알뜰히 챙기는 불자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대로 정진하고, 생활 속의 실천에도 철저합니다. 또한 방생법회나 삼천불 참회기도 때 관음회 회원을 중심으로 각종 경전을 법보시하면서 바른 불법을 펴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수행에도 빈틈이 없어 도반들의 모범이 되면서도 결코 상을 내지 않는 불제자입니다.

광동학원, 운허스님 존상 건립

“불교학교 정체성 확립계기”



광동학원(이사장 일면)은 8일 오전 11시 광동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설립자인 운허 스님 존상(사진) 제막식을 거행한다.

광동학원의 불교학교 정체성 확립차원에서 건립되는 운허 스님 존상은 브론즈 재질로 좌대 높이 250cm, 전신좌상 180cm이다.

90년대 초 종립학교 유무에 대한 의견차에 따라 학원소요를 겪은 바 있는 광동학원은 93년 일면스님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불교종립학교로 정관과 설립이념을 개정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운허 스님 유품전시회가 함께 개최된다. 이날 유품전시회에는 운허 스님의 훈장증, 독립유공자 대통령 표창장, 발우, 가방, 현등사 사적 친필, 돋보기, 손저울, 회중시계, 벼루와 붓, 단주, 친필현판, 벼루와 붓 등 총 21점이 전시된다.

광동학원 이사장 일면스님(봉선사 주지)은 “광동학원 2만 동문과 4천여 재학생, 200여 교직원, 학부모들에게 설립이념을 고취하기 위해 큰스님 존상건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광동가족은 스님의 모습을 대할 때마다 가르침을 되새겨 민족주체성이 확고한 세계화 역군을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운허 스님(1891~1980)은 해방되던 해인 1945년 본말사 스님 20여명을 모이게 한 뒤 “인재 양성으로 민족의 앞날을 밝히기 위해 교육기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봉선사를 비롯한 봉영사, 수국사, 현등사, 흥룡사 등 5개 사찰에서 토지 약 45만평, 임야 1400여정보를 학교 설립기금으로 출자해 광동학교가 설립됐다.

광동학원은 광동중, 광동고, 광동여고 등 3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김원우기자

청주·청원사암련회장 설곡스님 취임



제9대 청주 · 청원 사암연합회장에 선출된 설곡 스님(대한불교 수도원 원장)의 취임식(사진)이 3월 21일 충북 청주시 대한불교 수도원에서 열렸다.

8대 회장이었던 이두 스님의 퇴임식을 겸한 이날 행사에는 전 회장인 이두 스님(관음사 주지)과 청주 · 청원 사암연합회 수석부회장인 일봉 스님을 비롯해 지역 주요사찰 주지 스님들과 이원종 충북도지사, 한대수 청주시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설곡 스님은 취임사에서 “지역 불교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951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난 설곡 스님은 64년 청주 용화사 수도원에서 출가했으며 70년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비구계를 수지했다. 대구 운흥사와 대만 홍법원장을 지냈으며 런던 연화사와 구미 영명사 주지를 역임했다. (043)256-2655

여수령 기자

서산 간월암 2년만에 산문 열어

기도처로 유명한 서산 간월암이 폐쇄 2년만인 3월 27일 개방됐다.

간월암 원융 스님과 서산시 김정부 총무국장, 간월도리 주민 대표 등은 3월 26일 간담회를 갖고 간월암을 일반에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서산시와 간월암의 대립은 간월암이 1998년 인근 사찰 터에서 불법 영업하던 포장마차를 내보내고 가건물을 신축하면서 시작됐다. 서산시는 가건물을 설치한 간월암을 불법시설물 설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간월암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2001년 3월 산문을 폐쇄했었다.

김원우기자

『국내 파동명상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원장 법운

- 現 '삼경그룹' 고문
- (주)하조건설 고문으로 재직
- (주)오조코스메틱 대표이사



지도교사 박봉순

※ 저 서 ※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100% 활용에 도전한다.
〈파동명상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파동명상으로 하는 제령 천도–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전생퇴행 파동명상 –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원격제령 파동명상 – 제 3자가 파동명상상태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전] 파동명상 지도자 전생연구학회에서 파동명상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 일주일 과정 (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 전문반 과정을 마친 후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지속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음 [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 일반적인 파동명상 수업외 배아령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구병시식 천도 및 제령
- 적용대상 : 스님, 법사, 상담가, 기공수련가(수업을 끝마치신 많은 분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 특강일시 : 4월 2째주, 4째주

2002년 12월11일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조카딸 유괴 살해 암매장 사건"을
단 한번의 파동명상으로 해결하다.

◆ 수업에 참가하신 많은 스님들이 영가천도 및 제령부분에서 영가 또는 빙의령과 직접 대화가 이루어져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 십 수년씩 기공 공부를 하신 분들이 수업을 끝내고 난 후 지금까지 채울 수 없었던 영적 부분을 정리하고 완성 시킬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 뛰어난 영매자들이 수업을 참관하고 난 뒤 자신의 보호령과 몸주신, 기타의 영적존재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질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동 방 명 상 전 생 연 구 소

◈ 문 의 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착하게 사세요"

어린이 포교 앞장

이 수 익 법사 가족

"헬로우 에브리 원?"

"지난 시간에 배운 영어 노래 한 번 해볼까요?"

"더 모어 위 겟 투게더(the more we get together)~"

3월 22일 서울 광진구 자양2동에 있는 불림회 자양포교원. 불상이 모셔진 법당에는 아이들의 노래소리와 웃음 소리가 뒤엉켜 왁자지껄 떠들썩했다.

이날은 영어공부가 있는 날. 양다설(12) 어린이 엄마인 김민정(37) 보살의 지도아래 아이들이 영어 노래를 배우고 있었다. 노래를 불러보고 싶은 아이들은 법단 앞으로 나와 마이크로 독창을 한다. '영어 교사' 김민정 선생은 틀린 부분은 지적해주고 영어 단어의 뜻을 반복해서 외우도록 한다.





▲3월 22일 일요 어린이법회에서 아이들, 자모회 회원들과 자리를 함께한 자양포교원 가족들. 뒷줄 왼쪽부터 딸 소현, 이수익 법사, 아들 원규 씨.

◀합장하고 있는 자양포교원 새싹불자들.

오후 3시 정기 어린이법회 시간. 자양포교원 원장 이수익(53) 법사가 법회에 앞서 입정을 시키자 떠들던 아이들이 살포시 눈을 감는다. 삼귀의가 끝나자 이 법사가 삼보(三寶)의 뜻을 쉽게 설명한다. "여러분, 부처님과 그 분의 가르침, 스님 이 세가지 보배를 항상 생각하고 착하게 살아야지요." "네에~."

길지 않은 법사님의 법문을 듣는데도 아이들은 잠시도 가만 있지 못한다. 장난을 치고 딴 짓을 피우기 일쑤. 그럴 때마다 법사님은 만면에 웃음을 띠고 꿀밤을 준다.

다시 법회가 이어지고 석가모니불 정근, 발원문 및 어린이5계 낭독이 진행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친구들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스님과 부모님 말씀 어기지 않고 잘 듣겠습니다."

사홍서원과 산회가로 법회가 끝나자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들이 빵을 나눠준다. 빵을 받는 어린이들은 감사의 합장을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뜻을 담은 공양게를 외운다.

빵을 맛있게 먹은 후 아이들은 이소현(23) 지도교사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찬불가를 배운다. 4월 13일 열리는 서울불청 주최 어린이 찬불가대회에 나갈 예정이라 더욱 열심히 부른다. 아이들은 한명씩, 또는 2~3명씩 법단 앞으로 나가 마이크를 잡는다. 나머지 아이들은 따라부르며 손뼉을 친다. 양다설(12), 다미(9), 다인(6) 자매는 이날따라 영어교사인 엄마가 있어서인지 자청해서 화음을 맞춰 본다.

찬불가 · 영어 · 학과공부까지…
신나는 법회 만들기 '한마음'
"어린이 외면하면 신도없는 불교 돼"

이수익 법사가 어린이 포교를 시작한 것은 99년 5월 9일 포교원 개원부터였다. 개원 전부터 동네 아이들을 모아 여름불교학교를 운영해 오던 이 법사가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어린이법회를 상설화한 것이다. 89년에 조계종 포교사가 된 이 법사는 직장생활 틈틈이 포교에 나서 무진장 스님을 모시고 도반들과 국청회를 창립하는 등 활발한 신행을 펼쳐왔다. 포교 일선에서 신행을 하다보니 걱정이 점점 자랐다. 부처님 품안에서 뛰어 놀 어린이들이 눈을 씻고 찾아도 없었다.

그러나 사찰과 스님들은 무관심했다. 어린이 포교의 상황이 심각함을 절감한 이 법사는 이 때부터 새싹 불자 양성에 나서기로 원력을 세웠다.

이런 원력을 세운 후 자양포교원에서 키워낸 새싹 불자가 자라나 이제 어엿한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되었다.

그렇다면 어린이 및 청소년 포교의 현황은 어떻게 변해있을까. 그 대답은 한 마디로 '점점 더 심각하다'는 것. 대부분의 사찰들은 손길이 많이 가는 어린이법회를 포기하는 대신 유치원을 만들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과외공부나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다 보니 절에 잘 오지 않는다. '전멸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가 2002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린이법회를 실시하고 있는 조계종 사찰은 215개, 지도자 수는 780명, 어린이 수는 7,600여명이었다. 4백만이 넘는 초등학생중 어린이 법회 참석 인원이 1만 명(0.25%)도 되지 못하는 것이 어린이포교의 현주소다.

이수익 법사는 지난 80년대 중반 붐을 이루었던 어린이법회 운영사찰의 감소를 "종단과 스님들의 무관심, 지도자 양성 소홀, 출판 음악 등 문화 콘텐츠 개발에 대한 관심부족 등 총체적 부실이 부른 결과"로 진단했다. 특히 어린이지도자 양성 소홀은 2년 미만의 경력자가 61%에 이르는 결과를 불러 어린이포교 원동력이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이수익 법사는 20~30명이 참석하는 일요 어린이법회에서, 단조로움을 싫어하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키워주기 위해 음악, 국어, 미술, 영어, 에어로빅 등 매주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왔다. 다섯 명의 지도교사가 필요하다 보니 아들 원규(27, 명지전문대 문창과)씨는 국어를, 딸 소현(23) 씨는 음악을 맡아 지도하고 자모회 회원들이 나머지 과목을 맡았다.

이수익 법사와 아들 원규, 딸 소현씨는 어린이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회의 교사대학을 졸업했다. 내년에는 부인 손타순(50) 보살도 교사대학에 입학할 예정이다. 온가족이 어린이포교 현장에 나선 셈이다. 그 자신 어린이법회 출신인 원규, 소현씨는 한목소리로 불교계의 관심을 호소한다.

"어린이법회야말로 교세 확장의 근본이며 미래불교를 위한 초석임을 인식해야 해요. 돈만 들고 당장 거둘 것이 없다 하여 등한시한다면 나중에는 '신도 없는 불교'가 되고 말겁니다."



◇어려운 포교여건에서도 주위의 귀감이 되는 어린이법회를 열고 있는 자양포교원장 이수익 법사.

이날 지난해 말 경기도 파주로 이사간 차명자(37) 보살은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에서 김윤정(9), 혜림(5), 민혁(4)이를 이곳 포교원으로 데려 왔다. 학부모들이 열성적으로 자녀들을 법회에 빠짐없이 보내는데는 이유가 있었다. 불교 공부와 찬불가는 물론 레크리에이션, 과외 공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잘못했을 때 야단치기보다 인과법문으로 스스로 깨닫해 아이들이 불교에 대한 자부심과 올바른 정서를 갖고 자라나기 때문이다.

이는 열악한 포교자원에도 불구하고 이수익 법사가 보람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이들이 만해백일장이나 부처님그리기 대회, 찬불가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많이 받아 올 때도 즐겁지만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합니다. 부처님 품에서 마음껏 뛰놀다 보면 누구나 '가장 인간다운 인간'으로 자랍니다. 물론 학부모들이 저절로 불자가 되는 것은 덤으로 오는 기쁨이죠."

글=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사진= 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자비의 등 지혜의 등"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팔모주름등



보관상태

팔모조립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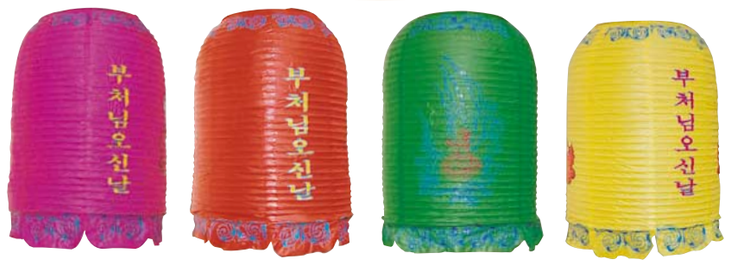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실용신안 등록 의장출원

종 등



만월등



※ 연등에 사찰이름을 인쇄할 경우 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소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릴레이 수행일기



김혜경

부산 주례여중 교장

오랜 교직생활 중 수많은 시간들을 이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인성지도, 생활지도를 하였지만 학생지도에 있어서는 갈수록 어려워짐을 느낀다.

학생들이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스스로의 존재를 모르고 있지 않을까 하는 화두(話頭)에 몰입해 있을 때, 학교로 날아온 교원직무연수 신청서 한 장이 내 삶과 가치관을 바꾸어 준 계기가 되었다.

우곡선원 연수, 삶 가치관 바꾸는 계기

불교 통해 청소년 인성교육 가능성 확인

우선 나 자신부터 변하고자 계미년 정월 우곡선원의 교원 심성개발 직무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3일간의 짧은 연수였지만 심성개발 교육을 받고 난 후의 내 마음은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뒤흔들렸고 반면 희망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교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지만 오로지 지식과 기술 습득으로 내 삶을 좀 더 잘나고 보다 나은 개인적 삶을 살기 위한 소아적인 입장을 취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우곡선원에서 시행한 교원 심성개발 직무연수는 참가한 첫 날부터가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교원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의식 작용의 허구성, 지식과 관념의 실체, 인류를 구원하는 지혜-선(禪) 등의 강의 내용을 들으며 점점 내 내부세계를 관조해 나갔다.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알지 못하고 무관심 할 수 있었던가를 느끼며 그 동안 아이들을 향해 인성교육을 부르짖던 교육자로써 말못할 회한이 밀려왔다.

'순수는 만상과 통하지 않음이 없다'라는 불법(佛法)의 이치를 올바로 알지 못한 나 자신의 마음을 깨달으려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만 끊임없이 요구하지 않았는지. 바라고 따라주기만을 원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존재와 나'의 재발견 심성개발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인성개발 교육 및 생활 지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

우곡선원의 심성개발 직무연수를 마친 후 우리 교원들부터 마음공부를 다시 시작하여 사회와 학교에 회향하고자 교직에 종사하는 몇몇 불자님들이 뜻을 모아 교육지도자 불자모임을 결성하였다. 그 동안 고민하고 갈등해왔던 인성교육에 대한 올바른 길이 불교 가르침 속에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토록 헤매왔던 지난 시간들이 안타깝다.

교원 직무연수 인연으로 시작된 우곡선원의 참선수행을 접한 이후 순수의 힘은 그 어떤 체벌이나 꾸중보다도 더 원대한 교육의 씨앗이며 포용력임을 깨달아 가고 있다. 우곡선원 법회에 나가 들었던 법문 한 구절이 생각난다. "무지(無知)도 업(業)이다"

그 동안 나는 시대의 요구와 현실적 교육 방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지은 업은 얼마인가. 또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얼마나 자만하며 살아왔던가. 이러한 지난 삶들을 돌아보니 하루라도 마음 닦아 가는 수행을 게을리 할 수 없다는 책임감이 따른다.

참선수행이 내 가치관과 삶을 바꿔 놓았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학교 교육발전과 청소년 인성개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확신한다.



◇간경은 부처님 법신과 하나되는 수행법으로 경전의 내용을 마음으로 읽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3월21일 서울 견지동 보림회 강의실의 교육 장면.

읽고 깨달아 실상 바로보기

지극히 독송하면 부처님의 뜻 절로 드러나

"삼독 여의고 진실한 마음 얻기위해 읽어야"

"어디서든지 이 경을 설하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쓰거나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마땅히 칠보로써 탑을 쌓되 지극히 높고 넓고 장엄하게 꾸밀 것이요. 또 다시 사리를 봉안하지 말아라. 이 가운데는 이미 여래의 전신(全身)이 있는 까닭이다."

3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견지동 신안빌딩 302호 대한불교보림회의 강의실. 보림회 회장인 성상현(69) 법사가 <법화경> 촉루품(囑累品)을 강의하는 도중 경전자체가 '법신사리(法身舍利)'임을 거듭 강조한다.

아함경, 능엄경, 원각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열반경 등 7보(寶) 경전을 모두 외워서 해설하는 성상현 법사의 강의는 단순히 경전의 내용을 아는데 머물지 않고, 읽고 외운 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 가르침 그대로 행하는 '여설수행(如說修行)'을 강조하는데 있다. 그래서인지 강의도중에 중요한 용어가 나오면 수행과 결부시켜 자세히 설명한다. "묘법연화경의 골수는 상불경보살품에서 나와요. 진실로 자기를 낮추는 상불경보살의 마음으로부터 상(相)을 여읜 마음공부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법화경의 원문을 하나하나 대조해 가며 뜻을 새기는 수강생들의 평균 연령은 50대. 연륜만큼이나 다양한 수행을 해 본 이들은 '경중의 왕'이라는 법화경의 깊은 뜻을 절감하고 다시금 발심하는 얼굴 빛이 역력하다.

지난해 초 보림회 회원들과 수강생들은 성 법사의 강의를 듣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자체 강의실을 마련했다. 경전의 바른 뜻을 알고 하는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뼈저리게 겪은 수행자들인 만큼 이만한 원력은 당연하다는 반응이었다.

14년 동안 성상현 법사로부터 7보 경전을 차례로 공부한 최기숙(66, 구기동) 보살은 "경전을 오래 수지독송 하다보면 부처님의 깊은 뜻이 저절로 드러나 수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며 매일 108배, 능엄주력, 법화경 사경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림회 회원들은 최 보살처럼 각기 나름의 방편을 병행하며 간경 수행을 하고 있다. 염불 참선과 함께 3대 방편문의 하나인 간경(看經)은 단순히 글을 아는데 머물지 않고 생활을 통해 그 말씀이 몸과 마음에 젖어들게 하는 수행이기 때문이다. 보림회 회원들은 열 가지 간경의 방법을 열거한 <중변불변론 무상승품>의 '십종수지'(十種受持) 또는 '십종전통'(十種傳通)의 방편중 한 두 개를 택해 수행하고 있었다.

어떤 회원들은 쓰고 베끼거나 공양하고 법보시를 즐겨 한다. 집에서는 스스로 경전을 읽고 독송하고 법회에 나와서는 다른 이가 읽고 외는 것을 한 마음으로 듣는다. 좀더 공부가 무르익은 이들은 경전의 심오한 뜻을 새기고, 아는 만큼만 남에게 설명하기도 한다. 바른 마음으로 듣고 외운 회원들은 조용하게 실상(實相)을 보는 수행을 하고, 지혜가 생길 수록 남모르게 닦아서 익히고 있었다.

회원들은 공부를 할 수록 경전은 단순한 책이 아님을 실감한다. "부처님의 현신(現身)이나 다름없는 경전을 외면하고 어떻게 도에 이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중국 선종의 초조 달마 대사가 <능가경>을 애독했고, 5조 홍인 스님은 <능가경>과 <금강반야경>을 소의로 해서 종풍을 떨쳤으며, 6조 혜능 스님은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이란 경문을 보고 깨친 사실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절감한다.

보림회 실장 이완희(37) 포교사는 "경전을 읽을 때는 부처님의 진실한 마음을 얻고자 해야지 알음알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 읽어서는 안된다"며 "스스로의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三毒)을 버리고 실상(實相)을 찾는 마음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림회 간경법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45분(능엄경), 금요일 오후 2시(법화경) 열린다. (02)739-1044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주제가 있는 수행현장

대한불교 보림회의 '간경'

새기고 몸소 실천해 깊은 뜻 스스로 체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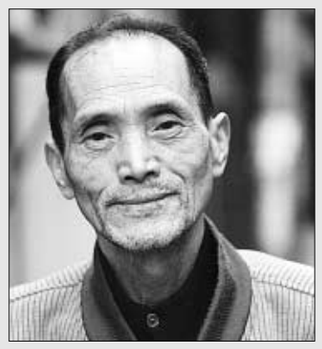
"지식을 쫓아 헐떡이는 마음을 쉬고 '사구게(四句偈)' 하나라도 마음 깊이 새기고 몸소 실천하여 깊은 뜻을 스스로 체득하는 게 참된 간경 수행입니다."

보림회 회장 성상현(69) 법사는 수행을 위한 간경을 특히 '전경(轉經)'이라고 하여 법을 굴린다고 하는데, 경전을 읽고 그 뜻을 마음으로 깨달으면 경을 굴리는 것이 된다고 강조한다.

성 법사는 간경은 경전을 읽고, 듣고, 옮겨 쓰는 등 여러 방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두루 익힘으로써, 오직 자신의 성품 즉 실상(實相)을 밝히는 길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한다.

성 법사는 선종의 오래된 '불립문자'의 풍토와 관련,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지금 부처님을 친견하고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것이니 어찌 허물이 되겠는가"라며 "허물이 있다면 학인이 지혜로써 보지 않고 생각으로 분별하고 지식 쌓기에만 급급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병무청에서 근무하던 성 법사는 40대 초반, 원인모를 병에 걸려 죽음 일보직전까지 갔다가 한 스님이 건네준 금강경을 보고 외운 후 경전을 공부하게 됐다. 이후 불과 몇년만에 7보 경전을 모두 암송할 정도로 경에 통달한 성 법사는 25년 동안 스님과 재가자를 위해 경전강의를 계속하고 있다.



보림회 성상현 회장

수행 캘린더

■삼보회 경전강좌=서울 삼보회는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경전 강의를 한다. 첫째 일요일 법구경(박경준 동국대 교수), 둘째 일요일 화엄경 십지품(종범 스님), 셋째 일요일 달마대사의 이입사행론(송찬우 중앙승가대 교수), 넷째 일요일 사십이장경(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장). (02)913-2859

■아비담마 특강=초기불전연구원은 4월 29일부터 7월 15일까지 매주 화 오후 7시~8시30분 근본도량인 서울 총제1동 수미정사에서 '아비담마 길라잡이 특강법회'를 연다. 4월 29일 초기불교개설1(4성제를 중심으로), 5월 6일 초기불교개설2(37조도품을 중심으로), (02)391-8579

■심념처(心念處) 수행=서울 강남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매주 화, 목요일 오후 2시~5시 30분 마음을 알아차리는 '심념처(心念處)' 수행을 한다. (02)3462-4932

■초발심자경문 강좌=광주 광륵사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12시 <초발심자경문>을 중심으로 불교적 체계적 이해를 돕는 강좌를 연다. 광륵사는 매주 금 오전 10시(초급), 매주 금 오후 7시(중급), 매주 토 오전 10시 및 오후 6시(중급)에 위빠사나 강좌도 연다. (062)222-7801

■아함경 읽기=현대불교사회문화원은 매달 둘, 넷째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인사동 동일빌딩 603호에서 '아함경 읽기' 무료 강좌를 연다. 강사는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02)736-6940

■관(觀) 수련회=경북 영양 연화사는 4월 19~25일(6박7일), 5월 3~7일 '관(觀) 수련회'를 연다. 정기 주말 수련회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1시까지 열린다. (054)682-7770

■아비라 기도=경남 산청 길상선사는 매월 둘째주 토 오전 10시~일 오전 10시(아비라 20회 독송), 매월 셋째 토 오후 8시~일 오전 8시(아비라 8회), 매월 넷째 토 오후 8시~일 오전 8시(아비라 8회)에 아비라 기도법회를 갖는다. (055)973-6861

■경주 남산 구도순례=서울 향천선원은 4월 26~27일 경주 남산 칠불암에서 부처골까지 명상처를 찾아 수행정진하는 구도순례를 봉행한다. (02)2254-3171

大韓佛教全國山岳人聯合會 임원 초빙 공고

조직 확대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신심 깊은 인사(남, 녀)를 임원으로 초빙합니다.

● 부총재 : 0명 ● 이사 : 00명

1. 연 혁

본 연합회는 1997년 6월 1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宋月珠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큰 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창립대법회를 봉행한 바 있고, 동년 10월 3일 개천절에 경북 안동에 있는 약산 홍은사(본회 지정수행도량)에서 3,000여명의 회원이 모여 총 발대식을 봉행하였습니다.

2. 사업목적

본 연합회는 종단과 종파, 지역과 계층을 초월하여 성지순례를 통한 산림법회, 자연환경 보호는 물론 불교문화 창달과 보전을 목적으로 창립된 순수 산행 불교단체입니다.

3. 연합회 구성

顧 問

김법장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 당연직)
송월주 (前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이운산 (태고종 총무원장 스님)
이홍파 (관음종 총무원장 스님)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박봉식 (前 서울대학교 총장, 現 금강불교대학교 총장)
송석구 (前 동국대학교 총장)
정인악 (前 연합회 총재, (주)남양회장)

諮問委員 세계언론사 대표 위촉
名譽總裁 손현수 (경영학 박사, 대현그룹 회장)
總裁 김정길 ((주) 삼원개발 회장)
副總裁 한계수 外 수명
監事 이돈종
理事 경봉수 外 수명
事務總長 김대원

- **支會 및 단위 산악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 道 지회와 40여 단위 산악회 활동 중
- **현 정회위원 :** 약 3만여명

※ 향후 수십여만명의 정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중앙신도회관 4층 전화 02)735-1108, 011-9739-9505. 팩스 733-7278**

大韓佛教全國山岳人聯合會 總裁 金 正 吉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주문가능)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금 색) /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동 색) /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칠 보) / 내호함 (도자기) / 연꽃문양 기본사이즈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은 평안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납골추모함은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은 물론 참배까지 쾌적하게 해주는 현재와 미래의 장례문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함을 같은 장소에 많이 모셨을 경우 납골함 자체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붕괴의 우려가 있으며, 오래된 유골에서는 강한 악취가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화사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 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탑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서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탑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램입니다.

새로운 납골추모함이 이러한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랜 연구 끝에 제작 출시 되었습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안전성과 청결성을 갖춘 납골추모함으로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히 모실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이 화 사 ☎ 02)392-092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5-2 GS빌딩

군인들 건강 '따끔하게' 지켜요!

바라밀현장

수효사 공덕회 '따주기 봉사'



◇23일 강원도 철원의 3사단 신병교육대 법당에서 공덕회 회원들이 군인들에게 따주기를 해주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아야! 너무 아픕니다."

"훈련받는 것 보다 아파요? 이렇게 따주면 금방 나으니까 조금만 참아요."

따주기 한 자리에서 검은 피가 흘러내리자 걱정스런 표정을 짓는 문국환(21) 훈련병에게 봉사자 김선자(46) 씨가 "따주기 한 자리는 3시간 동안 물을 묻히지 말라"고 당부한다.

23일 오후 10시 강원도 철원군에 자리 잡은 3사단 신병교육대 법당 보림사에서는 '따주기 봉사'가 한창이다. 어머니 같은 봉사자들에게 손바닥을 맡긴 채 엄살을 피우던 군인들의 얼굴에 금세 웃음이 번진다. "어, 신기하네. 답답하던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매주 넷째 주 일요일이면 군법당을 찾아 따주기 봉사를 하고 있는 서울 수효사 따주기 공덕회(회장 정유진) 회원들. 이날도 40여 봉사자들이 한 시간에 걸쳐 따주기를 했다. "군인들이 흔히 앓는 허리 통증과 소화불량, 무좀, 우울증 등도 따주기로 치료할 수 있다"는 안순자 씨는 "아들 같은 군인들의 병도 치료해주고 조금씩이나마 간식도 제공하니 군포교에 일조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한다. 15년 째 철원, 화천, 파주 등 전국의 군법당을 찾아다니며 봉사와 간식공양을 하고 있으니, 공덕회의 활동은 '군포교'와 다름없다.

'따주기'란 체할 때 손가락 끝을 따주는 것과 같이 '삼릉침(끝이 삼각형으로 갈라진 침)'을 이용해 신체의 각 부위에 해당하는 손바닥을 자극해 피의 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간단한 질병을 치료하는 민간요법. 입적한 성훈 스님이 민간요법인 '따주기'를 연구해 체계화 한 '성훈따주기'는 이제 무구 스님(서울 수효사 주지)이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대구 보현사와 서울 수효사에서 따주기 강좌를 열고 있는 스님은 "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활동도 할 수 있으니 일석삼조 쯤 된다"고 설명한다.

따주기는 수효사와 보현사에서 열리는 3개월 과정의 강의를 들으면 기초적인 것은 모두 배울 수 있다. 강의를 이수한 사람들 중 공덕회 회원으로 가입하면 봉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현재 수효사 따주기 공덕회에는 200여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은 매주 화요일에는 수효사 약사전에서 일반인을, 셋째 주 금요일이면 서대문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따주기를 한다. 또 넷째 주 일요일이면 군법당을 방문하며, 각 지역별로 '1사찰 1부대 결연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장애아동시설인 상락원을 방문하는 공덕회 회원들은 마음만 맞으면 언제든지 삼릉침을 챙겨들고 소쩍새마을 등의 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이러한 봉사활동에 드는 비용은 회원들의 회비와 봉사자들의 보시로 충당하고 있다.

6년째 따주기 봉사를 하고 있는 장화숙(70)씨는 "따주기는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방법이다"며 "언제 어디서든 삼릉침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걱정이 없다"고 말한다. 공덕회는 앞으로 더 많은 군법당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따주기 봉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을 맺어주고 싶다"는 무구 스님은 "더 많은 불자들이 따주기 봉사를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계좌: 조흥은행 359-06-270726 김동금 (02)313-3060

철원=여수령 기자

15년간 봉사, 간식공양 등 군포교에 일조

군법당 방문 '1사찰 1부대 결연운동'도



공덕회 김문수행 보살

"봉사도 하고 건강도 지켜요"

"따주기는 누구든 쉽게 배워 내 건강도 지키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따주기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지만, 지금은 수녀님 목사님 등 종교를 가리지 않고 매 학기 80여 명이 수강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공덕회가 봉사활동을 나갈 때면 군법당과 연락해 인원을 파악하고 법보시 받은 책과 염주, 간식 등 필요한 물품들을 꼼꼼히 챙기는 김문수행(58) 보살. 그는 벌써 13년 째 따주기 봉사를 하고 있는 '공덕회의 큰언니'다.

20년 전 심각한 저혈압을 앓았던 문수행 보살은 성훈 스님을 만나 따주기로 병을 치유했고, 그 인연으로 공덕회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그는 따주기 강좌 회원을 관리하고 봉사활동을 준비하는 일을 맡고 있다.

현장 경험이 많다보니 그만의 '따주기 노하우'도 쌓았고, 봉사활동 준비도 척척 해내는 문수행 보살은 "인생의 황혼기를 따주기 봉사로 회향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보람차다"고 말한다.

心 마음비추기

'나'를 버려야 큰 자유 찾아와

A거사는 부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성격이 아주 급하고 과격한 분이었다.

거기다 매사에 간섭도 많아서 식구들은 물론 주변의 사람들을 편하게 놔두지 않았다.

부인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면 아무데서나 폭언이 나오고 손이 올라갔다.

A거사는 젊은 시절 골수염을 앓아 다리를 몹시 저는 장애인이었다.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말참견을 하고 주장을 세우는데 보고 넘기기가 힘들 정도였다. 부인은 항상 이런 남편의 성격을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애틋한 마음으로 감싸면서 부처님을 향해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어서 남편이 부처님께 귀의하여 마음을 항복받고 편안하게 살도록 해달라고 하였다.

부인의 이런 정성은 헛되지 않았다. 부동산에 투자를 한 것이 크게 실패한 것이 계기가 되어 부인을 따라 절에 다니다 발심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스님이 일러주는 수행법을 받은 다음 열심히 정진하였다. 어찌나 마음공부와 수행에 힘쓰던지 스님의 법문을 녹음하여 하루 종일 틀어놓고 심지어 잘 때도 그것을 틀어놓는가 하면, 새벽마다 앉아서 좌선을 했다. 그렇게 한 일년 했을까, 거사님은 특히, 입으로 지은 업이 많다고 여기고 묵언을 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묵언을 하는 거사님께 어떤 체험이 찾아왔다.

어느 날 집으로 가기위해 버스에 올라 토큰을 집어넣었는데 운전기사가 잘못알고 요금을 내지 않았다고 나무라는 것이었다.

거사님은 손으로 토큰을 넣는 시늉을 했다. 그러나 운전기사는 눈을 부라렸고 이젠 벙어리 흉내까지 내느냐고 비난을 했다.

거사님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 자신도 모르게 울컥하는 마음과 함께 화가 치미는 순간이었다.

이 때, 이러한 거사님의 마음을 크게 때리는 마음 하나가 더 있었다.

바로 수행방법으로 삼고 늘상 암송하던 그 마음이었다.

거사님은 충격을 받았다. 토큰 하나를 더 집어넣고 마음을 추슬러 집에 돌아온 거사님은 앉아서 확인하였다.

그것은 자기가 얼마나 두터운 '나'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 왔는가를, 그리고 그 '나'라는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업을 지으면서 남들을 고통스럽게 했는가를.

그 뒤로 거사님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이 무엇인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고 '나'가 없는 마음이 주는 자유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어렴풋이 짐작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적연(유마선원장)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성일 법사 (上)

세계에 한국 선불교 전파

"붙잡는 것은 쓸 데 없고, 거절은 고통스런 일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다루듯 가볍고도 친절하게 (마음을) 돌보세요. 너무 느슨하지도, 꼭 조이지도 말고…"

('깨달음을 향한 느긋한 안내' 중에서)

성일(Martine Batchelor) 법사는 1953년 프랑스에서 태어났다. 사회주의 사상에 매료돼 학생운동을 하다가 18세 때 우연히 <법구경>을 접했는데,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줄 모르는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는 가르침에 충격을 받았던 것.

"나의 분노도 다스릴 줄 모르는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을까?"

그녀는 나름대로 명상을 배우다가



◇성일 법사

구산선사 저서번역등
비구니에 대한 기록 남겨
85년 환속 후도 계속 전법

21세에 아시아로 여행을 다니던 중 태국에 잠시 머물다 한국의 한 비구니 스님을 만났다. 참선을 배울 수 있다는 말에 74년 무조건 한국으로 왔다. 그러나 그녀가 출가를 결심한 것은 1년 뒤였다. 한 보살이 "남편과 애들이 없어 자유로울 때 출가의 길을 걸어보라"는 권유에 수긍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드디어 75년 출가해 마르티네라는 이름을 버리고 '성일'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송광사에서 하루 10시간의 참선을 하며 선종을 공부한 성일 법사는 송광사 조계종립 초대방장 구산(1909~1983년) 선사의 자상한 가르침을 받을 때가 가장 완벽한 수행의 시기였다고 회고한다.

구산 선사는 희미해져가던 호남지방의 불교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고려 보조국사 이래 연면히 계승되어온 송광사 승보도량의 면모를 새롭게 확립한 선지식이었다. 구산 선사의 지도 아래 참선과 경전 공부에 밤낮없이 정진 한 덕에 그녀는 5년만에 한글과 한문을 읽게 되었고 통역까지 가능할 정도로 한국어에 능통하게 되었다. 85년까지 송광사에서 공부하고 대만과 일본 비구니 사원에서 참선하기도 했다.

81년 구산 선사의 통역을 맡은 성일 스님은 미국과 유럽으로 전법여행에 나선 구산 선사를 동행하기도 했다. 구산 선사는 1982년(당시 74세) 제3차 미주순방 끝에 유럽쪽으로 발길을 돌려 7월에 스위스 제네바에 불승사를 개원하고 10월에는 미국 카멜에 대각사를 개원하기에 이른다. 스님은 70노구를 이끌고 동분서주,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펼치기위해 과로를 무릅쓰고 헌신한 결과, 송광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제선원을 개설하여 한국불교를 해외에 알리는 창구 기능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성일 스님은 구산 선사의 저서인 <한국의 선불교(The Way of Korean Zen)>를 번역했으며, 한국 비구니 수좌들에 대한 적지 않은 기록물을 남겼다.

그러나 성일 법사는 85년 환속, 송광사에서 함께 공부하던 스티븐 배철러(법천, Stephen Batchelor)와 유럽으로 돌아와 결혼했다. 영국 드본시에서 6년간 샤르팸 재가불자회 멤버로 활동한 그녀는 영국의 가이아 하우스와 여러 불교단체에서 강연하거나 불교 상담가로 활약했다. 그녀는 또한 종교간 대화에도 깊이 관여했으며, 최근까지도 그녀는 국제종교문학협회 고문으로 활동했다.

92년 <불교와 생태학(Buddhism and Ecology)>을, 96년에는 2001년 <여성 불교 입문(A Women's Guide to Buddhism)>으로 재발간된 <연꽃 밟으며 걷기(Walking on Lotus Flowers)>를 출간했다. 또 <선의 원리(Principles of Zen)>, <명상의 삶(Mediation for Life)>를 썼다.

현재 성일 법사는 프랑스를 거점으로 남편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 명상 수련회를 갖고 있다.

프랑스어, 영어, 한국어를 말하고 한자를 읽을 수 있는 그녀는 많은 잡지에 한국의 선차와 여성 불교, 불교와 생태학, 사찰 음식 등에 대해 기고하고 있다. 관심 분야는 일상 생활 속 명상, 불교와 사회적 행위, 종교와 여성문제, 참선과 선종사, 역사와 전설 등 광범위하다.(계속)

김재경 기자

봉 부처님 오신날 1만등 불사 및 천도재 행

◆입 재 : 3월 21일 금요일 (음력 2월 19일) ◆회 향 : 5월 8일 목요일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날 49일 기도 기간중 천도재와 매주 일요일은 칠칠재 영가시식을 봉행 합니다.
부처님오신날 1만등은 1인 1등을 원칙으로 1만원에 신청을 받고 있으며,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영가등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대작불사 대원력을 세워 1000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환희심을 발휘하여 본인의 원력에 따라 성취를 이루고 싶은 분들은 동참하시어 뜻하신 바 모두를 이루십시오.

1000일동안 기도를 하시면서 동참비 1인 1일 1000원씩 모아서 직접 시주하셔도 되고 온라인입금도 가능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1인 100만원을 일괄 시주 동참하고 1000일동안 기도정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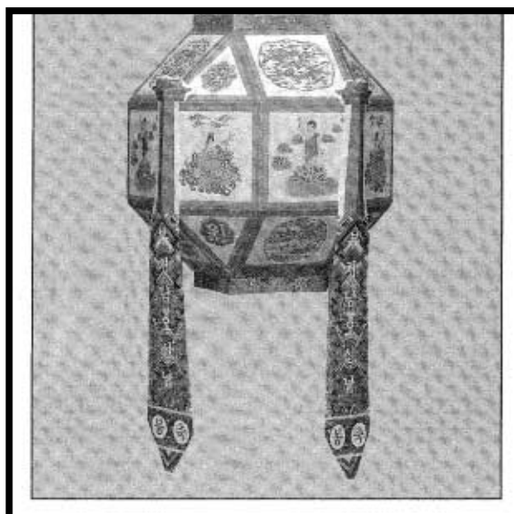
1000일 기도 동참비 입금계좌
• 국민은행 : 267-24-0016-901
• 농 협 : 201058-52-003260
• 예 금 주 : 박경자

•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기도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철야정진기도 후 산에서 보는 일출이 장관입니다.
• 일요일 법회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차량운행시간표
▶ 철야기도 : 토요일 밤 10시 10분
구파발역 환승주차장 앞 출발
→ 장흥농협 앞 밤 10시 30분
▶ 일요법회 : 일요일 오전 10시 10분
구파발역 환승주차장 앞 출발
→ 장흥농협 앞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석현리 산 126번지
전화번호 : 031)855-5501, 3
팩 스 : 031)855-5502

대한불교조계종 대 원 정 사 주지 석해련 합장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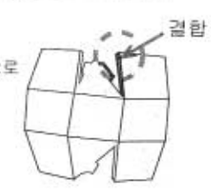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날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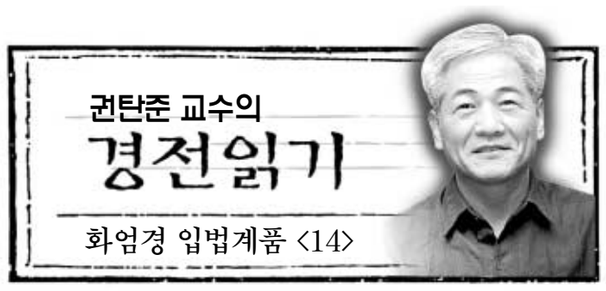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현우기획
전화 : 02)467-1513 핸드폰 : (016)552-9360



선재동자의 참회와 발원

진실한 법 구해 깨달음의 삶 살 것 기원

"모든 중생 이익 주는 수레 타게 하소서"

사리불을 따라온 6천 비구들에게 보살심을 확고하게 심어 주고 그들에게 권하여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부처님께서 성취하신 최고의 완전한 깨달음을 몸소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 후, 남쪽으로 나아가던 문수보살은 복성(福城)의 동쪽에 있는 장엄당 사라숲에 이르렀다. 이곳은 옛적에 부처님들이 계시면서 중생을 교화하던 곳이며, 세존께서도 과거에 보살행을 닦으시던 곳이다. 문수보살이 이곳에서 '법계를 두루 비추는 경'을 설하니 무수한 중생들이 불도를 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복성으로부터 무수한 대중이 몰려왔는데, 그 가운데에 선재동자도 있었다. 문수보살은 선재동자가 과거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며 선근을 많이 심었고, 온갖 지혜를 구해 법기(法器)가 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는 선재동자와 대중들을 위해서 모든 부처님에 관한 법을 설해 그들을 기쁘게 하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내게 했다. 문수보살로부터 부처님의 여러 가지 공덕을 들은 선재동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구하며 다음의 게송을 설한다.

삼계는 생사의 성곽이 되고/ 교만한 마음은 담장이 되며/ 윤회의 여러 길은 문이 되고/ 애욕의 물은 못이 되었네// 어리석은 어둠에 덮이어/ 탐욕과 성내는 불이 치성하니/ 마왕은 임금이 되어/ 어리석고 몽매한 사람들이 그것에 의지해 있고// 탐심과 애욕은 묶는 노끈이요/ 아첨과 속이는 일 고삐가 되며/ 의혹이 눈을 가리어/ 삿된 길로 나아가게 하네// 간탐과 질투와 교만이 많아/ 삼악도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나쁜 길에 떨어지면/ 나도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로다// 묘한 지혜 청정한 해님의/ 가엾이 여기는 원만한 바퀴/ 번뇌의 바다 말리시나니/ 바라건대 나를 살펴 주소서// 묘한 지혜 청정한 달님의/ 인자하고 때 없는 바퀴/ 모든 이를 안락케 하시니/ 바라건대 나를 비춰 주소서// 온갖 법계의 왕이시여/ 법보로 길잡이 삼아/ 걸림이 없이 허공에 다니시니/ 바라건대 나를 가르쳐 주소서// …… 참는 갑옷 입으시고/ 손에는 지혜의 검을 들어/ 마군을 자재하게 항복받으시니/ 바라건대 나를 구제하소서// …… 삼계의 생사 범부의 집이요/ 의혹과 짓는 업 여러 길의 원인/ 보살께서 모두 조복시키시니/ 등불처럼 나의 길을 비춰 주소서// 여러 나쁜 길 여의시고/ 모든 착한 길 깨끗하게 하여/ 세간을 초월하신 이시니/ 해탈의 문을 보여 주소서// …… 부처님의 바른 소견에 머물고/ 부처님의 공덕나무 기르며/ 부처님 법의 묘한 꽃비 내리시니/ 보리의 길을 보여 주소서// …… 온갖 업 잘 아시고/ 여러 승(乘)의 수행을 통달하시니/ 결정한 지혜 가지신 이여/ 마하연 [大乘] 길을 보여 주소서// 서원은 바퀴, 자비는 속바퀴/ 신심의 굴대[軸] 참는 건 굴대빗장[轄] 공덕보배로 잘 꾸미시니/ 그 수레에 나를 태워 주소서// …… 보시하는 바퀴 항상 굴리며/ 깨끗한 계율의 향을 바르고/ 인욕으로 굳게 꾸미었으니/ 그 수레에 나를 타게 하소서// 선정과 삼매는 수레방이요/ 지혜와 방편은 멍에가 되어/ 물러가지 않도록 조복시키나니/ 그 수레에 나를 타게 하소서// 큰 서원은 청정한 바퀴/ 다 지니는 견고한 힘/ 지혜로 이루어졌나니/ 그 수레에 나를 타게하소서// 보현의 행으로 두루 장식하였고/ 자비한 마음 천천히 굴려서/ 어디로 가나 겁이 없나니/ 그 수레에 나를 타게 하소서// …… 업과 번뇌를 깨끗이 하며/ 헤매는 고통 끊어버리고/ 마(魔)와 외도를 꺾어 부수니/ 그 수레에 나를 타게 하소서// 지혜는 시방에 가득하고/ 장엄은 법계에 두루하여/ 중생의 소원 만족케 하니/ 그 수레에 나를 타게 하소서// 청정하기 허공과 같아/ 애욕과 소견 없애버리고/ 모든 중생을 이익케 하나니/ 그 수레에 나를 타게 하소서// …… 네 가지로 거둬주는 원만한 바퀴/ 다 지니는 청정한 광명/ 이와 같은 지혜의 해를/ 나로 하여금 보게 하소서// 법왕의 지위에 이미 들었고 지혜의 관을 이미 쓰셨고/ 법의 비단을 머리에 맸나니/ 바라건대 나를 돌봐 주소서//

이 게송은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의 법문을 듣고 비로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리석고 허망하여 고해에 빠진 것임을 탄식하고, 이를 깊이 참회하며 진실한 법을 구하여 깨달음 삶을 살아갈 것을 발원하면서 문수보살에게 바르게 인도해주기를 기원하는 내용이다.

어둠이 어둠을 없앨 수 없다. 빛이라야 어둠을 없앨 수 있는 것이다. 빛은 어둠을 발견하게 해주면서 또한 어둠을 없애준다. 빛에 의해 발견된 어둠의 인식과 그에 대한 반성과 부정이 어둠을 없애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회와 발원(發願)이라고 하는 종교심이다. 종교심이란 빛과 어둠이 서로 만나는 곳에서 싹트게 되는 참회를 바탕으로 한 원심(願心)인 것이다. 선재동자가 설하는 게송을 통해서 진실한 종교심이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보조지눌의 '간화결의론' ⑨

돈교논쟁 배경

선·화엄 관계설정, 종파 정체성 확립

화두가 개념과 언어적인 체계를 해체하는 기제가 된다면, 그것은 '말을 떠나고 생각을 끊는' 돈교(頓敎)와 동일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다. 법장은 <오교장(五敎章)>이나 <탐현기(探玄記)>에서 돈교를 '소승(小乘), 대승시교(大乘始敎), 대승종교(大乘終敎), 돈교, 원교(圓敎)'라는 화엄의 오교판(五敎判) 가운데 네번째에 배치하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음'이라고 정의했다. 만약 화두가 가지는 대상 부정의 기능적인 측면을 말과 생각을 끊는 돈교와 같은 종류로 파악한다면, 선문의 간화선 수행은 교학에서 말하는 돈교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질문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고려후기의 강성했던 화엄교단과 새롭게 성장한 선종과의 중요한 논쟁 과제였다. 이는 중국의 종파불교에서도 발생한 마찬가지 문제였다. 동북아 전통에서 종파불교는 경전의 역경과 더불어서 각 경전들에 보이는 교설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그들 사이의 정통성을 논쟁하면서 비롯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자신들의 사상을 확립하여 갔다. 화엄종과 선종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 화엄은 지엄(智儼, 602~668)에 의해서 하나의 학파로 독립되었다. 지엄은 뛰어난 두 제자를 배출하였다. 한 사람은 중국화엄을 체계화시킨 법장이고, 다른 한 사람은 해동화엄의 원류가 된 의상대사다. 법장(法藏, 643~712)은 측천무후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선종의 신수(神秀, 606~706)와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활약하였다.

이때 선의 남종을 대변하는 혜능(慧能, 638~713)은 조계 보림사에서 은둔하면서 선풍을 크게 선양하고 있었다. 한반도에서 널리 유행한 덕이본(德異本) <육조단경>에 의하면, 신룡(神龍) 2년(706)에 측천황후와 중종이 조서를 보내 초청했지만, 혜능은 병을 핑계로 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당조의 초청 사실이 20세기에 발견된 돈황본 <육조단경>이나 일본에서 유통된 혜흔본 <육조단경>에는 이 사실이 기록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혜능의 선풍이 널리 중원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개원(開元) 20년(732) 활대(滑臺)에서 북종 신수의 선을 점수라고 비판하고 돈오의 남종이 선의 정맥임을 강조한 신회(神會, 670~762)의 활약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당시 화엄종은 강력하게 대두하는 선종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에 분명하고, 이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들의 교판에 참고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보여진다. 화엄에서는 선을 돈교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자신들의 화엄 교판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그만큼 선종이 이미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보면 지엄과 법장 대보다는 혜원(慧苑, 673~743)과 징관(澄觀, 738~839)의 돈교논쟁을 거치면서 확립되었다. 이는 선종을 교종 안으로 포섭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화엄종에서는 내부의 교판 논쟁이었지만, 실제로 선과 화엄의 관계설정 혹은 종파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논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선의 입장에서 보면 선사상을 화엄교판 아래에 두려는 이 같은 움직임을 결코 그대로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선과 화엄의 갈등관계는 화엄의 교판론에서 비롯된 바가 크고, 돈교논쟁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선종을 화엄의 교판에 포섭하려는 이런 징관의 노력에 대해서, 선의 독자성을 확보하려는 보조(1158~1210)는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인경(禪상담연구원장)
(02-733-5311, www.seontherapy.org)



집합 무의식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사람의 마음을 분석하고 그것이 심, 의, 식이라는 3층 구조를 하고 있음을 말씀하셨다. 여기서 심(心)이란 오늘날 용어로는 집합무의식이고, 의(意)는 개인무의식이며, 식(識)은 표면의식이다.

20세기 초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프로이드는 자유 연상법이나 꿈을 분석하는 작업에서 마음의 존재를 발견하였다. 특히 주목할 일은 거의 혼자서 표면의식의 배후에 감추어진 거대한 또다른 의식층인 무의식을 발견하였다는 점이다. 프로이드 이후 프로이드의 제자이었던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칼 융은 꿈이나 환각의 내용 중에는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무의식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계의 방방곡곡을 여행하면서 각 민족의 종교와 신화를 수집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전 인류는 공통된 내용의 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는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무의식을 집합 무의식이라 불렀다. 다시 말하면 집합 무의식이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집합 무의식 내에 모두 똑같은 내용의 의식이 저장돼 있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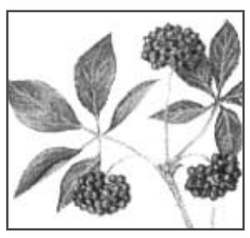
융 심리학자 빅터 만스필드는 'EPR 사고실험'을 가지고 융의 동시성을 설명한 바 있다. 1935년 아인슈타인은 동료 제자인 포돌스키와 로젠과 함께 중요한 사고실험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세 사람의 이름약자를 따서 'EPR 실험'이라고 부른다. 이 실험에서 초기 상태에서는 상호작용이 있었으나, 그 이후 서로 분리된 양자적 대상인 S1과 S2의 두 체계를 상정하였다. S1과 S2는 물론 공간상으로는 분리돼 있다. 그런데 S1에 외부의 영향력을 주어 S1을 변화시켰을 때 아무 관계도 없는 S2가 동시적으로 S1의 변화 값만큼 변한다. 이 EPR 실험이 의미하는 바는 전자(電子)와 다른 전자 사이의 정보소통에 있어서 시간의 개입이 없이도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장(field)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 EPR 실험은 순전히 사고 실험이었지만 1982년 프랑스 아스페(Aspect)의 세번에 걸친 실험에 의해 결정적으로 증명되었다. 따라서 빅터 만스필드는 우주 허공은 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장(場)에 의해 충만돼 있으며, 이 장(場)은 양자물리학적으로는 바로 양자파동이라고 했다. 융 심리학적으로는 집단무의식과 동일한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우주의 허공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집합 무의식으로 충만돼 있고 사람의 마음속에도 집합 무의식이 존재하고 있어 한 개인의 집합 무의식 내용은 인류 전체의 집합 무의식으로 전파될 수 있다고 하였다. ■충남大 의대 산부인과학

인류, 진화하면서 경험했던 기억 저장

시간 개입없이 정보 주고받는 場 존재



자연산 가시오가피뿌리!



오래전부터 한방에서는 당뇨와 혈압저하 면역촉진 스테미너 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처방되어 오고있는 가시오가피가 시중에는 엑기스류 형태의 많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고가품이라 부담스러워 그동안 망설여왔던 분들을 위하여 자연산 6년이상된 가시오가피 뿌리를 각 가정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1개월만 음용하시면 몸으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 가 격 : 특별할인 3개월 5kg 15만원판매 (배송료 포함)

이용방법

가정용 약탕기에 물 2000cc를 붓고 깨끗히 씻은 가시오가피 뿌리 100g을 넣어 3~4시간 달인 후 식전 30분전 한잔씩 하루 서너번 음용한다.

이런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 격무로 인해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
◇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등 성인병이 우려되는 중 · 노년층
◇ 강한체력, 지구력, 집중력이 필요한 운동선수
◇ 사고나 병후에 원기회복이 절실한 남녀노소
◇ 또래보다 허약하고, 키도 잘 자라지 않는 어린이와 청소년
◇ 눈이 침침하거나 탁하고, 손발이 저리고 습한 중 · 노년층
◇ 기력을 잃어 부부생활에 자신을 잃은 남성
◇ 원기회복과 체력증진이 필요한 남녀노소

입금확인 후 1-2일이내 배송. 계좌번호 (예금주 김헌영)
하나은행 37801-0061427, 우리은행 : 048-045204-12-001
공급업체 : 케이앤알린크 / 홈페이지 : http://www.knrlink.com
주문상담전화 : 080-933-5578 / 02)933-5577

영가천도 「책자 무료보급」
인간의 길흉회복을 좌우하는 영가의 영향력!

인간의 고통중에서 절반이상이 영가의 장애로 부터 온다!
집안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영가의 영향력!
가정불화, 사업부진, 자녀문제, 불의의 사고나 재난, 이중에 절반 이상이 영가의 영향으로부터 온다. "100% 영가천도 영험도량"

책 자 내 용

제 1장 영가의 실체.
1. 영가천도에 대하여
2. 영가(고혼) 천도의 의미
3. 영가란 무엇인가?
4. 착신현상이란 무엇인가?
5. 영가의 장애와 천도의 필요성

제 2장 천도재에 대하여...
1. 영가천도와 업장소멸.
2. 영가천도의 공덕.
3. 천도재와 위령제의 차이.
4. 수자령영가에 대하여.
5. 효행중의 효행.
6. 지장보살의 시대.
7. 천도재 법문.

제 3장 영가천도로 안락한 삶을 영위하다.
● 영가가 천도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사례.
● 영가가 착신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 천도재를 지낸 분들의 체험수기.

그밖에 여러 사례들 - 영가천도 책자 참조 -

100%의 확실한 영가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
천도재가 위령제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영가천도를 했는데도 영가의 장애라고 느끼거나 삶의 변화는 별로 없다고 하소연하는 불자가 늘고 있다. 전국에 조상령 혹은 수자령 영가가 천도가 안되어 이로인해 고통을 받고있는 이들이 상당 수에 이른다.

「미륵이 출세할때까지 중생들을 모두 해탈시켜서 영원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리라!」 - 지장경 중에서 -

※ 법당 및 요사채 불사 동참 [우리은행 551-215163-02-001 성거사]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도량 **성 거 사**
천안시 목천읍 송전리 283번지(독립기념관 IC)
041) 567-6820, 041)567-6822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하신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인연이 되어 옛부터 금강산에서 전해오던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기에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승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법제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 험 사 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지수 대진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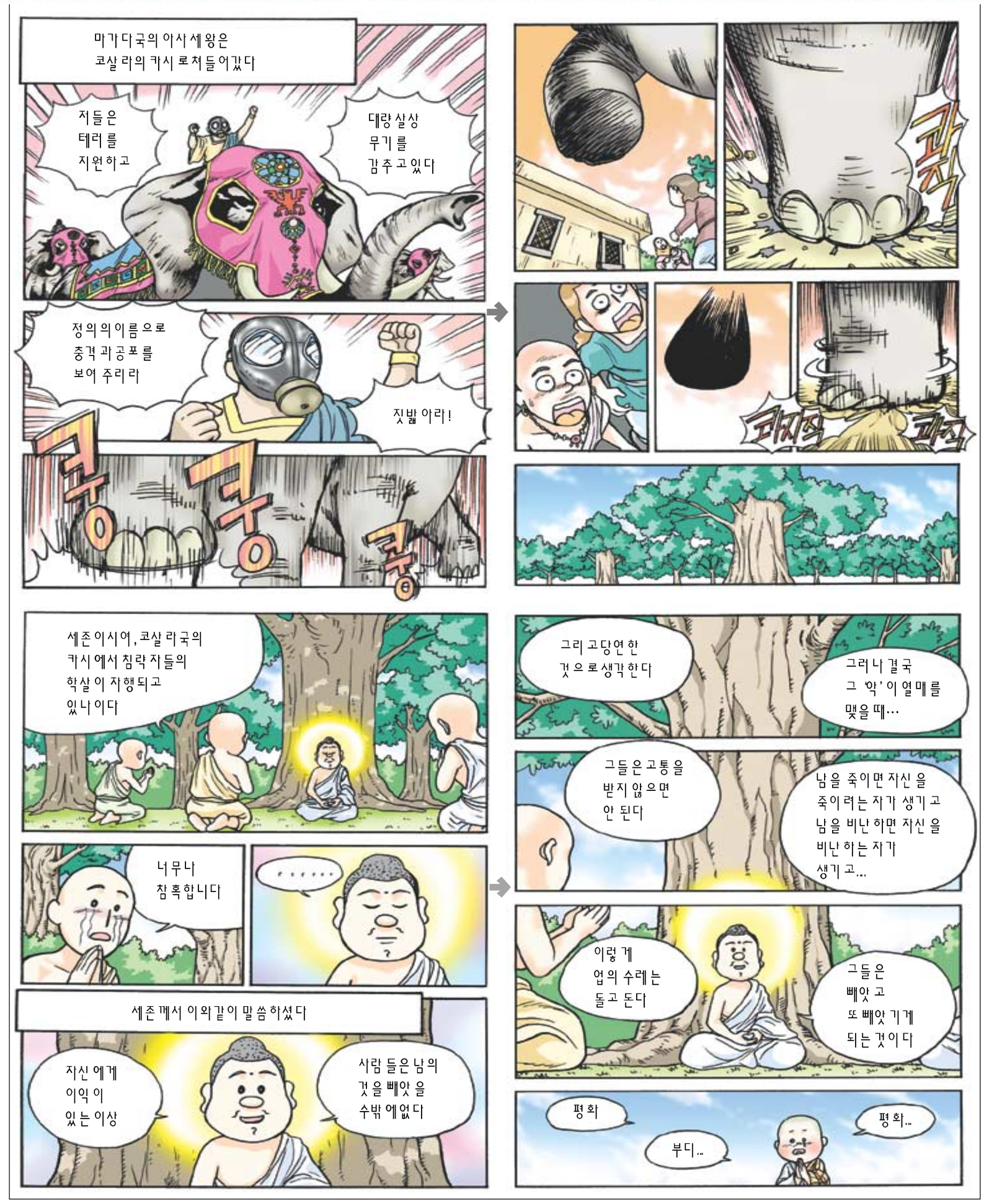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13화)

"업의 수레는 돌고 돈다"

〈출전 : 상응부경전 3·15 전쟁에 대한 두가지 말씀〉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이렇게 들었다

'충격과 공포'

누가 우리의 善友되어 줄까?

2003년 3월 20일은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갖는 날이 되었다. 20세기를 마무리하던 1991년 1월 17일에 이어 21세기가 되어도 세상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날이고, 세계를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독선을 또 한 번 입증하는 날이기도 하다.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승리를 하고 국내의 불황을 전쟁을 통해 해결하려는 생각은 어쩌면 그렇게도 부전자전인지, 선재는 그것이 '조지'라는 이름까지 똑같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

12년 전에는 28개국이나 미국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이번에는 두 손을 채우기 힘든 만큼의 숫자이다.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 만큼 정확해진(?) 공습의 이름이 '충격과 공포'라고 한다. '이라크의 자유'와 '충격과 공포'라, 이게 아귀가 맞는 말이기는 하나?

전 세계가 미국의 움직임을 반대하고 국내에서도 만만치 않게 반전 여론이 일고 있는데도 그 어느 나라보다 먼저 지지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를 보며 선재는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떠올랐다. 좋은 것은 배우기 힘들지만 나쁜 것은 쉽게 배운다는 경책이었다. 힘 있는 나라가 남의 나라의 자유를 위하기는 힘들지만 '충격과 공포'를 만들기는 쉽다는 것을 배운다. 정말 선우(善友)를 만나는 일이 너무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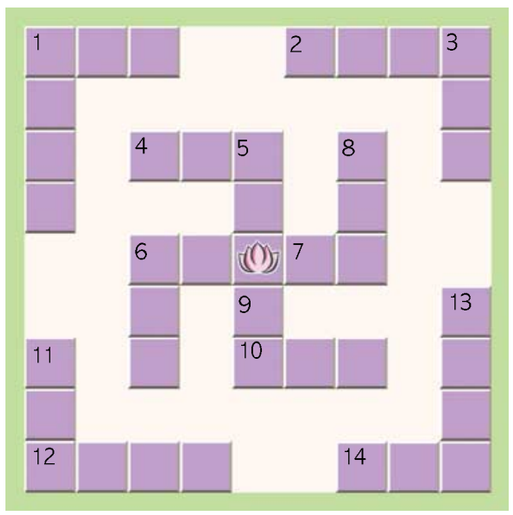
살생하는 이를 가까이 하면 살생을 배우고, 도둑질하는 이를 가까이 하면 도둑질을 배운다. 이런 것들을 악행이라 하니 이에 비추어 친구를 택할지니라.
〈사리불아비담론〉

좋은 벗이란, 상대방의 잘못을 일깨워 주고, 좋은 일을 보면 마음 속 깊이 기뻐하며, 괴로움에 처했을 때 서로 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인과경〉

일체중생은 본래 불성이 있으나 선지식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까닭에 삼독에 물들게 되느니라. 〈열반경〉

모두 다 반대하는데 우리가 나서서 지지했으니 정작 우리가 어려우면 누가 우리의 선우(善友)가 되어 줄까?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교리퍼즐

가로

1.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 있는 사찰로 조계종의 직할교구본사. 2. 그릇된 견해, 얽매임을 타파하고 올바른 도리를 나타내는 것. 4. 보살이 자리이타를 갖추어 깨달음에 이르는 도. 보살의 수행. 6. 불, 보살이 중생을 측은이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 만인에 대한 사랑. 7. 돌로 쌓은 탑, 돌탑. 10. 경북 구미 해평면에 위치한 신라 최초 사찰로 아도 화상이 지음. 12. 전도된 마음, 반야심경에 '구경열반 원리 0000'이라는 문구가 나옴. 14. 용수보살의 '중론'을 소의경전으로 삼아 공사상을 강조한 학파

〈414호「교리퍼즐」정답〉



세로

1. 여래십호 가운데 하나로 모든 인간의 조어자(調御者)라는 뜻. 3. 아미타불(阿彌陀佛) 및 그가 출현할 정토의 존재를 믿고, 죽은 후 그 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대승불교의 일파. 5. 본뜻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장소를 뜻하나 지금은 수행장소를 의미함. 6. 팔대자재(八大自在) 가운데 아(我)의 덕을 갖추고 있다는 뜻의 부처님을 의미함. 8. 2단 또는 3단으로 아래는 방형(方形),위는 원형이나 팔각형,꼭대기는 상륜(相輪)으로 된 탑의 이름. 불국사의 이 탑이 유명함. 9. 종교에 있어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또는 무조건 신자가 신앙의 대상에게 축복 · 가호(加護)를 비는 일.

육법등(六法燈)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범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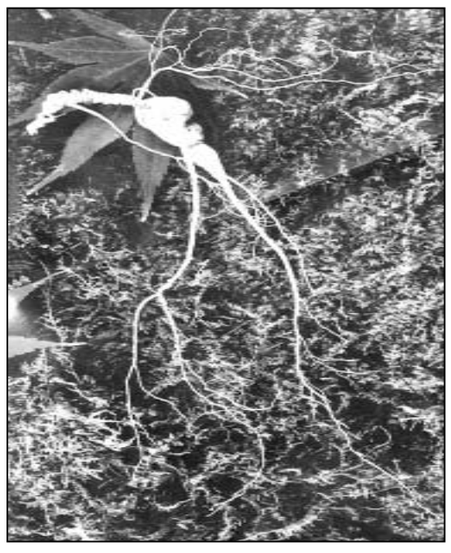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시험 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값진 선물최저 가격으로불자님과인연을맺고자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직접 공급받아한정된 수량을전국 어디라도배달해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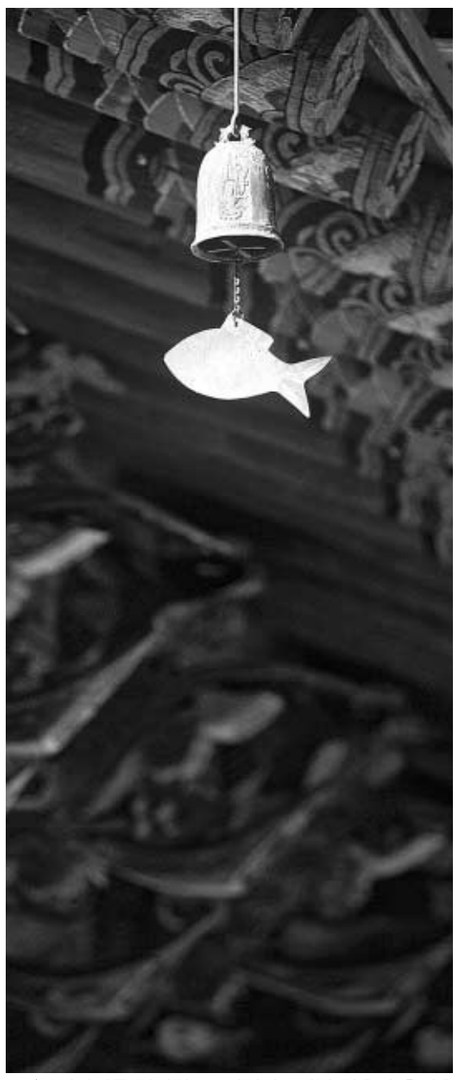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해인사를 거닐다’

전우익 외 지음 / 백종하 사진

옹기장이 / 9천원



◇<해인사를 거닐다>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을 주는 22명의 산문을 담았다. 사진은 해인사 대웅전 처마의 풍경.

지성인과 함께하는 마음산책

소박 · 평범한 삶 속 깨달음 이야기
월간 ‘해인’ 칼럼 ‘유마의 방’서 선별

“…석가는 깨우친 순간 중생에 대한 미칠 듯한 그리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따라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우친 것은 참으로 깨우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깨우침이었다면 이제까지는 혼자서도 살 수 있을 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죽어도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깨우침이었습니다. 사랑이란 궁극적으로 ‘너 없이는 못살아’라는 느낌입니다. 출가하기 전의 석가는 중생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으로부터 떠나 산 속으로 들어갈 생각을 한 것입니다…”(윤구병, ‘부처됨의 어려움’ 중에서)

“…그 작은 깨달음이 있는 날부터 나는 형무소 감방의 구더기 우글거리는 변소를 닦는 일에서 각별한 의미를 찾았다…하루에도 몇 번, 부처님과 글 모르는 소년의 가르침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닦았다. 그 공간과 표면 어느 점에 남은 때나 티끌은 바로 나의 마음의 때로 인해서 보이지 않았다는 진리를 날이 갈수록 조금씩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자 그 일은 즐거움이 되었다. 일을 마치고 반들반들 윤나고 깨끗한 변소를 서서 내려다볼 때, 부처님이 누구인가를, 부처님이 무엇인가를 알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때로 그것은 희열의 순간이기도 했다…”(리영희, ‘지극히 작은 깨달음’ 중에서)

<해인사를 거닐다>는 우리 시대의 지성이라 불리는 스물두명 저자들의 에세이를 한권으로 묶은 것이다.

이 책에 실린 스물두 편의 산문은 해인사에서 매월 간행되는 <월간 해인>의 칼럼 ‘유마의 방’에 1988년부터 2002년까지 실렸던 글 가운데 선별한 것이다. 먼 옛날 유마거사가 재가자의 몸으로 기성 교단의 그릇된 점을 타파하고자 노력하여 보수주의적 색체가 농후했던 당시 불교교단에 진보적 바람을 일으켰듯이, 유마의 방은 스님이 아닌 보통 사람의 글을 통해 우리 시대의 정치와 종교, 문화계 등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저자들은 참 다양하다. 리영희, 이문옥, 윤구병, 노무현 등 시대의 양심으로 불리었던 이들에서부터 이윤기, 유홍준, 김훈, 이현주, 이철수 등 여러 독자층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작가들과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소박하고 평범한 삶 속에서 얻었던 지극히 작은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지중해 여행 중에, 동해안 길목에서, 해인사에서, 고전 속에서, 추억 속에서, 편지글 속에서, 앞뜰에서, 미술관 그리고 어느 기차역과 대학 강단 등 자신이 속해 있는 소박한 일상 속에서 문득 깨달았던 작은 진리들이 그에 어울리는 사진과 함께 담겨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이십여 명의 작가들을 한번에 만나볼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유려하고 빼어난 글맛을 느낄 수 있고, 대중출판을 염두에 둔 글쓰기가 아니어서 더더욱 소박하고 겸허한 글을 대할 수 있으며, 지금과는 조금 다른 입장이었던 저자들의 과거를 만나볼 수 있다는 것 등이 이 책의 매력이다. 여기에 현재 <월간 해인>의 표지사진을 맡고 있는 사진작가 백종하 씨의 사진까지 곁들여져 가슴으로 눈으로 느끼는 감동이 더 크다.

이 책의 제목인 ‘해인사를 거닐다’의 해인사는 단순히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에 있는 해인사를 넘어선다. 바쁜 일상으로 봄나들이 한번 가기 힘든 현대인들에게 언제든 떠올릴 수 있는 마음의 본향, 언젠가 한번쯤 일상을 떠나 마음의 휴식을 얻기 위해 가고 싶은 미지의 그곳일 수도 있을 것이다. 내 마음으로의 산책을 떠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작은 힘과 위로가 되어 줄 것이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불교여성학 연구현황 한눈에



‘불교여성학논저 목록집’

불교여성개발원 / 비매품

단행본 160 · 논문 240편 수록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인자, 이하 개발원)이 3개월의 조사 끝에 불교여성학의 국내외 연구 성과와 현황을 파악한 <불교여성학논저 목록집>을 펴냈다. 목록집 발간은 개발원이 기획, 지원하고 불교여성학 전공자 연구모임 담마딘나가 자료 수집과 분류, 분석을 맡았다.

<목록집>에는 불교여성학관련 단행본 160편과 학위논문, 학회지나 단행본에 수록된 논문 240편 등 총 400여 편의 목록이 담겨있다. 자료는 불교여성의 문제를 사성제에 대입해 ‘고’, ‘집’, ‘멸’, ‘도’를 주제로 4개 항목으로 분류했다.

1장 ‘불교와 여성’은 불교총론과 불교의 여성관에 관한 논저들을, 2장 ‘불교여성의 문제’에서는 여성 성불에 관한 논쟁과 팔경법 연구 등을 담았다. 3장 ‘불교여성의 유용한 유산’은 한역대장경의 비구니전 연구와 근현대 불교여성지도자에 대한 논저들을, 4장 ‘새로운 물결’에서는 불교와 페미니즘 비교 연구 성과를 종합했다.

이인자 원장은 “목록집 발간으로 불교여성학 자료구축의 첫발을 내디딘 만큼 앞으로 누락된 점은 연구와 조사를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02)722-2101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불교잡지 봄호 3권 출간

불교 계간 잡지 봄호가 연이어 출간됐다.

불교 속의 문화, 문화속의 불교와 만나는 <불교와 문화>는 ‘스님, 틱낫한을 말한다’를 실었다. 틱낫한 스님에 대한 기존의 오해와 편견들, 플럼빌리지의 수행체험 내용도 소개된다. 또 불교전문 출판사인 민족사 윤창화 사장이 직접 쓰는 ‘근대불서 출판 이야기’에서는 개항이후 최초의 불교출판사였던 ‘삼장역회’와 용성스님의 이야기를 담았다.

<불교문예>는 이번호에서 제8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최인호, 시인 정희성, 평론가 조남현씨의 작품을 실었다. 시문학전문지 <유심>은 유심대담 ‘우리 시대의 대표적 국민작가 조정래와의 대화’를 머리에 실었다. 기획특집으로 ‘선과 시’ 다섯 번째 시리즈와 시인 이승훈(한양대 교수)의 시 세계를 집중 탐구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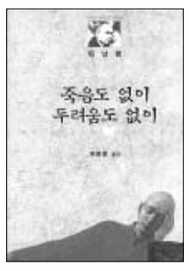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 자	출 판 사
1	화	틱 낫 한	명진출판사
2	힘	틱 낫 한	명진출판사
3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김 재 경	마당넓은집
4	능엄주해의	전 수 태	운 주 사
5	스승을 찾아서	법정 스님	동 쪽 나 라
6	주머니속의 조약돌	틱 낫 한	열 림 원
7	천수다라니와 붓다의 가르침	전 재 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8	미소짓는 발걸음	틱 낫 한	열 림 원
9	니가누고?	경봉 스님	휴먼앤북스
10	서장공부	김 태 완	여 시 아 문

도서 안내 : (02)737-0695

인터넷 · 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 (02)737-0695

새로나온 책



無 · 소멸 없고 ‘이어짐’ 만

‘죽음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틱낫한 지음 / 허문명 옮김

나무심는사람 / 9천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 ‘죽음’일 것이다.

틱낫한 스님은 <죽음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에서 이러한 두려움은 실재가 아닌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관념일 뿐이라고 말한다. 삶과 죽음이 실재한다고 믿는 것이 바로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며, ‘소멸’이나 ‘무(無)’는 없으며 오로지 ‘이어짐’이 있을 뿐이라는 가르침을 전한다. 또한 이 책에서는 부처님이 설하신 연기(緣起)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일상생활에서 겪는 일화들로 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구절마다 차분하게 설명

‘뜻으로 읽는 금강경’

송찬우 편저

솔바람 / 1만2천원

동국역경원 역경위원이자, 중앙승가대학교 교수인 송찬우 씨가 금강경 삼십이분에 대한 낱낱의 해석과 함께 각 분마다 그 의미에 대하여 자세하게 부연설명을 덧붙여 <뜻으로 읽는 금강경>을 내놓았다. 이 책은 지난 98년 초판 된 것.

이 책에서 송 교수는 부처님 제자인 수보리 존자의 의심하는 마음을 드러내어 그 의심을 결단하고 풀이하는 방법의 오묘함을 보여주고, 각 구절마다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설명해감으로써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의 의심을 타파해 주기 위해 설했던 내용들을 독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했다.



요가동작 실기 그림으로

‘티벳요가 쿰니(하)’

타르탕 툴구 린포체 지음/ 박지명 옮김

하남출판사 / 1만원

<티벳요가 쿰니(하)>는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새로운 요가 수련방법이다.

이 책의 상권에서는 이론과 마사지 이완법 그리고 기본적인 동작을 소개했으며 하권에서는 더욱 진보된 동작의 실기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심리적 생리적인 에너지를 정화시키도록 도와주고, 몸과 마음과 감각의 균형을 통해 우리 삶을 보다 생기있게 이끌어가도록 도와준다. 이 책은 요가를 처음 접하는 이들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동작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설명한다.



불경 마음관련 구절 뽑아

‘지금 이순간을 지혜롭게…’

김정빈 지음 / 이해선 사진

바움 / 8천5백원

‘마음은 제 좋은 쪽을 향해 재빠르게 흘러간다.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것, 그것이 마음 닦는 사람이 첫 번째로 할 일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마음’에 관한 구절 108가지를 가려 담은 <지금 이 순간을 지혜롭게 사는 부처님 말씀>이 나왔다. 소설 <단>의 작가 김정빈 씨가 간략한 해설도 덧붙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곧 마음의 가르침’이라는 김 씨는 우리들에게 부처님이 설하신 지혜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여유를 가질 것을 권한다. 사진가 이해선 씨의 사진도 함께 담겨 있다.

고요아침 전화 : (02) 322-0036 팩스 : (02) 322-3674 홈페이지: www.oachim.co.kr 도매일원화(주)한국출판유통 전화 : (031) 945-2900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바라만 보아도 편안하다

동자승 이야기
얼굴

KBS 인간극장 5부작
MBC 아주특별한 아침 방영!

산사의 샘물처럼 맑은 동승의 얼굴,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바라만 보아도 마음의 때가 벗겨지는 천진난만한 얼굴, 찌든 세상의 마음을 홀홀 다 털어 내주는 작은 스님들의 부처 같은 얼굴, 꽃 보다 아름다운 작은 스님들의 산사이야기.
사람은 환생할 수 있을까. 돌아가신 성철 큰스님과 성철동자의 아름다운 인연. 그 동자가 살고 있는 백화도량 ‘해인사’ 일곱 동자와 무학스님의 살아가는 이야기
♣ 이 책을 사면 마음의 평화가 오고 선재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지엽 · 정성욱 글
올칼라 | 값 9,900원

무심 — 경허 큰 스님의 유일한 법어집
티바람 눈보라치는 탱빈 산, 붓을 잡아도 한 치 걸림도 없이 묻고 구절마다 경허 스님의 글은 만법이요 자이다. — 중앙일보 경허 큰스님 저술 | 변역 석명정 | 값 8,500원

마음꽃 — 경허 큰 스님이 던져주는 마음의 화두
「마음꽃」은 보통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를 닦는 데 큰 도움이 될 책이다. — 조선일보 〈편집자 리터〉 경허 큰스님 저술 | 값 11,500원

편지 — 성철, 만해, 경봉, 효봉 스님이 나눈 편지
「편지」는 잃는 그대로가 「금언집」이며 한국 근대 불교사의 증언이다 — 중앙일보 경허 만해, 성철 효봉 스님 외 | 값 9,500원

걷기 사회·문화적 의미는?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걷기 위해 수없는 노력을 하고, 걷는 방법을 터득한 후에는 끊임없이 걸으며 인생이라는 짧은 역사를 이루어 간다.

최근 들어서는 걷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건강법으로 부상하면서 너도 나도 걷고 뛰기에 여념이 없다. 이런 열풍을 반영하듯 서점가에는 현대인들을 위한 다양한 책들이 나와 있다. 걷는 즐거움을 말하는 에세이에서부터 건강법, 걸어서 하는 여행안내서까지. 또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틱낫한 스님은 걷기 명상으로 우리 자신의 깊은 내면을 살피고 마음을 챙기고 돌보라 한다. 과연 걷는 것에는 어떤 의미와 힘이 있는 것일까.

<걷기의 역사>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일매일 행하고 있는 걷기에 대한 보편적 역사를 처음으로 다룬 책이다. 인간의 진화, 도시 설계, 미로, 러닝머신, 성 문화, 걷기 클럽 등 다양한 인간의 역사를 걷기라는 가장 보편적인 행위로서 바라본다.

이 책의 저자는 예술 문화 비평가 및 큐레이터이며 환경운동가인 미국의 레베카 솔닛이다. 해박한 지식과 섬세한 시선을 바탕으로 씌어진 이 책은 단순한 신체의 동작이 아닌 사회적·문화적 행위로서의 걷기를 실천한 수많은 인물과 사건 이야기로 가득하다.

산책, 순례, 등산, 행진 등 걷기의 여러 형태와 역사를 두루 살핌으로써,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걷기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세계의 지도를 그리고, 세계에 길을 내고, 세계와 만남으로써 세계의 모습을 바꾸는 방식, 행동이 문화를 반영하고 재창조하는 방식"이 바로 걷는다는 행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이다.

저자는 걷기와 생각하기, 걷기와 문화에 대한 관련 고리를 찾아내고, 자동차와 속도 위주의 현대인에게 걸을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워즈 워스, 게리 스나이더, 루소를 비롯하여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 모인 아르헨티나의 어머니들까지, 역사 속에서 걸었던 인물들을 포함하여 소설 속 주인공들의 삶까지 아우르는 이 책은 몸과 상상력, 그리고 이 세계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한 놀라운 탐구라 할만하다.

보편적 행위로서의 '걷기' 조명
걷기 – 생각하기 – 문화 연결고리 찾아

이 책은 4부로 이뤄져 있다. 1부는 걸으면서 생각하고 영감을 얻었던 철학자와 시인들의 삶을 통해 걷기와 사유의 관계를 말한다. 2부는 축제와 순례, 행진과 혁명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걷기의 의미를 끌어낸다. 3부는 런던 파리 뉴욕 등 대도시에서의 걷기와 걷기의 성적인 함의를 다룬다. 끝으로 4부는 현대적 풍경으로서 걷기의 상실과 이를 복원하려는 예술적 시도를 중심으로 문명비판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같은 전개를 통해 걷기는 모든 곳을 통과하며,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며, 세상을 여행하는 방법이자 마음을 여행하는 방법임을 이야기 한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걷기의 역사'

레베카 솔닛 지음 / 김정아 옮김

민음사 / 1만5천원



◇길은 끝이 없다. 길을 걷는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이자, 그 세계의 모습과 문화를 재창조하는 방식이다.

직관으로 질병 치유한다

인체 감정에너지 감지방법 설명

'영혼의 해부'

캐롤라인 미스 지음

정현숙 옮김

한문화 / 2만원



<영혼의 해부>는 조금은 낯선 직관의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 이야기한다. 직관의학이란, 해부학과 직관, 몸과 마음, 영혼과 에너지에 대한 것이다. 미국의 캐롤라인 미스 박사가 이 분야에 대한 지난 14년간의 연구 결과를 이 책에서 요약했다.

저자는 "직관은 자기 자신과 타인의 에너지를 관찰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면서 "누구나 자기 몸을 눈으로 보듯이 생생하게 에너지의 언어로 볼 줄 알고, 자기 영혼 또한 의식적으로 보살필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한다.

영혼의 문제를 건강과 결부시켜 일상화 시킨 이 책은, 영성의 문제가 특정한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자기를 아끼고 건강을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저자는 직관을 통해 인체의 미묘한 기 에너지를 읽음으로서 과거와 현재의 감정 에너지를 진단해내고, 신념 체계와 에너지 체계의 균형을 뒤흔드는 깊고 쓰라린 체험이나 태도 등을 감지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질병의 발생과 치유 모두 자기 자신의 책임이므로 노력과 자기 변혁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건강 뿐 만 아니라 삶의 방식에서도 뭔가 잘못되어 가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딜레마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내부로부터 그 원인을 찾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준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크다.

심신수련, 명상 등의 효용이나 활용법 등을 통해 왜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으며, 전통의학과 대체의학, 민속의학 등을 영성과 함께 다루어 방법상의 편견을 배제하고 개인의 영적인 성장이라는 차원에서 통합적인 치유의 개념을 제공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전문가 서평

'환경은 세계사를 어떻게…'

이시 히로유키 외 지음 / 이준하 옮김

경당 / 9천8백원



'환경코드'로 지구·인간·문명 분석

태산(泰山)은 앞에서 보면 산(山)이요, 옆에서 보면 들판(野)이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태산 중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듯이 지금까지의 역사는 인간의 관점에서 한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에 관한 내용이었다. 간혹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의 역사에 대한 고찰이 있어도 그것은 인간중심적인 관점에서 보아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이 세계사를 어떻게 바꾸었는가?"라는 책은 인간중심으로서가 아니라 환경의 관점에서 지구와 인간, 그리고, 인간이 만든 문명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환경사학(environmental history)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정립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현대 문명이 어디로 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저자들은 책에서 이스터섬의 붕괴를 통하여 반복되는 역사적 진실을 확인하고 있다. 남태평양엔 '모아이'라는 거대한 석상들로 유명한 이스터 섬이 있다. 5~6세기에 태평양 전역에 퍼져 살던 폴리네시안 수십 명이 이곳으로 이동해서 섬의 주인이 된다. 이후 1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150㎢쯤 되는 이스터 섬의 인구는 7000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됨으로써, 먹을거리뿐 아니라 수목이 사라지고 거의 모든 자원이 고갈되면서 부족간에 서로 잡아먹는 상황으로 빠져들면서 이스터섬은 붕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오늘날 이스터섬에 남겨진 거대한 석상은 환경사가 경고하는 지구의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利他정신으로 공존하는 세상 강조

이밖에도 기후변동이 민족이동에 미친 영향, 네안데르탈인과 매머드의 절멸 원인, 물과 그리스?로마 문명과의 상관성, 중세 유럽 페스트의 창궐과 인간 거주유형의 연관성 등 다양한 주제를 환경적 관점에서 풀어 나간다.

그 중의 재미있는 사실은 기원전 4-5세기 그리스의 은산(銀山)에서 은의 대량채굴과 정련과정에서 연기로 나무가 말라죽고, 사람들이 건강문제로 고생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층굴뚝을 세워 오염물질을 분산시킴으로서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했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광산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56m의 굴뚝을 세워 해결한다는 사실을 통해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200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고, 현재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환경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리스 문명과 기타 문명 등을 통하여 발전을 구가하는 무렵에는 삼림을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겼다가 다시 자원이 부족해지면 보호를 외치는 식의 행태가 역사상 수없이 반복되어 왔다는 점이다.

오늘날에도 모두가 경제성장에 미쳐서 지속성을 잃고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므로 21세기에는 자기통제장치가 작동하는 건실한 문화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문화는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농업혁명이 1만 2,000년전에 일어나서 유라시아 대륙에 널리 보급되기까지는 5,000년 정도가 걸렸다. 5,700년전에 시작된 도시혁명도 5대문명을 건설하기까지는 약 1,500년이 걸렸다. 그런데 산업혁명은 200년만에 전 인류를 석권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류의 역사에서 기술의 전파와 그 전파기간이 점점 단축되어 우리들의 시간감각도 무척 짧아졌다. 시간인식이 너무 짧아져서 모든 걸 멀리 내다보고 판단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속도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며, 느림의 문화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나, 세상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며, 오늘날과 같이 사람들이 저마다의 욕망을 모두 분출시킨다면, 지구환경은 유한한 것이기에 앞으로의 삶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利他)의 정신으로 욕망을 조절하는 환경혁명을 통하여 인간뿐만이 아니라 환경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걸 고려하는 세계관을 인간 스스로 되찾아서 공존하는 지혜의 세상을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책 첫머리에 쓰여 있는 경구를 결론으로 전하며 마무리 하고자 한다.

"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며, 오염을 견디는데 한계가 있다는 진리를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

■이병인 교수/밀양대 환경공학과

<환경은 세계사를 어떻게 바꾸었는가?>는 인간중심으로서가 아니라 환경의 관점에서 지구와 인간, 그리고, 인간이 만든 문명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부처님 오신 날 기념책자·특집사보 발간

불교설법전서



기념책자 견본

· 봉축법 요식순
· 부처님은 누구인가?
· 부처님 전생이야기
· 부처님 의탄생과의미
· 부처님 의성 도와열반
· 부처님 오신 날 왜연등불을 밝히나?

규격 신국판 | 분량 28폭(표지포함)



특집사보 견본

· 봉축발 원문
· 부처님 의탄생과그 의미
· 부처님 전생이야기
· 만화로 보는 불교설화
· 재미있는 교리공부
· 불교환경 운동과 수행
· 불교와의인연이야기
· 불교상식 등

규격 4 x 6배판(16절) | 분량 36폭(표지포함)

단위:원

기념책자	100부	300부	500부	1,000부	2,000부	3,000부
	65,000	195,000	312,500	600,000	1,000,000	1,200,000
특집사보	100부	200부	300부	400부	500부	1,000부
	156,000	234,000	351,000	455,000	559,000	948,000

* 특집사보와 기념책자 표지에는 사찰명, 주소, 주지스님 말씀, 사찰소식, 초파일 행사 식순 등을 실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기념책자

사찰에서 행사 때마다 만들어 오던 전단은 경제적인 부담, 준비하는 번거로움, 거기에다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설법연구원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초파일 기념책자를 만들어 행사용 팜플렛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념책자는 부처님 오신 날 사찰을 찾는 신도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쉽게 읽고 부처님 오신 뜻을 새길 수 있도록 알차게 꾸몄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특집사보

매월 발간해 오고 있는 '설법'지에 초파일 특집 지면을 할애하여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각 사찰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여 사보 겸 초파일 행사용 책자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환희로운 부처님 오신 날!

설법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초파일 특집사보를 통해 우리 곁에 오신 부처님의 뜻을 널리 폅시다.

행사·교리·불사·비유설화·시사 등의 주제별로 항목을 분류, 합본 제작하여 발간된 책.

<불교설법전서>는 스님과 법사님의 필독서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1권(500폭) 3만 원 5권(720폭) 4만 원
2권(596폭) 4만 원 6권(816폭) 5만 원
3권(612폭) 4만 원 7권(894폭) 5만 원
4권(798폭) 4만 원 8권(790폭) 5만 원

■도서출판 솔바람의 책들

· 불교설법전서 — 설법 연구원편 | 각 권 30,000-50,000원
· 참회정진 — 도법 편저 | 3,000원
· 아함경으로 배우는 불교 — 반영 규지음 | 7,000원
· 천수경 — 윤오연 편저 | 6,000원
· 신묘장구대다라니 강해 — 임근 동지음 | 10,000원
· 불사 및 기도안내문 모음집 — 설법 연구원편 | 10,000원
· 불교사경집 — 설법 연구원편 예불 · 반야심경 3,000원, 지장 경 5,000원
· 불교지도자론 I — 설법 연구원편 | 20,000원
· 뜻으로 읽는 금강경 — 송찬 우역저 | 12,000원
· 실험처럼 살아라 — 페마 최된지음 · 진우기 옮김(곧 발간예정)
· 마음을 밝히는 60가지 이야기 — 김장열 · 방경일 공저 (곧발간 예정)

설법연구원 · 도서출판 솔바람 전화 (02)720-0824 전송 (02)722-8760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403호
E-mail : sulpub@hananet.net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길



<금강경>의 유아론적 해석

대승불교의 수많은 경전 중에서 초기반야사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전이 <도행반야경>과 <금강반야경>이다. 이중에서 <금강반야경>을 줄여서 <금강경>이라 부른다.

<금강경>의 특징은 공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공사상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점이다. 공사상을 무집착, 무소유, 무소득, 무주(無住), 무상 등으로 말하고 있다. 일체의 사고나 행동을 무소득에 입각하여 행한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종교적 행복이나 우주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강경>의 핵심은 6바라밀을 실천하되 네 가지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실천하는 것을 강조한다. 경전의 법어명인 바주라 체다카는 '헝클어진 천개부터 천개까지 모두 청정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것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며, 일체의 모든 관념이나 습관, 문화적 관성 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금강경>은 경전이 지니고 있는 이상과 같은 정신이나 경전의 간결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중국에 전역되었다. 특히 요진의 구마라집에 의해 402년에 번역된 <금강반야바라밀경>이 소개되자 많은 불교도들에 의해 애독되었다.

<금강경>에 대한 주석서는 많은 사람들이 남기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 남아 있는 많은 주석서들은 주석자의 사상적 지평에 따라 각각 특색있는 다양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국선종사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육조혜능스님의 주석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육조 혜능에 의해 <금강경>이 남종선의 소의경전으로 추앙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에 대한 스님의 주석은 그의 사상적 편린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전개되는 선사상의 본질을 분석해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금강경>에 대한 육조스님의 주석 중에서 특별히 우리들이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스님이 이 책을 유아론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법화인유분에서 여시아문(如是我聞)을 풀이하면서 아(我)에 대해 "아는 성(性)이다. 성이 곧 아다. 안과 밖의 동작이 모두 성(性)으로 말미암는데 이 모든 것을 남김없이 들으므로 내가 들었노라"고 한다고 풀이한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들였다고 하는 주체는 역시적으로 부처님의 십대제자 중의 한명인 아난을 지칭하는 말이다. 아난이 부처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경전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500명의 비구들 앞에서 기억해 암송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경전의 시작은 여시아문이란 문구로 시작한다. 그런데 육조스님은 그것을 성이란 개념을 대입하여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성(性)은 성품을 의미하는 것도 되지만 사물의 본질적인 바탕이란 의미가 있다. 따라서 아를 근원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성이란 개념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성이란 개념은 매우 중국적인 개념인데, 이 우주와 사물에 편재해 있으면서도 시공을 초월해 존재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과 밖이란 공간과 동작이라는 시간이 모두 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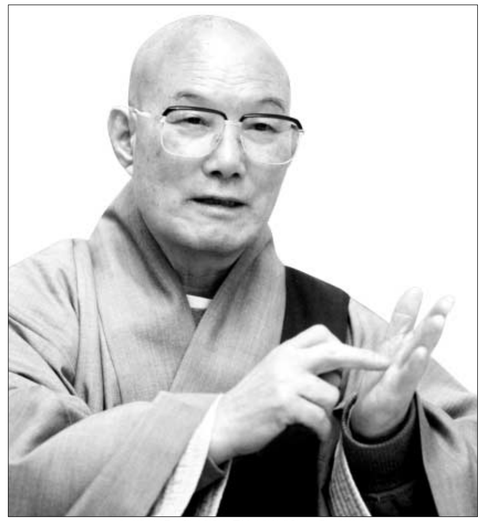
둘째 여리실견분에서 신상(身相)을 해석하면서 두 가지로 구분한다. 즉 신상에는 유상(有相)과 무상(無相)이 있다는 것이다. 유상은 물질적인 색신(色身)을, 무상은 형체가 없는 법신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법신에 대한 육조스님의 해석이다. 육조스님은 법신을 형체도 없고, 나눌 수도 없으며,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지혜의 눈으로는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나아가 공간적으로는 허공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한다. 또한 법신을 성(性)으로 규정하고, 일체의 선악이 법신에 의지한다고 말한다. 동시에 법신이 있기에 일체의 중생은 동일한 진성(眞性:참다운 성품=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을 수 있으며, 그것은 속성이 본래청정하고, 간지스강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은 미묘한 작용을 갖추고 있다고 말한다.

물론 육조스님의 이상과 같은 해석은 지극히 중국적이다. 그는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적 교양을 받은 중국인이기에 부지불식간에 중국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을 만드는 태극의 개념, 일체의 존재나 시공을 초월하는 도, 만물의 존재 이전에 존재한다고 보는 무(無)와 같은 사유체계 속에서 성이란 용어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두교적인 범(梵)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에도 중국 전통의 성이란 개념은 유아론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중국 선종의 사상 속에서 유아론적인 영향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견성, 불성, 마음, 일심 등에 대한 선장들의 해석 속에 유아론적 성격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안팎의 동작 · 법신을 '性'으로 파악

'견성·불성·마음'에 유아론적 성격



◇지혜스님은 수행과 화합의 근본이 하심에 있다고 강조하신다.

지혜스님

지상 백고좌

(밀양 대법사 조실)

하심은 마음을 크게 비우는 것

총무원장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선거라는 것이 내 편, 네 편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항상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하심하고 보면 네 편, 내 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나뉘어져 있어요. 편 가르고 나누는 것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화합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였던 모습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승속을 막론하고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 것도 주고 받고 없고, 아무 것도 받은 것이 없는데 무엇이 따로 있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고, 잃은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욕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욕심이 없으니 나와 남을 구별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갈등은 하심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화합하기 위해서는 하심해야 합니다.

하심을 한다는 것은 마음을 크게 비우는 것입니다. 선방에 앉아서 30년 40년 넘게 공부했다고 해도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 평생 공부가 헛수고가 됩니다.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데, 무슨 공부를 할 수 있으며, 부처는 또 어떻게 보겠습니까. 부처님 법의 근본은 밥심하고 원력을 세워서 끊임없는 정진을 통해 견성해야 하고, 올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대흐름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시대흐름이라는 것은 부처님 법을 펴는 방법을 이해하고, 올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지, 어떻게 부처님 법을 펴고 실천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중생이 고통 받는 이유는 부처님 법을 모르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은 좋은 생각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화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시대흐름을 좇는 것은 다름 아닌 불국토를 만드는 일이예요. 그리고 이것은 불법이 하나가 될 때 가능합니다. 하심하면 거기가 곧 부처자리지요.

세상은 얼음처럼 차고 불같이 덥습니다.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공부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알지 못하는데,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공부라는 것은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이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공부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공부의 진정한 힘은 인내심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심의 참뜻은 바로 하심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낮춰야만 인내심이 생깁니다. 인내심이란 바로 마음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공부는 마음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심을 하려면 마음자리를 제대로 봐야 하는데 그것 눈으로 볼 수 없지. 깨달음이 어디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깨달은 사람은 겉으로는 평범하게 보일지 몰라도 자기 안에는 광명천지가 있어요. 공부하는 이유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중생을 위하는 일인데, 자기 마음자리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 "좋은 생각으로 서로 위하면
> 세상 밝아지는 도리 알아야"
> 佛法 실천 안하면 고통 받아



◇평소 사람만나기를 꺼리는 지혜스님은 기자에게도 짧은 인터뷰만 허용했다.

기자가 본 지혜 스님

'사명대사의 후신'으로 불릴 정도로 밀양 지역 사람들이 지혜스님에게 갖는 존경과 신망은 두텁다. 지역의 각급 기관장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스님을 찾아와 견해를 청한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을 쉽게 만나지 않는다. 지난 2월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선출돼 각계로부터 많은 축하인사를 받았지만 그럴 때마다 스님은 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셨다고 한다. 지혜스님은 평소 말이 없고, 공부에 방해된다며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할 정도로 수행에 대한 열의가 깊다.

30년 넘게 지혜스님을 모셔 온 원공스님은 "스님이야말로 참수행자 모습 그대로다"고 말한다.

"스님을 보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새벽 세 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혜스님은 즐가해서 지금까지 60년 넘게 수행에만 몰두해왔다. 시절인연時節因緣이 되면 도를 깨칠 수 있다며 일념으로 수행정진할 것을 강조하신 은사 동산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만공스님에게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전국 선방을 돌아다니며 20여개를 했다. 이후 충북 단양 원통암에서 7년을 고행정진했다. 보리쌀 1말, 좁쌀 3되, 쌀 3되를 가지고 들어가서 깨닫지 않고는 나오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시절인연의 의미를 깨달았다. 지혜스님은 1924년 진주에서 태어나 37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은사로 입산해 사미계를 수지하고 범어사 강원 대교과를 수료했다. 40~43년까지 금정선원에서 4년간 정진한 뒤 44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54년까지 해인사, 금강산 유점사, 마하연 등지서 수행을 계속했으며, 55년부터 62년까지 충북 단양 조계산 원통암에서 오도정진했다. 68년까지 월정사 등 전국 선방에서 주석하다 69년부터 대법사에서 수행정진해오고 있다.

60여년 수행 몰두…출가자 전형 보여줘

이 보명(普明)하니 산색(山色)은 부처님의 청정법신(淸淨法身)이라.' 본래 갖춰진 큰 깨달음을 널리 밝히니 온 세상이 부처님의 청정법신입니다. 보이는 만물은 관음(觀音)이요 들리는 소리는 묘음(妙音)이라, 듣는 이 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마음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즉었다고 생각하고 공부해 보세요. 어지 진리를 얻지 못하겠습니까.

육신은 허망한 것입니다. 마음의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요. 죽고 나면 모두 지수화풍(地水火風)으로 돌아가는데 집착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은 보려고 하지 않고 육신에 매달립니다.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육근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주관과 환상에 지나지 않아요. 진실은 마음에 있습니다. 물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는 그릇으로는 아무 것도 담을 수 없어요. 윤회와 번뇌는 벗어나기 어렵고 한 번 죽으면 이 세상에 다시 오기 힘들데, 살아있을 때 마음으로 살아야지 몸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반드시 고비가 있습니다. 세상에 뜻대로 되는 일은 많지 않아요. 저마다 그릇의 크기가 다르니 담을 수 있는 것도 다르겠지요. 그렇다고 그릇 크기가 어디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그릇의 크기는 다름 아닌 마음의 크기 입니다. 마음을 크게 하려면 마음자리를 봐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요. 하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사물을 밝고 넓게 보면 마음도 커집니다. 밝고 넓은 것이 바로 태어날 때의 본모양이요, 마음자리입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진한다면 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확고한 가치관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20년간 제방선방을 돌아다니다가 이곳에 머무르게 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 대법사는 원래 표충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조선조 임진왜란 때 선조임금이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킨 사명대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이곳에 표충사(表忠祠)라는 사당을 짓고 사명대사의 영정을 모셨어요. 그리고 표충사가 다른 곳으로 옮겨 가면서 이곳을 대법사로 바꾸고 불사를 했지요.

이곳을 수행처로 삼은 것은 사명대사의 뜻을 잇고 불자들에게 삶의 바른 도리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삶의 바른 도리는 조상을 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불교를 위하고, 사회에 회향하는 것입니다. 조상을 위하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생명의 인연을 맺어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지요. 스승의 은혜를 알고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국민 된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사명대사가 승병을 일으킨 것도 바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함이에요. 불교를 위하는 방법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불자라면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사회에 회향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배를 채 살라는 뜻입니다. 지장보살이 중생에게 다 배를며 나쁜 업은 자신이 다 받겠다고 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베풀 수 있어야 공덕이 됩니다.

'무상(無常)으로 근본을 삼고 무생(無生)에 안주하여 무염(無染)으로 생활하면 그것이 곧 무상보리(無上菩提)요 무애해탈(無碍解脫)이며 무한생명의 자체구현(自體具現)이라.' 입체 현상에 대한 집착을 벗고 산다면 그것이 곧 깨달음이요 해탈이며, 만 생명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심하며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으세요.

정리=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go@buddhapia.com



전북 내장산에서 출가한 나는 항상 대중들이 많은 큰 절에서 살고 싶은 것이 꿈이었다. 그 생각이 헛되지 않았던지 공군법사를 마치고 우여곡절의 사연을 거친 후 통도사승가대학에 방부를 들일 수 있었다. 드디어 불보종찰 통도사에서 살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그때의 기분은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다. 그 덕에 신심을 내서 열심히 큰 절 생활을 했다.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웠고 마침내 환희심으로 통도사승가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 통도사에 살기까지는 대학 도반인 우진 스님의 도움이 컸다. 그렇게 통도사와의 인연이 시작된 것만으로도 행운이었는데 더 큰 행운은 통도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찾아왔다. 타 문중인 나를 통도사의 종무소에 살수 있도록 직접적인 인연을 맺어준 스님이 바로 오늘 이야기 하고자 하는 마산 정법사 주지 지태스님이다.

내가 통도사 승가대학 대교반일 때 지태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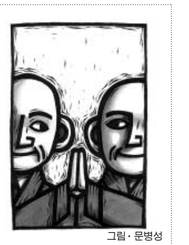


그림 · 문명성

은 교무국장 소임을 맡았다. 그리고 나를 교무과장으로 같이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사실 지태스님은 동국대학교 석림회로는 2년 후배이다. 물론 법랍으로는 당연히 월등한 선배이지만 말이다. 당시에는 학년 간에 규율이 엄격하고 학년 지상주의시대에 대학을 다녀본 입장에서는 그러한 제의가 그리 쉽지 않았다. 그러나 무슨 인연인지 흔쾌히 받아들였다. 막상 종무소 소임을 시작하면서 편안하지 못한 무언가가 마음을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학교 다닐 때와는 뒤바뀐 상황에 대한 부적응이라고 생각되는데 다소 어정쩡한 입장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서로에 대한 이런저런 과거의 기억을 접고 현재만을 생각하자고 제의했고 서로 그것이 공감이 되어 비로소 마음이 편해질 수 있었다. 이때부터는 오직 현재의 주어진 소임에만 전력할 수 있었다.

그렇게 소임을 보면서 지태스님은 역시 법랍이 많은 선배로서 소소한 것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주었다. 특히나 표시나지 않게 관심 가져주는 인격적인 배려는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했다. 그리고 매사에 사려 깊고 전체적인 판단을 통해 일러주는 조언은 산아가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일은 역시 하는 사람이 하는가 보다. 내가 먼저 통도사 부산 포교원으로 주지소임을 나가고, 지태스님은 마산 포교당 정법사 주지로 가게 되었는데, 본사에서의 소임이나 석림회 때의 일체리 경험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마산 불교계와 정법사의 면모를 확연히 바꿔 놓은 것이다. 지태스님은 현재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4곳이다. 본래 마산 정법사에 있는 것에서부터 창원의 두 곳을 비롯해 진해에 이르기까지 어린 불자를 키우는 일에는 과감한 투자를 하는것이 인상적이었다. 그것은 상식과 경제논리를 넘은, 포교 일념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대목이다. 거기다가 무료급식을 하는 데에도 하는 척만 하는것이 아니라 진짜 정성껏 회선을 다한다. 왜냐하면 매일 매일 계산적으로 따지지 않고 오직 그냥 하기 때문이다. 무료급식을 한다고 폼만 잡아본 경험으로 볼 때 더욱 절실히 느끼는 부분이다.

작년에 정법사에서 스님과 점심공양을 같이

새싹불자 키우는 일에 솔선

이상적 도심포교당 플랜 '눈길'

한 적이 있다. 그때 주변의 집들을 인수해서 법회와 문화, 복지 등을 아우르는 건물을 건립해 포교당의 품격을 높이고 도심속 사찰의 현대적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들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적절한 모습이라는 생각에 마음속으로부터의 존경이 일었다. 이처럼 모든 소임자가 자신의 영역을 발전시켜 나아간다면 불교의 미래는 희망만이 존재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정법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중 재정공개와 신도들이 참여하는 부명한 재정관리는 특히나 공감이 가는 일이다. 그것이 해보면 오히려 마음편한 일이기 때문이다. 놓으면 잡히는데 놓지 못하니까 잡는 것도 없는 것이 사찰재정의 현주소이기에 더욱 그렇다.

돌이켜 보면 어느새 지태스님과의 각별한 인연도 갖산의 변화를 느낄 만큼 세월이 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잔잔한 관심으로 항상 함께 해온 지태스님과의 인연은 지나온 세월만큼이나 더없이 소중하다. 도심이라는 다소 삭막한 공간에서 당당한 소신과 커다란 원력으로 이루어온 스님의 포교감각에 크게 공감하면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뜻과 같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 (사)한나래 문화재단 이사장

당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그것은 다운 밸런스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해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다운 밸런스의 담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자원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몸질 중앙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괴롭던 중앙소별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밸런스를 조정해 줍니다.

▶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운 밸런스 90mg cap 90 cap × 3병
1개월분 130,000원



권경애 자선의술나눔
자연식 통약을 통한 아토피 알레르기 개발연구소 원장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두통,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등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실조증
- 피로를 없애고 활을 얻게 해줌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암, 관절염, 고혈압

조원제약콜라이프 Co.
(주)반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 료 전 화 080-598-9832

대구 자비의 전화
제12기 상담원 모집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같이 하는"
대구 자비의 전화에서는 상담자원 봉사자 교육 및 모집을 위한 제12기 카운슬러 대학을 개강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고 자아실현을 이룩하려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개 강 일 : 2003년 4월 15일 ~ 5월 16일(매주 화 · 금)
■ 교육시간 : 오후 2시 ~ 4시
■ 교육대상 : 20세이상, 고졸이상의 남녀 (상담 봉사에 관심있는 분)
■ 교육장소 : 자비의 전화 교육실 (053-753-9734)
■ 교 육 비

회수	날짜	요일	제 목	강 사
1	4.15.	화	전화상담이론	영남대학교신경정신과 김진생 교수
2	4.18.	금	자원봉사이론	자비의 전화 교육부장 이경희 부장
3	4.22.	화	상담기법	여성의 전화 최은숙 강사
4	4.25.	금	청소년 문제와 상담	청소년 상담전화 전혜진 강사
5	4.29.	화	상담에서 본 인간심리	신경정신과 최태진 원장
6	5. 2.	금	철학과 인간문제	경북대학교 철학과 김광웅 교수
7	5. 6.	화	생활법률 상식	이동경 변호사
8	5. 9.	금	가족관계 및 갈등	대구대학교 박춘선 교수
9	5.13.	화	상 담 수 칙	경명특사무자장 자비의 전화 상담포교사 동계연
10	5.16.	금	21C 불교적 자녀교육 방법론	동화사 승가대학 강사 법현 스님
11	5.20.	화	상담실습 및 토론	교육부 주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구부 제9교구 동화사부설
자비의전화
문의전화 : 053)753-9734
FAX 053)753-9735

승복 법복 안내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항상 처음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누비_적삼,바지]

1. 모직혼방 물세탁 가능 — 적삼, 바지 : ₩140,000 동방, 바지 : ₩160,000 두루막 : ₩140,000
2. 면 100% 조각무닛 무직 — 적삼, 바지 : ₩130,000 동방, 바지 : ₩150,000 두루막 : ₩130,000
3. 면(무지) (면솜 100%) — 적삼, 바지 : ₩130,000 동방, 바지 : ₩150,000 두루막 : ₩130,000
4. 무 명 — 적삼, 바지 : ₩180,000 동방, 바지 : ₩200,000 두루막 : ₩180,000
5. 법 복 (회색, 밤색) — 조끼, 바지 : ₩60,000 ~ ₩65,000
6. 장삼 (모직) — ₩200,000 ~ ₩250,000
7. 티셔츠 (처이나카라) — ₩30,000



[누비_동방,바지]

[누비_두루막]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 전화로도 가사, 누비 주문 받습니다 ※
● 찾아오시는길 : 대구 지하철 장앙로역 3번 출구 앞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섬유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대리점모집)

불자님, 이제 병고에서 벗어납시다!!

오랜세월 불보살님 가피를 입은 큰스님께서 세상에 한분 밖에 없는 초능력 힘을 지닌 불보살님으로 명명 받은 분께서, 병원에서도 치유되지 않는 원인모른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불자님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병명 수증증, 와사풍, 중풍(발병 6개월이내) 간질, 만성위염, 오장육부가 불편, 만성두통, 천식, 천도폐렴, 관절염, 만성피부질환, 정신질환 설사 및 어려운 병 등 (내방환영합니다)

※ 작명, 오행철학(五行哲學), 인생의 길 안내와 상담도 해드립니다

대구 팔공산 갓바위 뒷길 시 연 정 사
053)853-2211, 011-808-8880

- 매일경제신문 인쇄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다이어트를 위한 절식요법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대로,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최근 정치인들과 일부 연예인들 사이에서 자연발효 원액을 이용한 효소 절식법이 바람처럼 일고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입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영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흡식을 하려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팔보효소)
www.chorokwon.com



희미승 예원

영험 도량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접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접신
- 20년전 낙태혼 접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접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 원 사 초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악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비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밝은미소 건강한 마음 보람찬 인생

편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 수 있는 곳

성라 실버 타운 (유료양로원)

▶경기도 가평소재

▶시설안내 ◀
• 숙 실 수 : 96실(2인 기준) • 동 층수 : A동, B동 - 지하2층, 지상4층
• 숙실평형 : 9.5평
• 부대시설 :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 (시공중) 등.

[입주비용]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평생입주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입 주 금 헌납입주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이사장 석 정 화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 성라실버타운
본부사무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285번지
가평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49-4번지
☎(02)743-0294 / 743-4026 ☎(031)585-3323~5



◇강록사 화백의 '수월관음'(162×105㎝). 머리카락처럼 정교한 '사라'가 돋보인다.

서양화가 강록사씨, 고려불화 재현展

세계적으로 정교함과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있는 고려불화가 유화로 다시 태어났다. 특히 세밀한 표현부분이 많음에도 굵은 질감의 유화로 불화를 그린 것은 기존 불화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던 이례적인 작업으로 주목되고 있다.

서양화가 강록사(69)씨가 5년간에 걸친 각고의 노력끝에 완성한 '고려불화재현전'이 29일부터 5월 4일까지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내 서울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고려불화가 자랑스런 우리문화임에도 대부분이 일본에 소장돼 있는 것에 대한 한을 풀고자 한 것이다.



◇강록사 화백

유화로 환생한 고려 불보살

'수월관음' 등 28점 선보여

강화백은 일본 사찰을 수차례씩 드나들며 원화 도판을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았다. 열정이 넘치는 작업 과정과 함께 이번 전시가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고려불화를 유화로 그렸다는 것. 그림을 조금만이라도 아는 이라면 고개를 갸우뚱 할 수 있다. 어떻게 머리카락처럼 정교한 '사라(그물망으로 된 옷)'를 걸치고 있는 수월관음의 모습을 붓 터치가 굵은 유화로 표현할 수 있을까. 강화백은 이런 고민을 덜어내기 위해 제일 가는 서예붓의 털을 모두 면도칼로 자른 다음 3~4 가닥만 남겨서 사용했다.

이번에 전시되는 100호 크기(높이 162㎝)의 '수월관음'을 비롯해 '아미타여래', '아미타삼존', '아미타구존', '지장보살' 등 28점의 불화를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합장하게 된다. 아름다운 모습의 불보살들이 직접 살아있는 듯 착각이 들 정도로 정교함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 고충도 많았다. 고희를 바라보는 노구에 수년동안 하루 10시간씩 매달리다 보니 건강이 극도로 나빠졌다. 특히 정교함을 요하는 작업인지라 눈의 혹사가 가장 컸다. 또 고려불화가 대부분 7~8백년 이상된 것들이어서 손상된 부분이 많아 자료조사를 통해 원화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상당부분 필요했다. 그러나 창작한 그림도 두 점 들어있다. '백의관음' 왼쪽에 <반야심경>을 사경한 것이나, 아미타삼존중 양유관음의 모습에 반해 따로 떼어 그린 것은 강화백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다.

강록사 화백은 "보통 고려불화의 원화는 수성이 강한 석채를 사용해 습기에 약한 반면 유화는 기름성분이기 때문에 보존과 관리가 쉬워 그리기는 까다롭지만 수명이 훨씬 길다"며 "이런 유화적 질감의 특성 때문에 힘든 작업이지만 후손들에게 오랫동안 남기기 위해 도전해 보고 싶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강화백은 "가장 작업하기 어려운 부분이 부처님의 얼굴을 점안할때"라며 "자비로운 얼굴을 표현하기 위해 <반야심경>봉독을 하는 등 작업하기 전에 나름대로 점안식을 올렸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산사음악회 두 곳서 열려

고성 운흥사 4일, 해남 미황사 26일

경남 고성 운흥사는 4일 오후 2시 큰마당에서 국악인 손심심, 김준호 부부를 초청해 '우리소리 한마당'을 펼친다. '한오백년'을 비롯한 민요와 찬불가를 부른다.

산사음악회 전에는 성덕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이수자)이 출연해 영산재 의식인 괘불이운을 한다. (055)835-8656

전남 해남 미황사는 26일 밤 8시부터 범능 스님의 산사콘서트를 연다. 3집 음반인 '삼경에 피는 꽃' 출시 기념으로 기획된 이번 음악회에서 범능 스님은 '나무아미타불', '오월의 꽃' 등을 부른다. 이외에도 도종환 시인이 찬조출연해 시낭송을 한다. 공연이 끝나는 밤 10시부터는 범능스님과 차 한잔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 장소 관계로 이 다담(茶談) 프로그램은 스님의 홈페이지(www.buleum.pe.kr)를 통해 선착순으로 150명만 신청받는다. 콘서트만 볼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061)533-3521



◇범능스님

문화소식

'보리울의 여름' 시사회
전주서, 월주스님등 참석

김제 금산사와 금산면 일대에서 촬영한 영화 '보리울의 여름'(감독 이민용) 시사회가 3월 25일 전주시 덕진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전주 영상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시사회에는 송월주 前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과 금산사 스님 20명을 비롯해 이민용 감독, 장미희, 차인표씨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보리울의 여름'은 25일 전국 1백여개 스크린을 통해 개봉한다.

만해 한용운스님 생애
만화로 제작 인터넷에



만해 한용운 스님의 생애를 그린 만화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

국가보훈처(처장 안주섭)는 3월 25일 만해 스님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10명의 생애를 담은 만화를 제작해 인터넷 홈페이지(www.bohun.go.kr)에 올렸다.

'만화로 만나는 독립운동가'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은 김구, 김좌진, 안중근, 안창호 선생 등 독립운동에 앞장선 10명의 생애를 20여쪽 분량으로 쉽고 재미있게 담고 있다.

특히 만해 스님을 그린 만화 '어둠을 밝힌 민족의 등불'은 '오세호 프로덕션'이 제작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이 만화를 4월 초 대한독립임시정부수립기념일에 맞춰 단행본으로도 펴낼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btn 불교텔레비전 <ch 32>

08:00 BBS 뉴스광장
11:10 행복스튜디오, 황청원입니다
14:45 고승열전
18:15 유쾌한 저녁 길
22:05 영화음악실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2일 09:30 btn생활문화강좌 '화(花)'
3일 22:10 한국의 명찰
4일 07:30 송강스님의 기초교리강좌
5일 07:40 자연을 지키는 사람들
6일 12:10 구본일의 명상태교
7일 09:30 생활건강백과 오행생식

하이라이트

■**불교방송**:△**불교문화산책**(4월 2일 23:05)- 창작찬불가 '붓다' 등 주옥같은 불교음악을 작곡한 중앙대학교 국악학과 박범훈 교수가 출연해 용성스님, 운문스님 등 스님들이 주도한 찬불가 운동에 대해 설명한다.

■**불교텔레비전**:△**자연을 지키는 사람들**(4월 5일 07:40)-식목일 특집 프로그램. 국민의 95%가 불교신자이며 산림의 28%만 남아있는 태국. 그곳에는 16년간 마을주민들에게 자연보호를 가르치는 프라프라착 스님과 프라마하찬 스님이 있다. 직접 나무를 키우고 나무그루터기를 되살리는 두 스님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배운다.

가볼만한 전시회 2題

경암스님 선서화도예전
7일까지 법련사 불일미술관서

경암스님(워싱턴 보림사 주지)의 선서화 도예전이 7일까지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열린다. 스님의 작품은 모두 도자기 위에 펼쳐져 있다. 달마도를 비롯해 부처님, 연꽃, 매화, 코끼리, 난초 등 다양하다. 그림뿐만 아니라 <반야심경> 사경과 '불(佛)', '육바라밀', '선시' 등의 글씨도 있다. 모두 합해 100여점이 넘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또 서옹스님(백양사 고불총림 방장)의 글이 담긴 8폭 병풍과 석주 스님(칠보사 조실)의 <반야심경> 8폭 병풍, 중광스님의 '학' 등도 함께 선보인다.

경암 스님은 "부처님말씀과 불교의 세계를 도자기 위에 표현함으로써 선묵의 경지를 펼쳐 보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일보사 2층 부일갤러리(13~19일), 대전 시민회관 전시실(24일~5월 2일), 제주 신산갤러리(5월 27일~6월 2일) 순으로 진행된다. (016)9377-7797



◇달마선사를 그린 도자기.

흙판에 '욕·색·무색천' 표현
10~15일 日 후쿠오카 한승구展

부산출신의 불화가 한승구씨가 10일부터 15일까지 일본 후쿠오카 아시안 갤러리에서 '욕(欲)·색(色)·무색천(無色天)'을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일본 나들이에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 등 삼계를 표현한 작품 50여점이 선보인다. 여기에다 비로자나불도, 관세음보살도, 지장보살도도 함께 벽에 걸린다.

한씨의 작품이 다른 불화와 틀린 점은 흙으로 만든 화판에다 그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채색이 곱지 못하고 거칠어 벽화의 느낌마저 든다. 이번 전시작품들을 보고 있노라면 동일한 구도를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욕계와 무색계의 중간적 단계인 색계를 그림 중앙의 네모안에 표현했다. 또 화면 맨 위는 물욕 등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무색계를 그렸다. 후쿠오카 아시안 갤러리 (092)263-1100.



◇한승구씨의 '욕 · 색 · 무색천'.

무궁무진한 우리 전통문양을 집대성한 한국의 美 『무늬』

사진 · 안장헌 / 글 · 이기선



문화재 사진작가 「안장헌」의 섬세한 영상과
불교조형연구소 소장인 「이기선」의
유려한 해설이 돋보이는 한국무늬의 집대성

무늬에 관한 책이라면 지금까지는 무늬를 그림으로 옮겨 수록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 책은 무늬가 베풀어진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원형 그대로 수록한 것으로 그야말로 조금도 변형되지 않은 무늬의 원광석인 책이다.
오늘날 각종 산업과 문화는 디자인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전통문화를 응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따라서 이 책은 미술사가들은 물론 종교인, 디자이너, 문화 애호가들에게 단비 같은 자료가 되리라 믿는다. 일일이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원형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의 특징
1) 무늬를 있는 그대로 살린 원색 사진
2) 충실한 자료는 답사와 연구의 길라잡이
3) 258페이지에 수록한 총 308컷의 풍부한 도판
4) 최대한 한글화한 무늬 용어
5) 쉽게 풀이한 무늬의 발생과 상징성

4X6 변형배판, 스노우 화이트, 총256쪽
정가 28,000원



저승길을 가며 타는 꽃가마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리는 호사가 아닌가. 더구나 무덤 가를 지키고 있는 망주석이나 장명등에도 무늬는 베풀어져 있다.
이렇듯 무늬는 우리의 삶과 죽음을 모두 아우르며 시간과 공간을 넘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인다.

- 저자의 말 중에서 -

문양 작품들에 담긴 선조들의 장인 혼을 이제 시공을 초월하여 역시 장인의 정신으로 카메라 렌즈의 초점을 통해 일치시키고자 했던 저자들의 노고가 잘 담겨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우리의 전통 무늬에 깃들어 있는 창조적 정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새로운 무늬의 창조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부디 이 책이 출간됨을 계기로 많은 이들이 헤맴 없이 우리 문화에 대한 새로운 개안이 있기를 기대한다.

오원배(동국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사단법인 불교문화산업기획단

호영출판사 TEL 02-3442-5131 FAX 02-511-1882



일러스트 / 최정근

봄은 결혼의 계절이다.

결혼과 함께 신경 써야 할 일이 임신과 출산이다. 임신을 하게 되면 자연히 평소보다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이 조심스러워진다. 어머니의 본능적인 '태교'인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엄마의 그 귀한 뜻을 이룰 수 없다. 모르고서는 할 수 없는 '뱃속의 아이'를 위한 교육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태교의 중요성과 그 방법을 알아본다.

마음 닦아 좋은인연 만드세요

태교

참선이나 독경·사경 등 수행 꾸준히 음식조절 등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태교의 시작**=태교연구가인 성우 스님(파계사 주지)은 "임신이 되기 전에 선업을 쌓아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것이 태교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부모의 업장을 녹이고 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임신 전부터 독경과 명상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태교이야기(www.jabi0408.com)'를 운영하고 있는 영진 스님 또한 건강한 모체와 부부간의 지극한 애정이 태교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임신을 한 상태라면 아이와의 좋은 인연을 만들겠다는 자세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식 태교 방법**=태교는 좋은 인연이 올 수 있도록 마음을 닦는 수행이다. 때문에 불교식 태교 방법은 육바라밀(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실천으로 요약된다. 바른 몸가짐으로 업장 소멸을 위해 수행하며 선행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등이 산모가 실천해야할 덕목이다.

그 중에서도 선정과 정진은 임산부에게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산모가 가족이나 이웃 간의 불쾌한 감정, 인간관계에서 오는 갖가지 일들로 감정이 상하고 정신적인 불안이 쌓이면 실제 호흡은 조용한 듯하지만, 태아에게는 은근한 압박과 충격을 주게 된다. 참기 어려운 일에 부딪쳤을 때는 호흡을 크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힌다.

영진 스님은 이런 때 매일 시간을 정해 참선이나 염불, 사경을 함으로써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수행의 공덕을 쌓을 것을 당부한다. 명상태교문화원 구본일 원장은 하루 15분씩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집중하는 명상태교를 권한다. 명상태교를 하면 심성이 깨끗해지는 것은 물론 태아의 집중력과 두뇌기능이 향상된다고 한다.

◑**생활습관**=바른 태교를 위해서는 검소한 생활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 식사를 할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채식과 육식의 비율은 3:1 정도가 되게 한다. 인스턴트식품은 가능한 섭취하지 않는다. 식사는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가 몸이 가장 왕성할 때이므로 이때 하루 먹는 칼로리의 60%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저녁은 일찍, 가볍게 먹는다.

또한 사치하거나 허황된 생각을 품지 말고, 악한 말도 삼간다. 자극적인 매체를 접하는 것도 줄여야 한다. 음주, 흡연은 물론 도박 등 사행성 있는 일을 피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태교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태아가 가정 분위기에서 안정감을 얻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모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이 점을 유의해 가정을 화목하게 꾸려나갈 때 비로소 아름다운 만남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불교식 태교 관련자료**

△태교이야기(www.jabi0408.com) 순천 송광사 영진스님이 운영하는 불교식 태교사이트. 저서 <은혜로운 만남을 위한 태교> 수록.

△명상태교문화원(www.taekyo.re.kr) 명상태교문화원 구본일 원장이 운영. 불교텔레비전에 방송된 '명상태교' 강좌를 볼 수 있다.

△<태교에세이>, <태교>(성우 스님 지음, 토방)

△<착한이여 내게로 오렴>(영진 스님 지음, 송광사)

△<명상으로 하는 태교와 육아>(구본일 지음, 우리출판사)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집에서 만드는 사찰음식

쑥 연근전



쑥 300g, 연근 1개, 칡녹말, 소금, 식용유, 초고추장(고추장 2큰술, 설탕 1작은술, 식초 1작은술, 통깨 1큰술)

1. 쑥을 씻어 물기를 뺀 후 살살 썬다. 연근은 껍질을 벗겨 강판에 갈아 소금을 조금 넣는다. 물이 생기면 칡녹말을 조금 넣는다.
2. 쑥과 연근 간 것을 섞어 반죽해 손바닥 위에서 모양을 잡는다.
3. 중불에서 팬을 달군 후 기름을 두르고 전을 얇게 부친다. 초고추장과 함께 낸다.

<제공=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클릭 /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녹야 두피보호크림



자외선 차단 이물질 발생 방지

모발의 근원인 두피는 자외선에 노출되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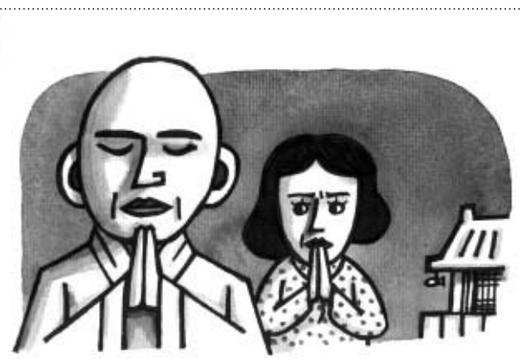
'녹야 두피보호크림'은 머리카락이 제거된 두피에 자외선을 차단하고 이물질 발생을 방지해 두피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또 알로에 베라와 보습제가 함유되어 있어 두피를 항상 촉촉하고 윤기 있게 가꾸어 준다. 값 3만원. (02)732-1520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스님을 사모하는데…

스님 하시는 일 도우며 감정을 승화시켜 나가세요



저를 찾아 온 30대 초반의 부인은 몹시 힘들어하는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자신의 감정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있고, 부처님에게는 물론 가족 모두에게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 감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인은 괴로운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학창시절 부인의 꿈은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감화를 주는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좌절에 빠진 학생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정의 편에 서서 학생들을 지켜주는 그런 선생님. 하지만 부인은 자신의 꿈을 실천에 옮겨보지 못하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부인이 그렇게 한 것은 임용고시에서 탈락한 때문도 있지만 그보다는 부모님의 권유를 뿌리칠 수가 없어서였다고 했습니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어머니는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서 10년 이상 별탈 없이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10년이라는 세월은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도 참으로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그렇게 힘든 세월을 살다보니, 가족 중 의사가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가족들은 막내딸인 부인에게 의사와 결혼하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부인을 따라 다녀서 가족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남학생이 의대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가족들은 그 남학생과 결혼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중등교사 임용고시에서 탈락해 깊은 좌절감속에 빠져있던 부인은, 의사직업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마지막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족의 권유를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부인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결혼하려는 남자에 대해 애정을 느끼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 해서 의대에 갔고, 의대를 갔기 때문에 장래가 보장되는 남자였지만 부인은 남편 될 사람에 대해 전혀 애정을 느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남편 될 사람이 성격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결함마저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였다고 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이상한 말처럼 들리지만 '성실함' 말고는 어떤 맛도 내지 못하고 있는 남자에 대해 애정을 느낄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르지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한 부인은 딸 하나를 낳고 3년 동안 아내로서의 자리를 착실히 지켜왔다고 했습니다. 가끔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이 근무하는 종합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게 하는 것을 유일한 보람으로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럴 무렵 부인은 우연한 기회에 친구를 따라 절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친구를 따라 절에 갔는데 그곳에서 운명적인 사랑을 하게 된 걸 보면, 자신이 절에 나간 건 우연이 아니라 어쩌면 필연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스님을 처음 보는 순간 가슴이 설레면서 오랜 세월 제가 찾고있던 분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남자를 보았지만 스님에게서 느꼈던 그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부인은 스님과의 첫 만남을 이렇게 설명한 후,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스님을 보고 있으면 학창시절 자신이 꿈꿔왔던 삶을 스님에게서 되찾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님에게로 한없이 빠져든다고 했습니다.

"스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처님을 사랑하게 했고, 스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교를 사랑하게 했어요. 어떤 때는 스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절에 갔다가 그런 제 감정이 부끄러워서 법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스님이 계신 방만 바라보다가 돌아 온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가슴 한켠이 쓸쓸하고 허전해서 오랫동안 거리를 배회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저를 사로잡고 있는 이 절절한 감정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건가요? 선생님, 제 감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인의 질문을 받고 난 저는 '의상대사와 선묘' 얘기를 했습니다. 높은 이상을 가진 스님을 보고 있으면 젊은 날의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다고. 그러니 스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도움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승화시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요.

스님을 사모하는 여성 불자가 어찌 저를 찾아 온 그 부인만이겠습니까. 요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化緣 (02)704-3577

제8회 현대불교 신행수기 당선작 (총화종 총무원장상)

무명의 삶에서 불법 만나기까지 (하)

정일환(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그러나 예전에 교회에 나갔었다는 기독교적 사고 때문에 선뜻 절에 갈 용기가 나질 않았다. 그래도 부처님 명호, 수인(手印), 현판, 주련 등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다. 그러한 내게 불교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도록 일깨워준 친구가 있다. 내가 삶을 힘들어 할 때면 항상 해주는 말이 바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였다. 나중에 알고보니 80권 화엄경의 '보살설계품'에 나오는 말이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렸고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현상이라는 이 말은 항상 내 가슴에 와 닿았고 또 역경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1990년 봄, 같이 일하던 동료가, 불교기초교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소개했다. 동산반야회인데 매주 일요일마다 조계사 불교회관에서 교리강좌를 열었다. 3개월 과정을 공부하는데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니 너무나 신심이 났다. 2천5백여년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진리의 말씀으로 생생히 다가오는 것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가슴이 환희심으로 가득찼다. 불교를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처처안락국(處處安樂國)' 이라는 말의 의미가 생생하게 다가왔다. 가는 곳마다 좋은 곳이라 느껴졌고 날마다 좋은 날이라 생각됐다.

그 한 생각을 바꾸지 못해 여지껏 어둠속에서 헤맨 세월이 너무 길었음이 솔직히 안타까웠다. 늦게 불교에 입문한 만큼 열심히 정진하고 불자로서 부끄럼없는 신행생활을 하리라 각오를 다졌고, 불교를 모르는 이에게 포교도 해야겠다는 사명감도 생겼다.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다고 했기에, 불교로 이끌어준 모든 인연들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픈 심정이었다.

기초교리강좌를 수료하자 수계를 받게 됐다. 계사이신 암도스님(前 조계종 포교원장)이 '무학(無學)' 이라는 법명을 주셨다. 92년 봄에 동산불교대학이 개교하자 다시 2년 과정의 불교학과에 입학했다.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교수님들로 강사진이 짜여있어 강의가 훌륭했다.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공부가 재미있었다. 나는 마치 어둠이 점점 걷히는 기쁨, 꽁꽁 숨겨논 보물을 찾은 듯한 기쁨이 새록새록 솟아올랐다. 강의내용을 빠짐없이 필기했고 강의 테이프를 구해서 듣고 또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했다. 부처님 가르침을 알면 알수록 실천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생겨났다.

사람이 백 명이면 백가지 불교가 있다고 했다. 사람마다 근기가 서로 다르기에 부처님은 병 따라 약을 주는 대기설법을 통해서 중생을 교화하셨다. 불법은 불이(不二)라,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 한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존립할 수 없다. 서로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상의상관의 관계라고 배웠다. 2년동안 동산불교대학을 열심히 다녔더니 개근도 하게 됐고 최우수상이라는 과분한 상도 수상하게 되었다. 학교측의 배려로 3년을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조계종 포교사 고시에도 응시해 포교사 자격도 취득했다.

佛母의 자긍심 교리 공부하며 깊어져 자비안에서 사는 오늘 더욱 소중해

동산전문연구원에서 종범스님(현 중앙승가대 총장)의 금강경 강의를 거의 다 배울 무렵, 직장을 옮기게 됐다.

국내 사찰에 모시는 청동부처님을 조성하는 혜성불교미술원이 새 직장이었다. 현재 불모(佛母)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당당하게 일하고 있다. 우리가 지성껏 조성한 부처님이 전국 사찰에 모셔져 불자들의 귀의를 받고, 신심을 일깨운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크다.

95년 12월에는 서울 혜화동에 자리한 금강경독송회와 인연이 되었다. 김재웅 법사가 쓰신 <닦는 마음 밝은 마음>이라는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금강경 독송과 정진을 생활화하는, 마음 바치는 공부에 몰두했다. 금강경독송회는 마음 바치는 법이 핵심 수행법이다. 지금도 포항 금강정사에서는 많은 불자들이 금강경 독송과 정진을 늦추지 않고 있다. 마음바치는 법은 금강경을 독송하고 미륵존여래불 정진을 하며 시시때때로 올라오는 탐심을 깨트리고 진심은 바치며 근심 걱정 번뇌 등 모든 것을 미륵존께 바쳐서 깨트리는 마음공부다.

이러한 수년간의 소중한 불법 인연들이 나의 무명의 삶을 혜명의 삶으로 바꾸어 놓았고 부처님 자비안에서 사는 오늘이 더욱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소중한 오늘을 서너 배 늘려 살며 이 땅을 불국정토하는데 포교사로서 또 불자로서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생겁래 무시겁으로 지은 업보 업장을 해탈, 탈겁해서 모든 재앙을 소멸하고 심중의 소원은 모두 다 밝게 성취하며, 우리 나라가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을 이룩하고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남북통일의 대원은 밝고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부처님전에 복많이 짓겠습니다"하는 발원을 늘 하고 있다. (끝)

그림 · 김홍인



김산호 회화극본 부처님

The story of Holy Buddha

제5화 得遇沙門 ①

지금까지 싯다르타 태자가 교육 받아온 종교관은 바라몬교의 성전(聖典)인 <리그베다>에 한정되어 있었다. <리그베다> 에서는 천신(天神) 디야우스, 태양신 스리야, 새벽의 여신 우샤스, 비의 신 파르쟈누스, 바람의 신 바유, 폭풍의 신 루도라, 불의 신 아그니, 물의 신 아파스, 뇌신 인드라 등등 자연현상을 신격화 한 정도의 것들이었다. 따라서 부귀, 장수, 건강, 번영, 승리, 등을 원하거나 불행, 재앙, 병,고난 등을 피하고 싶을 때는 각각 원하는 신을 불러내어 공물을 바치고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면 되는 것으로, 인간의 질병과 늙음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을 구하려는 태자의 고민에 별 도움이 될 수가 없었다.

싯다르타 태자는 오랜시간 고뇌의 투쟁으로 심신이 더 이상 견딜수 없을 만큼 극도로 피곤해 있었다. 이런 상태로는 제아무리 노력을 경주한다 해도 아무런 해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므로 무언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겠다고 생각한 태자는 정신을 맑게 해 볼 생각으로 성의 북문 밖에 있는 숲속으로 신선한 바람을 쏘이러 나갔다. 그런데 태자가 숲속에 도착하여 발견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그곳에 미리 자리잡고 수도에 열중하고 있던 한 브라만 승려였다.

숫도다나 라자의 명령으로 이른 아침부터 병사들을 풀어 숲속을 샅샅이 뒤져 모든 수도승들을 다른 곳으로 축출했는데 어찌하여 이 승려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지극히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대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이런 숲속에 혼자 앉아 무엇을 하고 있는가?"

"출가공덕이라는 것을 어찌 말로써 다 여쭐 수가 있을 것이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며 덧없이 흘러가고 있사옵니다. 사람은 제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문득 태어나서 늙어가며 병들어 죽으면서 세상은 이룩되고 또 무너진다는 이치를 깨닫고 나서 그 죽음에서 벗어나 보려고 도를 닦고 있습니다. 이 고요한 숲속에서 수행을 쌓아 고뇌에서 초월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수행하는 것은 깨끗하고 성스러운 길입니다. 저는 바른 법을 실천하고 관능을 넘어 큰 자비를 일으키려 합니다. 세간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영원히 해탈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싯다르타 태자는 갑자기 정신이 맑아옴을 느꼈다. 그동안 얼마나 오랜 시간을 고뇌의 바다속에 빠져 허우적 거려 왔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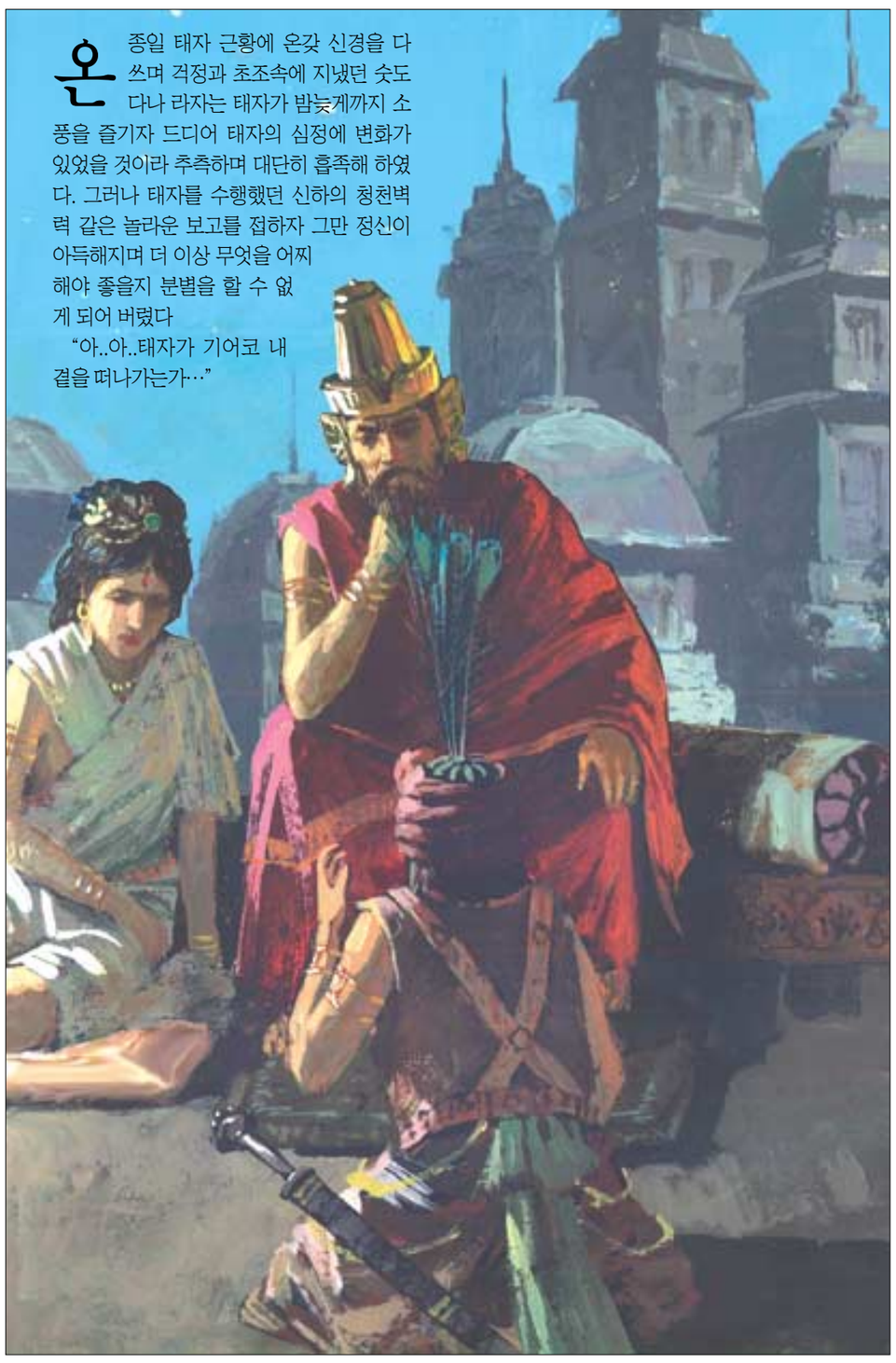
그러나 오늘 이곳에서 우연히 만난 이름 없는 사문의 출가 공덕을 쌓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장님이 눈을 뜨듯 자신이 가야 할 길이 환히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태자와 사문간의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고 어느덧 숲속에 땅거미가 내렸다. 곧 밤이되어 성문이 닫히기 전에 서둘러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할 수 없이 내일을 기약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옮겼다. 태자는 약속대로 다음날 다시 그 사문을 찾았으나 그의 모습을 두 번 다시 찾을 수 없었다.

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그 광채를 빛내고 있을 즈음 태자는 궁성으로 되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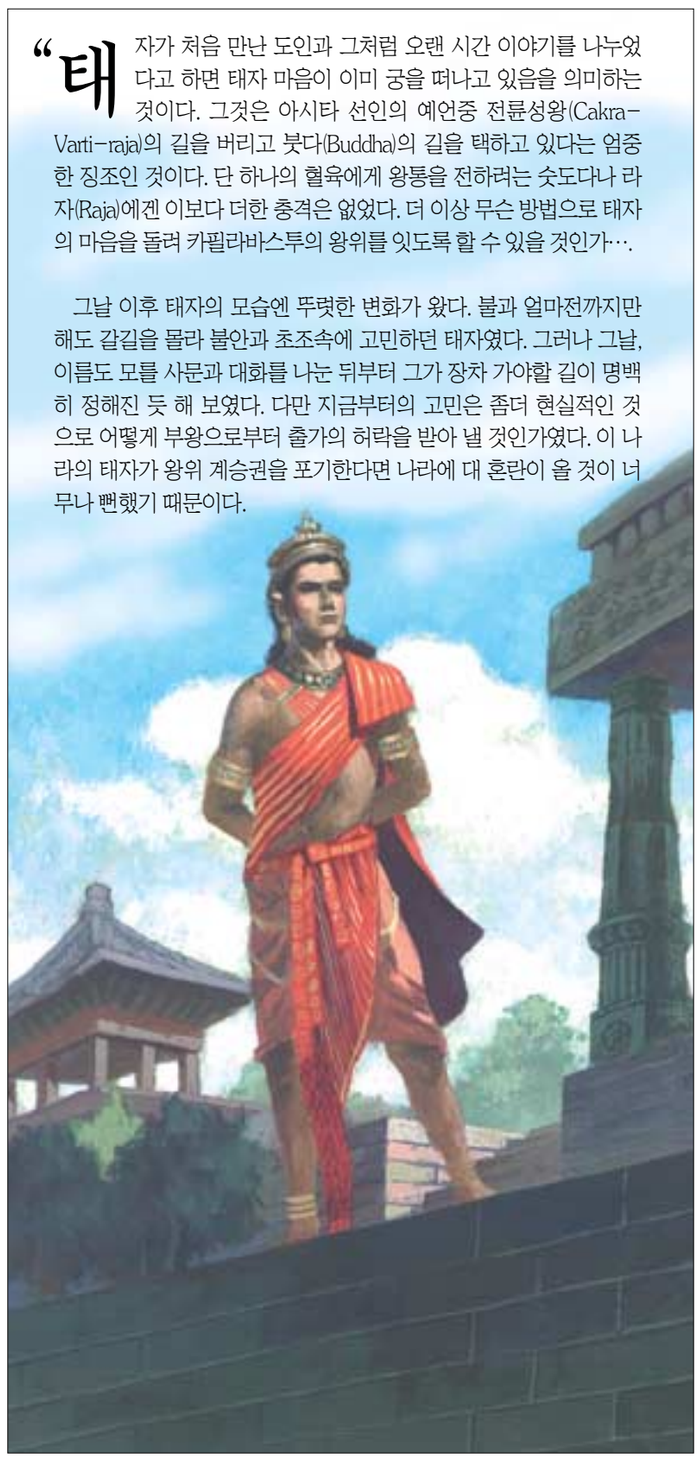
온종일 태자 근황에 온갖 신경을 다 쓰며 걱정과 초조속에 지냈던 숫도다나 라자는 태자가 밤늦게까지 소풍을 즐기자 드디어 태자의 심정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며 대단히 흡족해 하였다. 그러나 태자를 수행했던 신하의 청천벽력 같은 놀라운 보고를 접하자 그만 정신이 아득해지며 더 이상 무엇을 어찌해야 좋을지 분별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아..아..태자가 기어코 내 곁을 떠나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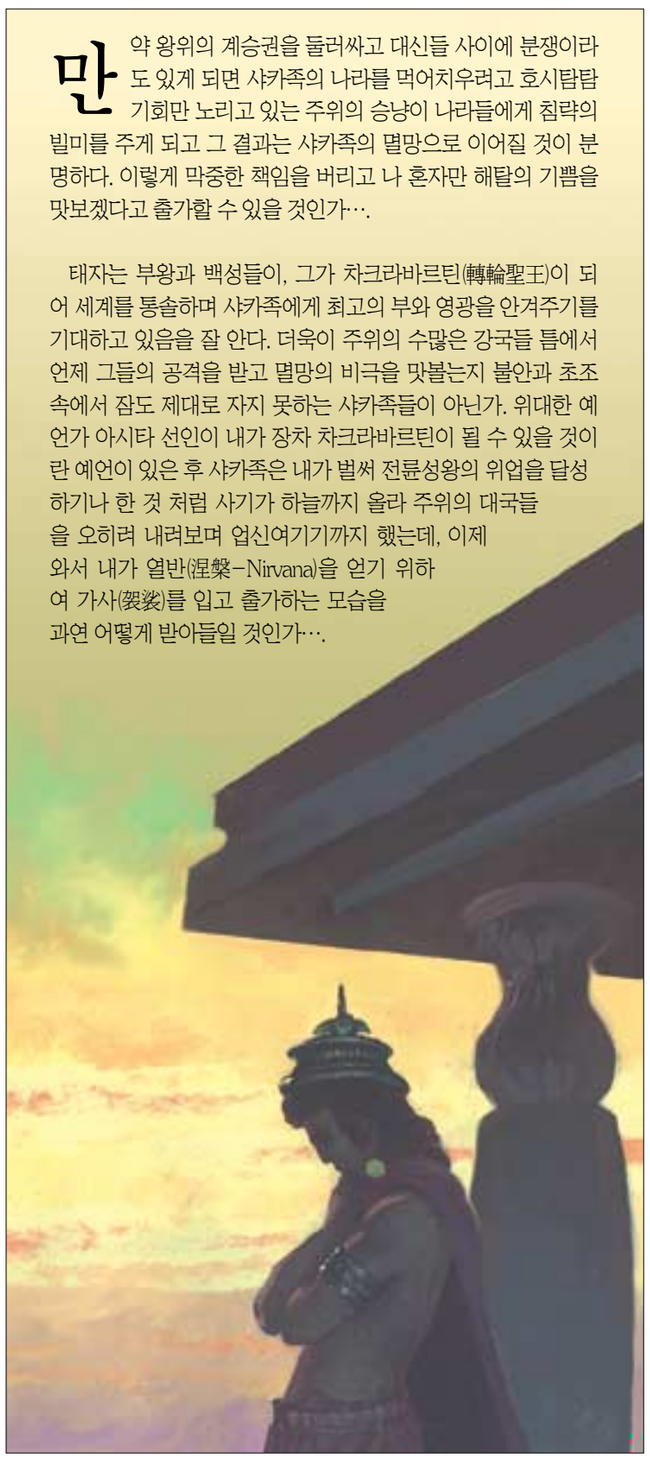
"태자가 처음 만난 도인과 그처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면 태자 마음이 이미 궁을 떠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시타 선인의 예언중 전륜성왕(Cakra-Varti-raja)의 길을 버리고 붓다(Buddha)의 길을 택하고 있다는 엄중한 징조인 것이다. 단 하나의 혈육에게 왕통을 전하려는 숫도다나 라자(Raja)에겐 이보다 더한 충격은 없었다. 더 이상 무슨 방법으로 태자의 마음을 돌려 카필라바스투의 왕위를 잇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날 이후 태자의 모습엔 뚜렷한 변화가 왔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갈길을 몰라 불안과 초조속에 고민하던 태자였다. 그러나 그날, 이름도 모를 사문과 대화를 나눈 뒤부터 그가 장차 가야할 길이 명백히 정해진 듯 해 보였다. 다만 지금부터의 고민은 좀더 현실적인 것으로 어떻게 부왕으로부터 출가의 허락을 받아 낼 것인가였다. 이 나라의 태자가 왕위 계승권을 포기한다면 나라에 대 혼란이 올 것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이다.



만약 왕위의 계승권을 둘러싸고 대신들 사이에 분쟁이라도 있게 되면 샤카족의 나라를 먹어치우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 주위의 승냥이 나라들에게 침략의 빌미를 주게 되고 그 결과는 샤카족의 멸망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버리고 나 혼자만 해탈의 기쁨을 맛보겠다고 출가할 수 있을 것인가….

태자는 부왕과 백성들이, 그가 차크라바르틴(轉輪聖王)이 되어 세계를 통솔하며 샤카족에게 최고의 부와 영광을 안겨주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잘 안다. 더욱이 주위의 수많은 강국들 틈에서 언제 그들의 공격을 받고 멸망의 비극을 맛볼는지 불안과 초조속에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샤카족들이 아닌가. 위대한 예언가 아시타 선인이 내가 장차 차크라바르틴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예언이 있은 후 샤카족은 내가 벌써 전륜성왕의 위업을 달성하기나 한 것 처럼 사기가 하늘까지 올라 주위의 대국들을 오히려 내려보며 업신여기기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열반(涅槃-Nirvana)을 얻기 위하여 가사(袈裟)를 입고 출가하는 모습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존경하는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길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큰 것 작은 것 가릴 사이 없으니 닥치는 대로 집어 삼키며 뚫고 나가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한자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과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도반으로서 토론도 하고 질문도 하지만, 여러분이 질문을 해도 한 사이가 없고 내가 대답을 해도 대답한 사이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도리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달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어떤 것도 다 그렇지만 특히 말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하긴 했으나 자취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소리가 난 것은 마치 귀신 방귀와도 같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방귀를 뀌긴 뀌었는데 순데간데가 없습니다. 말이란 그와 같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말을 하면 내가 들었을 뿐이 법당 안 어디에도 남은 자취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히 여러분이 먹었고 내가 먹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한테 내가 삼구 한 개씩을 드렸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먹으면 없어지듯이, 또 반대로 여러분이 나에게 계 준 삼구를 내가 먹어 버린다면 그 삼구가 없어지듯이, 그와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질문을 하여도 질문한 사이가 없고, 내가 들어도 들은 사이가 없고, 말을 해도 말한 사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내가 질문을 했다, 내가 질문할 것은 이러한 것이다' 하는 데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은 하찮은 질문일 텐데 어떻게 질문을 하나?' 하고 망설인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이러한 질문 자체가 바로 분별심이고 망상이야!' 하고 속단하고 그대로 주저앉고 마는데 그러지 마시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천금 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막중한 공부를 하는 마당에서 작은 것 큰 것 가릴 사이가 없습니다. 닥치는 대로 뚫고 나가야 하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 오면 작은 대로, 큰 것이 오면 큰 대로 먹어치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작다 크다 하는 분별을 몰록 놓고 나갈 때, 어떠한 큰 것이 와도 다 먹어치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다는 생각도 없어야 비로소 그것도 먹어치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렇다 저렇다, 옳다 그르다, 유다 무다 하는 양변을 몽땅 놓으라는, 즉 먹어치워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모든 분별을 놓고 일체를 들로 보지 않아야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은 툭하면 분별이니 망상이니 하면서 분별을 끊어야 한다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데,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해 애쓰는데 그것이 그렇게 끊자고 해서 끊어지고 버리자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끊으려고 하면 더 일어나고, 버리려고 하면 더 달라붙습니다.

분별이다 망상이다 하지만 그것이 본래 공해서 따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자기 마음에서 지은 환인 줄 깊이 안다면, 그대로 녹아버리고 말 것을, 실체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끊으려 애를 쓰고 버리려 애를 쓴다면, 오히려 그것이 다시 분별심이 되고 망상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분별이다 망상이다 하고 걱정할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습니다. 분별은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밑거름으로써 구름 같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진화시키는 촉진제가 되는 것입니다. 분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의 지혜가 밝아지고 넓어질 수도 있고 부처를 이룰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생각 자체를 겁을 내며 생각나는 건 모두 분별이며 망상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오히려 그 생각에 걸려서 망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항상 생각나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르게 내셔야 합니다. 모두가 다 생각에 의해서 상천세계로 올라가기도 하고 하천세계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생각을 바르게 낸다는 것은 어떠한 입장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생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에 휩쓸리지 말고,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거기에다 일체를 맡겨 놓아서 한번 돌리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하면 샘물이 솟아나듯이 밝은 지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지혜가 바른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바른 생각에 의해서 자기 몸 속의 수많은 세포의 중생들도 다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른 생각을 냄 수 있도록 오로지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십으로써, 지킨다는 생각도 없이 질서와 계율도 지키게 되고, 사랑과 의리, 도의 그리고 시간도 지키게 되는 실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런 가운데 스스로 자유권을 얻게 되어 모두가 자유스럽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바다에 가 보십시오. 바다는 맑은 호수처럼 조용하다가도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닷물과 파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바람이 일면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잠잠해지면 바다는 그냥 조용해집니다. 바닷물이든 파도이든 한 바다요, 다 같은 물입니다. 그 물은 파도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얼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젖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처럼 바닷물의 여러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요 그리고 진리와 도의 모습과 같은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마치 바람이 자면 바다가 조용하듯이 마음이 조용해지면 망상이 가라앉았다고 하고, 바람이 일면 파도가 일듯이 마음이 산란하면 망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그와 같이 생각하신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참선을 어떻게 해 나가시렵니까? 바다와 파도의 근본이 물이 아니듯, 분별 망상과 보리도 물이 아니므로 망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모두 놓아버려야만 진정 나도 없고, 분별 망상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분별을 다 놓고, 놓는다는 것마저도 다 놓고 쌕 쉬지 못한다면, 일일이 모든 것에 끄달리게 되어서 보는 대로 분별이고, 보는 대로 망상이고 되고 맙니다. 그리고 본래는 쉬는 것도 없고 망상이 일어날도 없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망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며 가라앉는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각자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고도 없고 별도 없고, 세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온 그 자체가 바로 태초입니다. 내 몸이 나온 이 자체가 바로 화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도 걸리지 말고 미래에도 걸리지 말고, 즉 과거도 놓고 미래도 놓고, 오로지 영원의 오늘 지금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의 소리에 따라 이쪽으로 치우치지도 말고 저쪽으로 치우치지도 마세요. 모든 일체가 다 같이 공생 공용 공식하는 한마음의 나툼이기 때문입니다. 한마음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포괄적이며 전체적인, 그러면서도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다 같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마음이기 때문에 손가락을 하나 들어도 일체가 다 같이 들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도리를 진실히 믿고 그대로 해 나가는 실천공행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분별하고 고집하고 그런다면, 언제 여러분이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실천공행하는 그러한 무심법행을 할 수 있겠으며, 또 언제 여러분이 인간 세상 이 통 속에 갇혀 사는 그런 노예의 삶이 아니라 통 밖에서 통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통을 굴리며 사는 참다운 자유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자신으로부터 해방되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자신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박으로 쏠리는 모든 분별을 놓고 쉬어서, 무심이 되어 참다운 본심에 계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심으로써 모든 것을 대하고 무심으로써 일체를 다 맡기고 무심으로써 일체를 다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다운 자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신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밖으로 쏠리는 모든 분별을 놓고 쉬어서 무심이 되어 참다운 본심에 계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심으로써 모든 것을 대하고 무심으로써 일체를 다 맡기고 무심으로써 일체를 다 놓아야 합니다.

어떠한 생각이 나더라도 그것에 휩쓸리지 말고 근본에 맡겨 놓고 돌리면 샘물이 솟듯 밝은 지혜가 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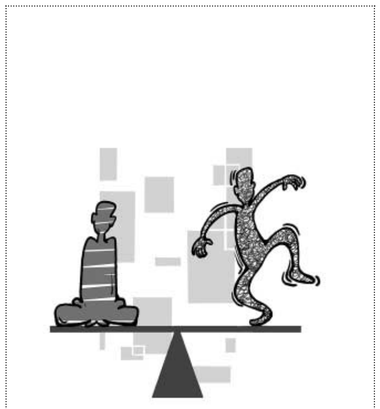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분별이다 망상이다 하는 것 마음의 환상인줄 깊이 안다면 그대로 녹아버리고 말아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나는 질문을 했다, 내가 질문할 것은 이러한 것이다' 하는 데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은 하찮은 질문일 텐데 어떻게 질문을 하나?' 하고 망설인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이러한 질문 자체가 바로 분별심이고 망상이야!' 하고 속단하고 그대로 주저앉고 마는데 그러지 마시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천금 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막중한 공부를 하는 마당에서 작은 것 큰 것 가릴 사이가 없습니다. 닥치는 대로 뚫고 나가야 하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 오면 작은 대로, 큰 것이 오면 큰 대로 먹어치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작다 크다 하는 분별을 몰록 놓고 나갈 때, 어떠한 큰 것이 와도 다 먹어치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다는 생각도 없어야 비로소 그것도 먹어치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렇다 저렇다, 옳다 그르다, 유다 무다 하는 양변을 몽땅 놓으라는, 즉 먹어치워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모든 분별을 놓고 일체를 들로 보지 않아야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은 툭하면 분별이니 망상이니 하면서 분별을 끊어야 한다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데,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해 애쓰는데 그것이 그렇게 끊자고 해서 끊어지고 버리자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끊으려고 하면 더 일어나고, 버리려고 하면 더 달라붙습니다.

분별이다 망상이다 하지만 그것이 본래 공해서 따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자기 마음에서 지은 환인 줄 깊이 안다면, 그대로 녹아버리고 말 것을, 실체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끊으려 애를 쓰고 버리려 애를 쓴다면, 오히려 그것이 다시 분별심이 되고 망상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분별이다 망상이다 하고 걱정할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습니다. 분별은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밑거름으로써 구름 같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진화시키는 촉진제가 되는 것입니다. 분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의 지혜가 밝아지고 넓어질 수도 있고 부처를 이룰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생각 자체를 겁을 내며 생각나는 건 모두 분별이며 망상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오히려 그 생각에 걸려서 망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항상 생각나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르게 내셔야 합니다. 모두가 다 생각에 의해서 상천세계로 올라가기도 하고 하천세계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생각을 바르게 낸다는 것은 어떠한 입장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생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에 휩쓸리지 말고,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거기에다 일체를 맡겨 놓아서 한번 돌리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하면 샘물이 솟아나듯이 밝은 지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지혜가 바른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바른 생각에 의해서 자기 몸 속의 수많은 세포의 중생들도 다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른 생각을 냄 수 있도록 오로지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십으로써, 지킨다는 생각도 없이 질서와 계율도 지키게 되고, 사랑과 의리, 도의 그리고 시간도 지키게 되는 실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런 가운데 스스로 자유권을 얻게 되어 모두가 자유스럽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바다에 가 보십시오. 바다는 맑은 호수처럼 조용하다가도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닷물과 파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바람이 일면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잠잠해지면 바다는 그냥 조용해집니다. 바닷물이든 파도이든 한 바다요, 다 같은 물입니다. 그 물은 파도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얼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젖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처럼 바닷물의 여러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요 그리고 진리와 도의 모습과 같은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보아도 본 바가 없고, 들어도 들은 바가 없고, 해도 한 바가 없는 무심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자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신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밖으로 쏠리는 모든 분별을 놓고 쉬어서, 무심이 되어 참다운 본심에 계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심으로써 모든 것을 대하고 무심으로써 일체를 다 맡기고 무심으로써 일체를 다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다운 자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과거도 미래도 모두 놓고 영원의 오늘에 충실해야

여러분 마음이요 내려가는 것도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르게 내라, 마음을 바르게 쓰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 마음의 주인공을 믿고, 모든 것을 다 주인공에 맡겨 놓고 무심법행으로 생활해 나가는 이것이 도에 이르는 길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나도 예전에 어느 큰스님께 들었습니다. 아마 조선시대 광해군 시절인가 봅니다. 어느 마을에 김진사 댁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삼대째 독자로 내려왔는데, 그만 김진사 대에 와서는 나이 50이 넘도록 아들을 두지 못하여 대till 끊기게 될 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러 다니는데 안 다닌 절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인이 어느 절에를 가니까, 그 절에 계신 큰스님께서 그 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지껏 절에를 다녔어도 다닌 사이가 없고, 불공을 드렸어도 드린 사이가 없느니라. 그러니 오늘부터는 진짜 불공을 드리도록 하여라! 일체가 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니까 일체를 다 거기에다 맡겨 놓아라! 생남을 못한 것도 손으로 이와 같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모두 자력신앙으로 진실히 믿고 행을 한 댁분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부인이 해산을 하였는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늦게 본 자식이라 불면 꺼질세라 아주 귀하게 키우는데 어느덧 그 아이가 열살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겁니다. 통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옴짝달싹도 하지 않는 것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김진사 부부는 물론 집안이 온통 난리가 났으나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어느 날, 탁발 나온 어느 스님이 이 집 문 밖에 서서 목탁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던 이 집의 머슴이 화를 내면서, "우리 도련님이 지금 다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남의 사정도 모르고 밖에서 목탁 치는 저 놈은 어떤 놈이냐?" 하고 소리를 치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탁발 나온 그 스님은 머슴한테 코가 땅에 닿도록 공손히 절을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자 이 머슴이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까 여지껏 평생을 살아 왔어도 그렇게 존대를 받아 본 예가 없었던지라 눈물이 나도록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아 보니 그만 감격하여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스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스님 같으신 분이 어디 또 계시겠습니까? 저는 이 날까지 한번도, 하다 못해 애들한테까지도 존대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늙도록,"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머슴은 혹시 스님이시라면 이를 도를 병에 죽어 가는 우리 도련님을 낫게 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자초지종을 주인 마님께 고했습니다. 그 러자 두 부부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스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병이 낫는다면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이 아이는 부처님께서 나라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한테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이를 응낙하셔서 아이의 병이 낫게 되면 닷새 후에 데리러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나 두 부부는 너무나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낳은 아들인데 스님께 드린다니 그러면 우리 대는 영영 끊어지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이 태산 같아집니다.

그런데 아이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제가 임신하기 전에 태몽을 꾸었는데 그때 어느 스님께서 조그만 명경을 저에게 주시면서 깨끗이 닦아 소중하게 간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아이가 부처님께서 주신 아이임에 틀림없다고 믿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님께서 오셔서 같은 말씀을 하시니 이 아이가 저의 태몽과 꼭 들어맞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하니 이 아이가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처님께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신께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허락하십시오." 그러나까 김진사는 마침내 쾌히 응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가 아이가 솜을 물리면서 깨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삼일 후에는 정말 거짓말처럼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닷새가 지나니 정말로 그 스님이 다시 오셔서 아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고는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 도령은 키도 크고 체구도 장대하게 커서 벽암이라는 법명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본래 도령은 아이 적에 각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나 스님에 의해서 삼아나 벽암이라는 행자로서 스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나무도 하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벽암 행자는 글공부를 하고 싶으나 스님께서는 웬지 글공부는 하나도 안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칼이나 활을 쏘는 무술을 연마시켰습니다. 벽암 행자는 무척 속이 상하지만 그래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스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착실히 따랐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10여 년, 그때부터서야 스님께서는 벽암 행자에게 글공부도 좀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벽암 행자의 나이가 스무 살이 가까웠을 때, 하루는 스님께서 부르시더니, 금강경과 화엄경 그리고 법화경을 내 놓으시면서 그 날부터 사흘 저녁을 계속하여 설하시었습니다. 처음에 벽암 행자는 그 뜻이 가슴에 잘 와 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흘 밤낮을 쉬지도 제공의 경전을 다 읽어서 그 이치를 알게 되니까 정말 떳떳하게 되더랍니다. 그런데 그 사흘을 지내고 나니 스님께서는 그만 열반을 하셨습니다. 벽암 행자는 너무나 슬퍼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노스님 한 분이 오시더니, "지금 우리나라가 위태롭다.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백성이 위태롭고 나라가 풍지박산이 나게 되었으니 내려가 보도록 하여라. 너는 무술도 배우고 활 쏘는 것도 배웠으니 내려가서 나라를 건지는 데 너의 모든 것을 다 바치도록 하여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벽암 스님은 한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한양에서는 곧 전국무술대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벽암 스님도 거기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과연 벽암 스님의 무술 솜씨는 흘륭하여 계속 이기고 마지막으로 만난 상대와는 진짜 칼을 들고 생사를 겯고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상대방은 변장하고 출전한 오랑캐의 장군으로서, 장차 이 나라를 침범하기 위해, 이 나라에서 무술을 잘하는 사람을 미리 없애려고 무술대회에 출전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인 벽암 스님을 죽이려고 진짜 칼을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대치하여 서로 노려보는데, 벽암 스님은 한 치의 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벽암 스님의 노려보는 눈빛이 그냥 오랑캐 장군의 살로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고수들은 범써 칼을 들고 서 있어 보면 상대방의 검술의 정도가 감지되는 법입니다. 오랑캐 장군은 차마 벽암 스님의 시선

☞ 30면으로 계속

☞ 29면에서 계속

의 빛을 그대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검을 잡은 팔이 떨려옵니다.

마침내 오랑캐 장군은 더 버티지를 못하고 검을 땅에 떨어뜨린 채 도망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벽암 스님은 한 칼에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도 있었지만 도망가는 상대방을 그대로 살려주었습니다. 이것으로 벽암 스님은 전국무술시합에서 장원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장원으로 뽑힌 벽암 스님은 광해군 앞으로 나아가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광해군에게 머지않아 오랑캐의 침범이 있을 것 같으니 성도 쌓고 군대 무술훈련도 해야 된다고 허락하여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은 "지금 이렇게 평화스러운데 성은 무엇 하러 쌓으며 또 오랑캐가 무엇 때문에 쳐들어오겠는가? 그러니 무술이고 훈련이고 할 필요가 없다." 하고 벽암 스님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벽암 스님이 산에서 내려온 것이 장차 일어날 나라의 위난을 구해 보고자 함에 있었는데, 나라의 임금이 이를 허락하지 않으니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다고 생각한 벽암 스님은 이것도 저것도 다 버리고 멀리 산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또 어느 스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불심을 무심종으로 삼지 못하였기에 무심법행으로서 행을 하지 못했느리라. 그것은 아직도 분별심을 놓지 못했고, 그리고 너 자신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그러니 이 말을 명심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다시 내려가 나라를 구하도록 하여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벽암 스님은 다시 한양으로 내려갔습니다. 한양으로 들어가니, 이 때는 시대가 바뀌어 광해군은 내쫓기고 인조대왕이 벽암 스님에게 전의 관직을 다시 주면서 빨리 성도 쌓고 훈련도 시키라는 허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성을 쌓은 것이 지금의 남한산성으로, 나중에 위난이 닥쳤을 때 그곳으로 인조대왕이 급히 피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왕실 가족은 미처 피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랑캐는 남한산성을 다 에워싸고 금방이라도 성을 넘어올 듯 기세가 등등하니 모든 군사들의 사기가 크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 벽암 스님은 혼자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먼저 말을 타고 나가 싸운다면 모든 병사들의 사기가 새로 살아날 것이다.' 이와 같이 결심을 한 벽암 스님은 혼자 말을 타고 쏜살같이 적진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적진 앞에는 한 장수가 버티고 서 있는데 벽암스님이 칼을 들고 막 달려들어도 마주 싸울 태세를 취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면서 오히려 "스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벽암 스님께서도 말을 멈추고 적장을 똑바로 쳐다보니, 적장이 벽암 스님께 하는 말이, "나는 죽을 것인데 스님께서 나의 목숨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스님은 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군사를 다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장은 바로 벽암 스님이 전국 무술대회에 참가했을 때, 마지막으로 생사를 겯고 싸웠던 그 오랑캐 장군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약속대로 자기의 군사들을 다 철수시키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고 난 뒤에 들으니까, 임금의 일가족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백성들이 불들려갔음을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그만 벽암 스님은 한 생각이 탁 떠올랐습니다.

'아하! 그 때 그 스님께서 불심을 무심종으로 삼고 무심법행을 해야 많은 백성을 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 나는 얼마나 옹졸하였는가? 겨우 보이는 성이나 쌓을 줄 알고 보이는 적이나 물리칠 줄 알았지 않았는가? 왜 무심법행으로써 보이지 않는 성을 미리 쌓아서 침범을 미리 막지 못했으며, 또 침범하여 왔으면 더 많은 백성들이 끌려가기 앞도록 미리 무심법행을 하지 못하는가?' 그 때 그 스님께서 분명히 불심을 무심종으로 삼아라 그러셨늘. 내가 그 때에는 미쳐 거기까지 생각이 닿지를 못하였구나.

그때 스님께서 나에게 당부하시지 않았던가? '네가 무심종으로 무심법행을 밀고 나간다면 모든 백성을 건지고, 나라를 건지고, 그리고 많은 중생들에게 전부 불씨를 심어줄 수 있느니라. 네가 그와 같이 해 나간다면 반드시 모든 마무리가 잘 될 것이니라. 그러나 그와 같이 하지 못한다면 회향을 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미쳐 생각하지 못하였구나.' 하고 벽암스님은 또 자기 가슴을 치면서 '결코 모든 법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그랬구나, 아하! 이 일을 어쩌나' 일금과 내가 들어 아니요, 백성과 내가 들이 아니요, 오랑캐와 내가 들이 아닌 것을, 아직도 임금을 임금으로 보고, 백성을 백성으로 보고, 오랑캐를 오랑캐로만 보고, 나를 나로만 본 내가 잘못이었구나. 그 때 스님께서 모든 분별을 놓고 너 자신을 버리고 무심법을 실천공행하라 하셨거늘 그 뜻을 왜 이토록 몰랐던고?' 하고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벽암 스님은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셨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옛날에 어느 큰스님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마는 스님께서는 이 얘기를 마치시면서, "불심을 무심종으로 삼을 때 전 우주가 들리느니라! 그리고 무심법행을 할 때에, 천 우주와 우리가, 일체만물 만생이 전부 같이 들아가느니라. 그리고 무심행을 함이 없이 하게 될 때, 그 대로 법이 되어 용도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지느니라." 하시면서 "문이 많아서 문이 없고, 문이 없어서 문 찾기 어려우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많아서 문 찾기 어렵고, 문이 없어서 문 찾기 어려우니 이건 무슨 연고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 없어서 문 찾기 어렵고 문이 많아서 문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분별심 때문에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분별심을 놓고 쉬어서 무심이 되어 참다운 본심에 계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심으로써 모든 것을 대하고 무심으로써 일체를 다 맡기고 무심으로써 일체를 다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다운 자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보아도 본 바가 없고 들어도 들은 바가 없으며 해도 한 바가 없는 무심행이 되어야

그러므로 이러한 도리를 진실히 믿고 그대로 해 나가는 실천공행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분별하고 고집하고 그런다면, 언제 여러분이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실천공행하는 그러한 무심법행을 할 수 있겠으며, 또 언제 여러분이 인간 세상 이 통 속에 갇혀 사는 그런 노예의 삶이 아니라 통 밖에서 통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통을 굴리며 사는 참다운 자유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자신으로부터 해방되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자신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밖으로 쏠리는 모든 분별을 놓고 쉬어서, 무심이 되어 참다운 본심에 계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심으로써 모든 것을 대하고 무심으로써 일체를 다 맡기고 무심으로써 일체를 다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다운 자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밖으로 쏠리는 모든 분별 놓고 쉬어 무심으로 참다운 본심에 계합돼야

마나 옹졸하였는가? 겨우 보이는 성이나 쌓을 줄 알고 보이는 적이나 물리칠 줄 알았지 않았는가? 왜 무심법행으로써 보이지 않는 성을 미리 쌓아서 침범을 미리 막지 못했으며, 또 침범하여 왔으면 더 많은 백성들들이 끌려가기 앞도록 미리 무심법행을 하지 못하는가?' 그 때 그 스님께서 분명히 불심을 무심종으로 삼아라 그러셨늘. 내가 그 때에는 미쳐 거기까지 생각이 닿지를 못하였구나.

그때 스님께서 나에게 당부하시지 않았던가? '네가 무심종으로 무심법행을 밀고 나간다면 모든 백성을 건지고, 나라를 건지고, 그리고 많은 중생들에게 전부 불씨를 심어줄 수 있느니라. 네가 그와 같이 해 나간다면 반드시 모든 마무리가 잘 될 것이니라. 그러나 그와 같이 하지 못한다면 회향을 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미쳐 생각하지 못하였구나.' 하고 벽암스님은 또 자기 가슴을 치면서 '결코 모든 법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그랬구나, 아하! 이 일을 어쩌나' 일금과 내가 들이 아니요, 백성과 내가 들이 아니요, 오랑캐와 내가 들이 아닌 것을, 아직도 임금을 임금으로 보고, 백성을 백성으로 보고, 오랑캐를 오랑캐로만 보고, 나를 나로만 본 내가 잘못이었구나. 그 때 스님께서 모든 분별을 놓고 너 자신을 버리고 무심법을 실천공행하라 하셨거늘 그 뜻을 왜 이토록 몰랐던고?' 하고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벽암 스님은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셨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옛날에 어느 큰스님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마는 스님께서는 이 얘기를 마치시면서, "불심을 무심종으로 삼을 때 전 우주가 들리느니라! 그리고 무심법행을 할 때에, 천 우주와 우리가, 일체만물 만생이 전부 같이 들아가느니라. 그리고 무심행을 함이 없이 하게 될 때, 그 대로 법이 되어 용도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지느니라." 하시면서 "문이 많아서 문이 없고, 문이 없어서 문 찾기 어려우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많아서 문 찾기 어렵고, 문이 없어서 문 찾기 어려우니 이건 무슨 연고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 없어서 문 찾기 어렵고 문이 많아서 문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분별심 때문에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분별심을 놓고 쉬어서 무심이 되어 참다운 본심에 계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심으로써 모든 것을 대하고 무심으로써 일체를 다 맡기고 무심으로써 일체를 다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다운 자신으로 돌아가



동국대창업동아리 프론티어

불심으로 CEO 꿈 ★ 이룬다

"각종 벤처 경진대회서 실력 인정
아이디어 회의, 공개·자문 받아 진행
계획서 작성 등 실전 경험 바탕으로 이뤄져"

창업(創業).

대학생들에게 창업은 과연 희망사항이나 꿈에 지나지 않을까? 희망사항이나 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려는 열정이 있는 한 희망과 꿈은 아름다운 현상이 된다는 믿음, 대학생이기에 그 믿음만으로도 행복하다. 거기에 종립대 구성원답게 불심까지 충만하다.

창업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도전정신을 가지며 자신의 아이템을 사업화해 보자는 취지로 1998년 창립된 동국대 유일의 창업동아리 프론티어. 비록 역사는 짧지만 프론티어의 명성은 대단하다. 창립 첫해부터 각종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벤처창업경진대회에서 상을 휩쓸었고 2000년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우수창업동아리로 선정되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아왔기 때문.

프론티어가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게된 데에는 아이디어 회의와 팀별 활동이 밑거름이 됐다.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아이디어 회의는 회원 각자가 가진 아이디어를 다른 회원들에게 공개해 자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회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사업에 착수한다는 마음으로 사업계획서까지 써보고 방학을 이용해 소규모 사업을 선정, 창업을 경험해 보기도 한다. 아이디어의 사업화와 사업계획서 작성, 소규모 창업 등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프론티어는 2002년 서울시 주최 대학생 창업아이템개발지원 사업에 2건의 아이디어가 선정돼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기도 했다.

프론티어는 다른 창업동아리와 달리 철저히 팀별로 모든 사업들이 진행된다. 현재 새학기가 시작되고 신입회원이 들어오는 시점이라 아직 팀이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주식팀을 비롯해 제1사업팀과 제2사업팀이 꾸려지고 있다. 주식팀의 경우 동아리 회비 250만원과 학생 1인당 10만원씩 투자해 직접 주식을 사고 팔면서 주식에 대한 여러 지식을 습득할 예정이다. 모든 팀은 팀장을 중심으로 선배와 후배가 도제식 교육을 통해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끊임없는 아이디어 회의와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프론티어를 졸업한 선배들의 활약도 대단하다. IT경기침체로 현재는 거의 대부분 졸업생들이 대기업으로 재 취업해 있지만 그동안 세운 벤처 기업만 해도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전문 사이트인 '아하코리아', 연주용 음향기기의 노래책 없는 리모콘을 개발한 'J.Tech', 북한포탈 사이트 'dprk21' 등 다수다. 특히 프론티어 창립 맴버이자 초대 회장을 지낸 박병록(전산통계학과 졸업)씨는 재학시절 '벤처기업인 양성 사업 아이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한달간 일본 벤처기업을 탐방해 후배들에게 선진국의 실상을 알려주는 등 그 이후에도 선배이자 밴처기업인으로서 동아리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오고 있다.

프론티어 권혁재(컴퓨터공학과 3년) 회장은 "동국대 학생이면 불자이든 아니든 1학년때 불교 소양과목을 이수해 불교에 대한 기초지식을 알고 있다"며 "창업 아이디어를 내거나 실제 창업을 하면서 불교적 가르침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등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우리절 digital·cyber 불사

강화 적석사 (www.juksuk.co.kr)



인천시 강화면에 위치한 낙조대 적석사(주지 선암)는 관음기도도량으로 1600년전인 고구려 장수왕 4년(서기 416년) 창건된 유서깊은 전통사찰이다. 특히 고려시대 선운사에서 판각된 팔만대장경을 보관했던 사찰로 몽고 침입기에는 고려왕조의 임시거처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장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적석사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그래서 주지 선암스님은 이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www.juksuk.co.kr)를 개설했다.

적석사 홈페이지 가운데 가장 인기가 있는 코너는 바로 적석사 라이블러리. 적석사가 팔만대장경을 보관했던 사찰이기에 선암스님은 2년전부터 팔만대장경을 원문과 해석본을 실어 꾸준히 업데이트 했다. 지금은 네티즌들이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색인작업까지 완료했고, 한글대장경과 불교설화 등도 네티즌들이 쉽게 읽을수 있는 분량으로 나누어 정리를 완료했다. 스님의 이같은 노력의 결과 라이블러리 코너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 경전공부를 하는 소모임까지 생겨났다.

적석사 주지 선암스님은 "얼마전 조계사 청년회 출신 정민숙(강남거주)씨라고 밝힌 보살이 직접 전화를 해 라이블러리에 올린 자료를 활용, 도반들과 함께 경전공부를 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며 "최근 총무원의 소임을 맡으면서 자주 업데이트를 못해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적석사 홈페이지에는 신앙상담, 행사 등 불교관련 사진을 올리는 갤러리 코너 등에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반 사찰홈페이지에서 볼수 없는 대화방 코너가 있어 사이버 공간에서 신도들이 모여 채팅을 하며 서로의 친목을 다지고 수행을 점검하고 있어 청소년 불자들에 호응이 높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불사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적석사는 사찰 종무행정의 전산화를 통해 현대화된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4년전 수백만원을 투자해 종무행정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찰의 모든 행정을 전산화 했고, 최근에는 조계종에서 개발한 가람지기 종무행정프로그램을 도입해 정보사회에 앞서가는 사찰로 탈바꿈하고 있다.

선암스님은 "앞으로 종단에서 사용하는 서류나 기타 양식 등을 공유할수 있는 종단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조계종에서 개발한 가람지기를 활용하거나 기타 종단차원에서 사찰 홈페이지를 하나로 묶는 불교포탈 등을 만든다면 종무행정 뿐만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팔만대장경 원문·해석본 꾸준한 업데이트
갤러리·대화방 등 볼거리 청소년에 인기



no	subject	name
공지	한국불교설화	선암스님
공지	한글대장경 색인표	선암스님
공지	고려대장경 해제집	선암스님
1389	대방광불화엄경....화엄경	선암스님
1388	보성다라니경	선암스님
1387	불설무언동자경	선암스님
1386	분신왕문경	선암스님
1385	자재왕보살경	선암스님
1384	보녀소문경	선암스님
1383	대집비유왕경	선암스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해외불교사이트 순례 ■ 세계종교연구소 (http://www.drba.org/iwr_e.htm)

스님과 신부가 함께 운영하는 세계종교연구소(http://www.drba.org/iwr_e.htm)에 가보면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이 대화를 통해 이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세계종교연구소 설립자인 휴와스님은 1962년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 10만 명의 일반 회원이 가입해 있는 '불국토-불교도연합'이라는 단체를 설립해 이끌어가고 있다. 불국토-불교도연합은 미국, 캐나다뿐만 아니라 홍콩, 대만,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주로 동아시아 지역의 불교 포교를 위해 사찰과 학교를 설립했다.

다른 종교간 대화 창구 역할
각 분야 이론가의 세미나, 토론회 마련

세계종교연구소는 현재 종교적 정신적 지도자와 과학·기술 분야의 이론가와의 세미나 개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공개토론회 등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이중에는 △미국 대학생 명상 지도 △종교·과학계의 연석회의 △참선 수행 보급 △남방 불교계 후원 △불교 경전 강독 등이 있다.

또 독서 코너에서는 △이슬람의 역사 △불교도 윤리학에 대한 세미나 △중국인의 종교 △여성의 정신적인 전통 등의 코너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계종교연구소는 유대교·불교·기독교와의 정규 대화 시간을 진행하고, '종교간 대화'라는 메뉴를 통해 이해에 바탕한 종교간의 관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IT단신

'칠연회' 장애법우 산사 나들이
음악회, 조선소 견학 등 다양한 행사 가져

하이텔불교동호회(대표시삽 송인영)내의 장애법우 소모임인 칠연회는 3월 29일~30일 경남 거제시 소재 시인의 마음에서 '칠연회 전국모임' 행사를 봉행했다.

하이텔불교동호회에 가입한 7명의 중증 장애법우들에게 산사를 찾는 기회를 제공하고 신행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로 창립된 칠연회는 매년 장우법우들과 함께 산사를 찾는 칠연회 전국모임을 가져왔다.

저녁 법회를 시작으로 음악회, 캠프파이어, 해맞이, 해변산책, 대우조선소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250여명의 회원들과 30여명의 장애법우들이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하이텔불교동호회 송인영 대표시삽은 "장애법우들에게 산사를 찾는 기회를 제공하고 신심을 키울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허받은 명당육기방

소원성취 명당 육기(氣) 방

氣란? 현실입니다.

<한차원 앞서가는 명당육氣방>

신비한 氣운을 모아주는 명당육氣방
관세음 보살님의 화현으로 내려주신 황금보물
소원성취 명당육氣방은 어느 곳에 두어도 天氣, 地氣, 六氣의
신비한 氣운을 모아주고 육방호법수호신장,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천하대장, 지하여장이 액운과
우환과 재앙등 악귀을 막아주고 업장을 소멸함으로 훈훈한 氣운이
감돌아 가정이 안정되는 좋은 명당을 만들어 줍니다.
또한 명당육氣방에는 정성과 혼이 담긴 만사형통 12가지의
부적이 세겨져 있고 관운과 재운과 명예운를 얻고 큰인물이
태어나기 위한 뜻이 담겨져 있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발하는 발원문, 소원성취문, 사업성취문, 조상발원문,
학업성취 소원문, 부적 등을 넣어 가정에 두고 정성드린 마음을 가지면 영험적 좋은 운으로 바꾸어 주고 사업의 성공과 아울러 뜻하지 않는 좋은 일들이 있게되며 명당육氣방을 가진 인연공덕으로 근심걱정 사라지고 행운과 소원을 이룰것입니다.

신비의 황금 보물
좋은 명당을 만들어 줍니다.

가정집, 점포, 사무실, 집터, 공장터, 묘지터에 氣가 약하면 근심과 불화로 변해가고 氣를 모아주면 모든 일들이 잘되어 갑니다. 불화가 오고 안될때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 입니다.

1. 모든 일들이 불행으로 변해가시는 분
2. 사업이나 장사가 잘안되시는 분
3. 돈이 모이지 않고 새어나가시는 분
4. 가정에 불화와 우환이 있으신 분
5. 하라는 데로 다해보아도 안되시는 분
6. 큰꿈을 품고 할려고 하시는 분

좋은 氣운을 모아주면 명당이 됩니다.
명당육氣방은 가정, 점포, 사무실, 공장등에 氣를 모아주고 수호하여 액운을 막아주고 재물이 모이는 명당을 만들어 줍니다. 氣가없고 수호없는 자리는 액운과 불화가 따르고 재산상 손실이 오고 잘되지 않습니다. 모든 자동차, 배(선박)에는 예고없는 대형사고나 재난이 날수 있으므로 총명한 氣운과 지켜주는 氣운이 융합 안전운행이 되도록 합니다.
명당육氣방은 집터, 공장터등에 氣를 모아주고 액운과 풍파가 없는 명당터를 만들어 줍니다. 터에 氣가 없고 액운이 가로막고 악터가 되면 모든 일들이 잘되지 않습니다. 명당육氣방은 묘지, 납골묘지터등에 氣를 모아주고 악귀 없는 명당터로 만들어 줍니다.
氣가 약하고 잡귀와 수맥과 자기 결핍증에 시달린 영가들이 힘들고 괴롭고 편안하지 못하면 직계가족 또는 후손에게 악성적 좋지않는 파장이 올수 있습니다. 氣가 모인 명당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불러오고 氣가 약하면 악터가 되여 액운과 우환이 따르고 건강과 명예와 재물을 잃고 잘되는 일이 없으며 불화가 따릅니다. 옛부터 조상이 도와야 잘된다고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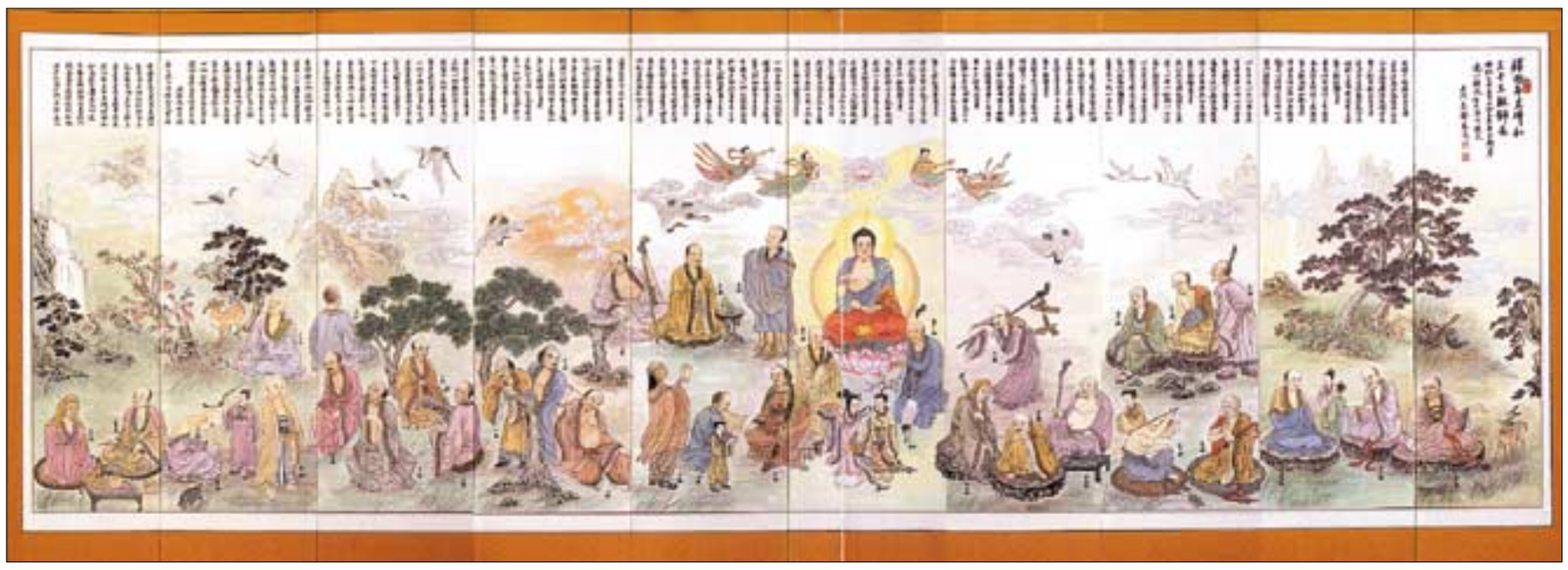
불교용품점, 사찰, 암자, 철학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명당육氣방 : 051-865-9933
홈페이지주소 : 명당육기방 www.6kibang.co.kr

불행과 행복은 氣의 원리하에 좌우하고 氣가 약하면 불행이 올 수 있으며 氣가 강하면 부귀로 변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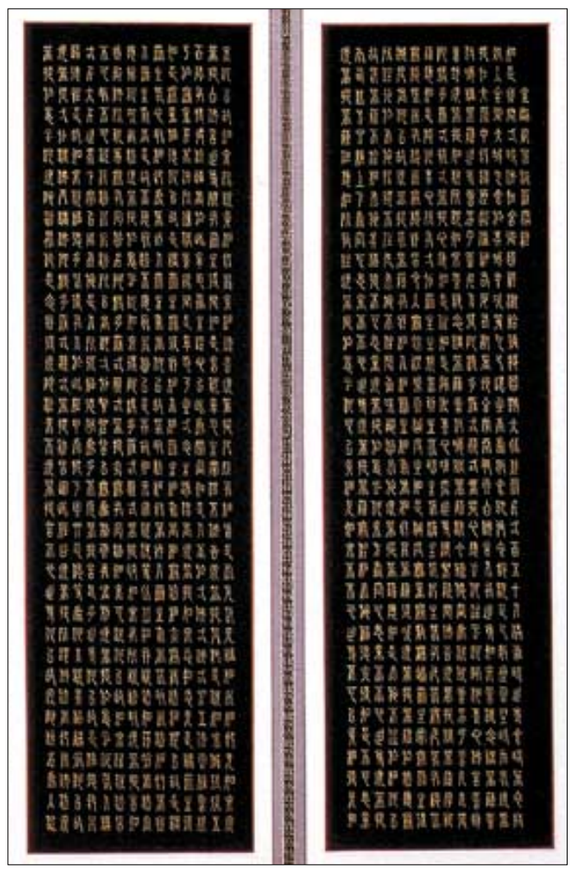
종류: (골드 1호, 2호 : 가정집, 점포(상가), 사무실 전용) (홍, 은, 흑 : 묘지, 집터, 공장터, 상가터 전용) (1호 : 모든 자동차, 배(선박) 전용)

무념무욕 선서화…역대 조사와 禪문답 하듯

탄정 스님의 예술세계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6조 혜능스님까지 33인의 위대한 스님들을 그린 '33조사도'.



◇전서체로 쓴 금니 금강경 병풍(일부).

주와 객, 사유와 비사유를 떠난, 불교 실천수행의 핵심인 선(禪)은 단순히 호흡과 동작, 자세 등의 의식에만 국한된 것 뿐만 아니라 글과 그림(書畵)이라는 서로 상이한 매개체의 조화를 통해서도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탄정스님의 선서화 역시 진흙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연꽃과도 비견될 수 있다. 바로 스님의 선서화 작품들은 수행자 본래의 순수한 성품 추구를 통한 구도의 자세로 철저한 선수행을 동반한 가운데 일체의 분별을 떠난 깨달음의 정신이 구현된 무념무욕의 상태에서 나온 작품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특히 여느 선서화의 그것과는 달리 독특한 필선과 함께 다양한 주제와 화재로 명성이 높은 탄정스님 선서화의 세계는 보면 볼 수록 오묘하다. 말과 글을 통한 직접적인 의사전달 수단과는 또다른, 스님의 작품에 깊이 내재된 수행력은 역대 조사 스님들의 선문답과도 그 맥을 같이하는 듯 느껴져,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자기성찰의 폭을 더해주고 있다.

'禪機 느껴지는 그림' 화두로 참선 정진

'선서화(禪書畵)'란 용어 자체부터가 생소했던 70년대, 그림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여러 스님과 화가들을 찾아다니며 배움을 구하는 등 스님의 열정은 끝이 없었다. 그러나 하루하루 아무리 실력이 늘어만 가도 왠지 모를 공허는 메울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선의 기운이 담겨있는 진정한 선서화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지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는 것이 스님의 토로다.

아무리 기교가 넘쳐나고 실물과 비슷하게 그림을 그린다 해도 이것이 일반 서화가 아닌 선서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탄정스님에게 선에 입각한, 선기가 느껴지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은 오매불망 갖고 있던 '화두' 였다.

탄정스님은 자성을 찾기 위한 선수행에도 무섭게 매진했다. 아예 출입구를 막고 몇 년이고 바깥세상에 나오지 않는 토굴에서 '이 자리에서 깨치지 못한다면 일어서지 않으리라'는 각오로 6년간의 참선 정진에 들기도 했다.

이렇게 목숨을 내건 수행과 구도의 과정이 이어지자 스님이 품어왔던 화두도 자연스레 풀리게 되었다. 스님의 작품활동도 이때부터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후비강암이라는 뜻밖의 병을 만나면서 잠시 주춤하게 되었다.

"제 병 때문에 병원 전체의 의사선생님들이 모여 회의를 할 정도였지요. 그때 눈과 턱 등 얼굴의 절반을 들어내야 하는 대 수술을 해야한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들었어요. 또 살 확률도 20%를 넘지 못한다는 말도 들었지요"

스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암과 그 후유증으로 두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마다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이 현몽하여 자비를 내렸다. 두 불보살님의 가피에 보은하는 길이 바로 선서화를 통한 불법 홍포의 길이라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작품활동에 힘을 기울여 오고 있다.

바로 몇해전까지만 해도, 젊은 사람도 힘들어한다는 암치료법인 방사선 치료를 받은 스님은 점점 쇠약해져 가는 육신을 부여잡고 마지막 남은 목숨까지 내던져 버린다는 일념으로 붓을 들고 작품활동에 매달렸다. 스님의 예술에 대한 열망에 불보살님이 감명하셨는지 의사들도 놀랄 만큼 건강이 호전됐다. 기도로 하는 스님의 작품활동은 더욱 왕성해져 가고 있다.

"선서화는 불가 선수행의 한 방편입니다. 오직 선적 깨달음을 붓끝으로 승화시키기에, 그것을 감상하는 이로 하여금 갈등, 공허함, 불안, 분노 등을 정화시켜 줍니다."



연꽃



백의관음도

"선정 상태서 그린 작품만이 선서화"

30년 화력 집중 전시회 갖는 탄정 스님

"요즘 아무나 보살도나 달마도를 그리고, 또 아무 작품이나 선서화라 하는데 그것을 잘못입니다. 진정한 선서화란 지극한 수행을 통한 선정(禪定)의 상태에서 이러한 정신을 붓으로 표현한 작품만이 진짜 선서화라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선(禪)'자만 붙인다고 그것이 불법의 정수인 '선'의 방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탄정스님의 지론이다.

2001년 4월 전시회를 가진후 2년여 동안 작품구상에 들어갔던 탄정스님은 스님의 작품을 잊지못하고 있는 불자들의 간청에 못이겨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선서화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회는 스님의 30여년 화력의 총결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국내 선불교 예술의 '명품'이라 할 수 있는 대표적 작품들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탄정스님이 처음 붓을 잡게 된 것은 지난 59년. 당대 대강백으로 이름을 떨친 용봉큰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글씨를 배우면서부터다. 당시 용봉스님으로부터 매를 맞을 정도로 혹독한 경책을 받으며 엄한 교육을 받은 스님은 그 시절이 있었기에 오늘의 탄정스님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

글씨의 기본을 익힌 탄정스님이 진정한 선서화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또 있었다. 30여년전, 여러 도반스님들과 떠난 만행길이었다. 어느 집에서 하룻밤을 신세지게 되었는데, 그 때 그 집 벽에 예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 걸려있었다. 그 그림을 보고는 문득 '우리 불교도 그림으로 포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선서화를 그리게 된 시작이다.

그동안 10여차례 이상 개인전과 특별전을 가졌고 각종 상을 수상했다. 스님은 또, 중국예술인과의 교류도 활발히 가져 중국 길림성 문묘박물관과 사천성 중국문화박물관에에 스님의 작품이 소장돼 있으며, 현재 중국 군성예술대학 미술과교수, 길림성 체육학교 명예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30여년간 하루라도 붓을 놓아본 일이 없을 정도로 화업(畵業)을 수행의 한 방편으로 삼아 정진해 오고 있다. 탄정스님은 불법의 핵심을 담은 금강경과 관세음보살도, 달마도를 비롯한 산, 물, 나무, 꽃 등의 자연을 소재로 한 꾸밈없는 작품들을 즐겨 그린다.



◇지극한 수행력으로 그려진 작품만이 선서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탄정 스님.

금강경 · 보살도 · 자연을 즐겨 소재로

볼수록 마음이 맑아지는 순수한 탄정스님의 예술세계는 삭막해져 가는 현대에 사는 이들에게 따스하고 깨끗한 본래심(本來心)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탄정스님은 "많은 불자들과 시민들이 선서화를 관람함으로써 우울하고 절망적인 마음을 가라앉히고 새로운 꿈을 갖게 되어 사회의 침체된 분위기를 일소시켜 이 사회에 밝고 희망찬 기운이 일어났으면 한다"는 원력을 펴 보였다.

● 이력
1944년 경북 포항에서 출생
59년 포항 오어사로 출가
62년 동산스님 계사, 용봉스님 은사로 수계
89년 포항시 문화원 전시실에서 첫 전시회를 가진 이래 10여차례 개인전 개최
제2회 불교문화예술전 특선 수상
제5회 한국미술대상전 우수상 수상
제6,9회 한국미술대상전 은상 수상
제8회 한국미술대상전 금상 수상
98년 한중우수작가선발전 우수작품상 수상
제13회 한국미술대상전 초대작가

● 경력
한국정예작가협회 이사 역임
한국현대미술인협회 이사 역임
중국 군성예술대학미술과 교수(현)
중국 길림성체육학교 명예교장(현)

● 작품이 소장돼 있는 곳
통도사 성보박물관
중국 길림성 문묘박물관
중국 사천성 중국문화박물관 등

'금강경 전서체' '33조사도' 등 150여 선서화 전시



탄정스님은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마다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의 현몽을 꾸어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고 한다.

■장소 : 울산 문화예술회관
■일시 : 불기 2547(2003)년 4월 12 ~18일(7일간)
■개막식 : 2547년 4월 12일(토) 오후 2시

우리의 삶은 과거의 인연으로 인하여 오늘을 살아가며 새로운 인연을 통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 전시되는 탄정스님의 150여 선서화는 스님이 암이라는 무서운 병마와 싸우면서도 오직 중생구제의 원력으로 밤을 지새우며 이루어낸 정성어린 작품들입니다.

4월 12~18일 7일간 울산문화예술회관서

수익금은 세심선원 중창불사 · 불우이웃돕기에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이는 작품들 중 한국 최초의 '금강경 전서체' 작품과 함께 부처님으로부터 6조 혜능대사까지의 전법도 '33조사도'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접하기 힘든 대작이라 사료됩니다.

전시회의 수익금은 세심선원의 대웅전 중창불사 및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쓰일 예정이오니 제방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포항 세심선원 전경

세심선원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656번지
TEL: (054)251-4873 / HP: 011-808-4873 / FAX: (054)252-4873